

2012년 명칭사학회 하계연구토론회

동아시아 속의 명청과 조선
: 한중관계의 역사와 21세기

일시 : 2012년 7월 6일 금요일 10:00 ~ 17:3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센터 ECC B146호

주최 : 명칭사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 논문집은 2012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프로그램

10:00 ~ 10:05	개회사 박기수(명청사학회 회장, 성균관대)	
10:05 ~ 10:30	기조강연 최소자(이화여대 명예교수) 明清과 朝鮮, 朝鮮과 明清 關係史 연구현황과 과제 - 수교20주년에 즈음하여 -	5
10:30 ~ 12:10	제1부 발표 제1발표: 조선왕조의 장구성과 한중관계 • 발표 : 계승범(서강대) • 토론 : 구범진(서울대) 제2발표: 그 이름 불러주기: 실록의 조선·청나라 호칭(五稱) 분석 • 발표 : 이영옥(성신여대) • 토론 : 원정식(강원대)	사회: 이준갑(인하대) 43 63
12:10 ~ 13:30	오찬(이화여자대학교 생활관 교직원식당)	
13:30 ~ 16:20	제2부 발표 제3발표: 만선사·만학, 그리고 만주학 • 발표 : 김선민(고려대) • 토론 : 정다함(상명대) 제4발표: 청대 유조변과 봉금지대 성격 연구 • 발표 : 남의현(강원대) • 토론 : 김경록(공군사관학교) 제5발표: 조·청교류의 공간, 북경 • 발표 : 백옥경(이화여대) • 토론 : 조영현(고려대)	사회: 정지호(경희대) 83 107 125
16:30 ~ 17:30	종합토론	사회: 서인범(동국대)
18:00 ~	만찬 (이대후문 건너편 하늬솔빌딩 2층 함평면옥)	

明清과 朝鮮, 朝鮮과 明清 關係史 연구현황과 과제 - 수교20주년에 즈음하여 -

崔韶子(이화여대 명예교수)

- I. 序論的 考察
- II. 明清과 朝鮮 關係史 연구현황
- III. 朝鮮과 明清 關係史 연구현황
- IV. 앞으로의 과제

I. 序論的 考察

明清時代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연구는 그 이전시대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중국의 수도는 北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動力이 전시대에 비해 東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陸上이 아닌 海上 루트를 통한 南, 南西와의 관계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明代 이러한 중심축의 이동은 한국과의 관계도 그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明清時代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전형적인 冊封朝貢관계의 시기라고 한다. 특히 정치외교의 부분에서는 종속관계라고 하지만 경제나 문화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화 양식이 조선에 전래, 수용되었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큰 중심이 되었다.

어느덧 한중수교 20년이 되었다. 수교 1년 후 중국을 방문했던 필자는 그 당시에 비해 현재 중국은 비약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정도로 발전하였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설 정도로 성장 속도도 빠르다는 말이 무색하다.

양국관계사의 연구도 그 이전에 비해 엄청나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시기는 19세기 이후의 清代 후반기이지만 근대이므로 논외로 하고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개략적으로 중국과 한국관계사(명청시대)의 연구현황을 정리해 보았는데 총괄적으로 850여종

을 훨씬 넘었다.¹⁾ 2000년대 이후 연구논저는 수교직후에 비해 40%정도 증가하였고 明代보다 清代연구가 40%정도 많았다. 한국의 연구 성과는 중국에 비해 30%정도 많았다. 수치를 통한 계량적인 언급은 중요하지 않지만 상황과약에는 도움도 된다. 현재 중국에서 중한관계사, 한중관계사 연구자가 2000년대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우려되는 바도 있고, 한국의 연구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도 크다. 이렇듯 수많은 논저 중 부분적으로 접했던, 제목만 파악한 논저도 있지만, 단시간에 다 섭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에 양해를 구한다.

- 1) 한국측 참고자료를 논하기에 앞서 양국관계사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全海宗 교수의 『中韓關係史論集』(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97)과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八旬 기념논총)(지식산업사, 2000),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를 소개한다. 한국측 참고자료는 金渭顯 편, 『韓中關係論著目錄(1900-1999)』, 藝文春秋館, 2000 ; 고구려재단 편, 『한중관계사논저목록(중세)』,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2000년 132-135호는 『역사의 창』(vol.1-4)로 대치)~154-155, 2011년까지 ; 金翰奎, 『使朝鮮錄』, 서강대출판부, 2011 ; ____, 『한중관계사』 I·II, 아르케, 1999 ; ____, 『遼東史』, 문학과학지성사, 2004 ; 金鐘圓,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혜안, 1999 ; 朴元焄, 『崔溥漂海錄譯註』, 고려대출판부, 2006 ; ____, 『崔溥漂海錄研究』, 고대출판부, 2006 ; 박원호·권인용·홍성구·박정현,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조영록, 『근세동아시아 三國의 국제교류와 문화』, 지식산업사, 2002 ; 崔詔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연구』, 이대출판부, 1999 ; ____, 『淸과 朝鮮 :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 최소자·정혜중·송미령 엮음,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혜안, 2007 ; 최소자 교수 정년기념논총,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조영록·변인석·신채식·김구진·최소자,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 국학자료원, 1995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 이상태 등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1998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申太永,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 정옥자,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 김형중,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연구동향의 분석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역사학계의 청사연구동향~한국관련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계승범, 「조선시대 동아시아질서와 한중관계~쟁점과 분석」, 『한중일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노기식, 「淸前期 만주(東北) 및 조선관계 연구동향」, 위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2004 ; 배성준, 「중국의 조청국경문제 연구동향」, 위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2004 ; 윤휘탁, 「중국의 변강연구 동향과 '변강' 인식 동북 변강을 중심으로」, 위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2004 ; 서인범, 「조선전기 연행록 사료의 가치와 그 활용」, 『명청사연구』 30집, 2008 ; 정혜중, 「최근 중국의 청대 대외관계사 연구동향~조청관계사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한국관련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 陳尙勝, 「최근 15년간 중국학계의 청조와 조선관계사에 대한 연구 논평」, 『이화사학연구』 37집, 2008 ; 최소자, 「명청시대 대외관계사의 성과와 과제」, 『명청사연구』 19집, 2003.
- 중국측 참고자료는, 白新良 主編, 『中朝關係史』(明清時期), 世界知識出版社, 2002 ; 劉爲,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 姜龍范·劉子敏,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 ; 刁書仁 主編,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劉永智, 『中朝關係史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 金龜春主編, 『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 1, 延邊大學出版社, 1995 ; 徐凱, 郭床濤, 「中韓關係史研究的歷史回顧與展望」, 『韓國學論文集』 6, 1997 ; 姜維公,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1 ; 魏志江, 『中韓關係史研究』, 中山大學出版社, 2006 ; 趙興元, 『清代中朝關係史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6 ; 朴鍵一 主編, 『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 民族出版社, 2006 ; 楊軍,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陳尙勝, 『中韓關係史論』, 濟魯書社, 1997 ; ____, 『山東半島與中韓交流』, 香港出版社, 2007 ; 楊昭全, 『中朝邊界研究文集』, 長春, 吉林省社會科學院, 1998 ; 松浦章 編, 『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臺北 中央研究院, 2002 ; 沈定昌 主編, 『朝鮮半島相關文獻目錄 1992-2005』, 遼寧出版社, 2008 등이다.

조선은 事大를 표방하면서 '事大字小'를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의 관계로 서로 섬기고 돌보아 주는 관계라는 측면을 유지하였다. 또 한국인 스스로 箕子의 후손을 자처한 것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가장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있음을, 東方禮儀之國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小中華를 자처하여 여진족의 지배시기인 청대에, 최고의 문화가 조선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논리, 즉 중국문화와 한국 문화가 융합된 동아시아 문화라는 의미²⁾는 당시 조선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답답한 인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明代 중국의 조선인식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明史』, 『淸史稿』의 朝鮮傳을 살펴보자. 명청대 「朝鮮傳」은 전시대에 비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막연한 풍물이나 풍습 같은 사회상과 문화적 특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중국과 한국간의 이해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조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려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明史』 「朝鮮傳」은 1643년 명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아니라 1637년 병자호란까지만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청대에 「朝鮮傳」이 서술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明史』 「朝鮮傳」에서는 먼저 조선왕조의 국호가 중국문헌에 언제부터 유래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중국과의 문화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朝鮮傳」 말미는 治亂에 관한 것만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하며 조선의 풍토와 산물은 前代 史書에 갖추어져 있어 거듭 기록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있다.

『明史』 「朝鮮傳」에 나타난 중국인의 조선 국내정치에 관한 인식은 麗末鮮初의 조선의 정치와 정세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고, 소위 反正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국왕교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일은 조선의 보고를 받고 허락하는 형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왜란과 관련하여 宣祖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世宗은 긍정적으로, 燕山君, 光海君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적 가치 기준과 질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初 이후 요동(女眞)문제는 女眞과 조선간의 내왕이나 월경을 금지시켰고, 土木堡의 變(1449) 이후 여진문제는 명조의 뜻에 따라 조선이 명의 요구대로 움직이기를 원했고 조선을 통해 여진을 공격, 견제, 협력, 토벌케 하였다. 17세기에 들어가 변방경계를 더 엄중히 하게 하였으며, 明清戰(1619) 이후 毛文龍의 역할도 주시하였다. 그리고 毛로 인하여 丁卯胡亂을 조선이 자초한 것이라고도 하면서 명조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서술한 것은 없다.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조선은 陸路로 女眞(滿洲)과 海路로 倭를 견제할 수 있는 隣國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倭亂과 관련하여 「朝鮮傳」의 내용이 1/3정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倭는 倭寇의 연속으로 인식하였고 명의 군사과견, 강화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조선은 중국의 울타리

2) 김한규, 위의 책, 1999, pp.5-45참조.

구실을 하는 藩國이므로 兵亂이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하였던 중국은 왜란이 중국으로의 과급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戰後 조선을 통한 왜에 대한 대비로 巨濟, 蔚山, 閑山 등지의 방어에 힘쓰는 한편, 일본의 조선을 통한 중국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전제로 조선의 지형이나 전략상 중국과 연결되는 요지를 차단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전후 대마도 일본문제는 조선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형태로 유지하며, 조선은 왜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어하는 해상 육상의 주요거점으로 삼았다.

조선의 物産과 조선인에 대한 명대 중국인들의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物産이란 조공을 통해 중국에 수출된 물품에 대한 인식인데, 明朝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물로서 土產物을 원했는데 사치스럽지 않아야하고 진기한 물건은 헌상하지 말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에 보내진 물품은 金銀器皿, 螺鈿梳函, 白綿紬, 苧布, 貂皮, 獺皮, 人蔘, 白綿紙, 種馬 등인데 시기에 따라서는 많은 말을 원하기도 하였다. 海靑 역시 중국에서 선호한 물품이었다. 환관은 우둔한 월남인 보다 명민한 조선인을 인정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주변국가중 문화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지만 人性이 강인하다고 보았고 文臣은 귀히 여기는 반면 기술자는 천시한다고 하였다. 또 의관과 서적을 중국의 제도와 같으니 예의가 있는 나라라고 보았고, 조선이 문화적 품격이 높은 것은 箕子와 연계 지워 이해하려 하였다. 기자의 상정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가장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였다.³⁾

『淸史稿』 「朝鮮傳」에서는 1619-1895년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사실 청조는 入關以後 1644년부터 청조가 망하는 1911년까지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왜 明清戰 이후 淸日戰까지만 기술하였는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은 논외로 하고 1920년대 말 『淸史稿』가 간행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만주족의 왕조인 淸朝 역시 조선과의 사이의 통상적인 일, 경계문제, 표류민에 관한 현안을 주로 서술하였다. 특히 1880년대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또 전시대에 비해 入關前 양국관계가 확립되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면도 있고 단순한 隣國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의 상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조가 중국 본토를 지배하게 된 후 중국의 전통문화를 수용하여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조선의 문화는 어떻게 이해하였겠는가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 같다. 그 원인은 조선의 崇慕華 의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을 다녀간 사행이나 人物들의 조선인식이나 문화수준도 낮았으므로 전시대에 비해 문화인식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다.

조선 국내정치인식은 전쟁으로 양국 간의 기본 틀을 마련한 후 東北의 1639년 庫爾喀反亂時, 1650년대 羅禪정벌시 조선군의 동원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의 국내정치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18

3) 崔韶子, 「明清代 文獻의 朝鮮認識」, 『梨花史學研究』 28집, 2001, pp.85-96 참조.

세기 초 양국의 경계문제가 관심을 모으면서 강희제의 조선 地勢에 대한 발언(1706년)은 관심을 모으는데 "그 나라에는 8道가 있다고 하는데 北道는 瓦爾喀 지방의 土門江과 접하여 있고, 東道는 倭子國과 접하여 있으며 西道는 우리나라의 鳳凰城과 접하여 있고 南道는 바다로 접하여 있으며 몇 개의 작은 섬이 있다고 한다."고 하였다.⁴⁾ 그리고 몇 년 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기 1년 전 穆克登을 파견하여 장백산을 중심으로 東西路의 양국경계를 조사시킨바 있다. 이것은 조선과 직접 경계를 맞닿게 되면서 祖先의 땅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후는 雍正때 경계 상 문제가 제기된 일은 있지만 19세기 후반 조선인의 대량만주지역이주가 이루어지면서 朝鮮戡界案 (1890)이 나올 때까지는 양국 간에 큰 사안은 없었다. 청조는 조선의 국내정치에의 간여나 관심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반면, 월경자 문제는 주요현안으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통치자 중에는 正祖를 好學君主로 평가하였다.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明과 日本, 西洋을 견제할 수 있는 外藩(밖의 울타리)으로 조선을 인식하였는데, 이에 비해 藩部(蒙古, 新疆, 西藏)는 中國本土와 滿洲를 둘러싼 周緣部로서 직접통치 지역이었다. 「朝鮮傳」 서두에 조선이 명나라에 복속되어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청나라 군대에 항거하였다고 하였지만 쇠퇴기의 明朝 역시 對清견제를 위해 조선을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이렇게 明과 淸의 조선활용은 청의 중국지배가 성립된 후 일단락되었다. 일본 견제를 위한 外藩으로의 조선인식은 19세기 후반이지만 1650년 조선이 일본과 通事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을 때, 청은 그 저의를 의심하며 책망한 일도 있다. 서양견제를 위한 外藩의 역할도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物産과 문화인식은 明代 중국문화의 연속이지만 좀 더 확대되었다. 明代와 같은 火者(宦官)나 貢女, 貢馬 등에 관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인삼은 특히 월경자들의 潛採에서도 인기품목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문화인식에 대하여는 명대보다 더 회의적이고 무관심하였다. 다만 조선은 예의를 중시하고 언어, 문자가 세련되고 아담하다고 하였다.⁵⁾

이와 같이 명, 청 朝鮮傳의 기록은 대부분 정치 현황 및 문화인식인데 중국의 보호막으로 조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측 「朝鮮傳」에 반하여 한국의 대 중국인식은 正史의인 朝鮮史의 中國傳이라야 하는데 출판된 것이 없다. 官撰的인 『朝鮮王朝實錄』에서 중국관계 기록을 발췌하여 재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범위와 분량은 엄청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쏟아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사연구는 상호관계, 그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관계사는 반드시 양국

4) 『淸史稿』 「朝鮮傳」 康熙45年 10月條 : 『淸聖祖實錄』 康熙45年10月丁未條

5) 崔韶子, 위의 논문, 2001, pp.96-102 참조; 『淸史稿』, 「朝鮮傳」의 내용 중 19세기 이후는 논외로 하였다.

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II. 明清과 朝鮮 關係史 研究현황

明朝(1368-1643)는 漢族의 왕조이고 淸朝(1644-1911)는 滿洲族(女眞)의 왕조이다. 명이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통치하였다면, 청은 祖先의 땅인 滿洲와 중국본토를 주 대상지역으로 삼고 소위 周緣部라고 하는 蒙古, 新疆, 西藏을 외부세력과의 울타리로 통치하였다. 따라서 명청시대는 그 밖의 국가들과 정치 외교상으로는 冊封朝貢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경제 문화면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유교 한자문화를 공유하면서 각각 나름의 독자성도 유지하였다.

명청시대는 통치구조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청조는 대부분의 지배대상이 한족이기에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는 명조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조선과의 대외관계사의 주요 현안들은 정치 외교나 군사 국경문제 및 특히 사행 내왕과 관련된 문화교류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

명청과 조선관계사라고 하면 이 시기 중국의 시각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주체는 중국이다. 흔히 관계사연구에서 명청과 조선, 조선과 명청의 관계를 차별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차이를 두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구별해야 되며, 양국 간의 정치나 외교, 경제 등의 문제에서는 견해가 상반될 때도 있고 충돌우려도 많다. II장에서는 중국학자들의 논저가 중심이지만 한국 연구자들의 논저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어느 면으로는 先學들의 力作도 많은데 수교이후 논저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1992년 이후의 연구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참고를 위해 먼저 명청과 조선관계 개관서는 白新良 主編, 『中朝關係史: 明清時期(2002, 世界知識出版社)』는 明代中朝關係, 中朝經濟貿易往來, 壬辰戰爭, 朝鮮과 女眞, 中朝文化交流, 淸朝前期中朝宗藩關係의鞏固和加強, 淸朝前期中朝兩國의經濟文化交流로 章을 나누었다. 또 姜龍範 著의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는 주로 政治史的인 관점에서 明代의 양국관계를 太祖 재위시, 洪武-永樂年間, 洪熙-正德年間, 大明援朝御倭戰爭, 戰後 明·鮮關係로 정리하였다. 楊昭全 著, 『中朝關係史』 (吉林人民出版社, 2001)의 淸代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後金의 李朝농락, 丁卯之役과 丙子之役, 淸廷에서의 昭顯世子, 중국의 러시아 항격에 대한 조선의 협조, 穆克登의 邊境조사, 전통적 조공관계, 양국간의 무역왕래, 문사간의 진지한 감정 등으로 서술하였다. 이 개관서등이 중국에서 간행된 中朝關係史의 분류다.

수교이후 명청시기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누어보면 (1)明朝의 조선관계 사안들, (2)辨誣, (3)倭亂關係, (4)明清교체기의 양국관계, 17세기 후반 이후 대조선 관계, (5)邊界문제, (6)使行의 조선파견과 관련된 사안들, (7)문화(사상의 도입, 조선에서의 中華사상 등) 및 부수적인 사안 등이

다. 그런데 가장 집중된 연구 분야는 사행내왕과 문화교류이며, 정치관계로는 명청교체기의 조선과의 관계사, 倭亂, 邊界문제, 18세기 조선의 中華思想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연구 성과가 급증하였고, 명대의 연구에 비해 청대 중한관계사 연구가 중심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연구 성과의 과다를 떠나 사안별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明朝의 조선관계 사안으로는 明太祖 洪武年間の 明과 조선반도 정권과의 관계(許振興) 明建文시기 朝鮮과 來往(劉子敏 等), 14세기 전반 宣宗 때 조선의 選妃 문제(陳學霖), 15세기 중엽 토목의 역때 조선이 명조의 정보를 수집(荷見守義), 15세기 30년대 조선의 2次 建州 침입(1433, 37) (王兆蘭), 명과 조선을 둘러싼 여진문제정책과 교섭비교(1368-1449), 成化年間 明과 조선의 建州女眞 兩次征討(刁書仁), 『建州紀程圖記』의 여진인 形象(劉廣銘), 조선과 여진의 통치 簡論(關克笑), 胡安國의 華夷觀과 明 조선 對外政策(陳尙勝), 그리고 明代 후기에 관한 양국관계의 重要史實見證 李朝檔案 『朝鮮迎接天使都監都廳儀軌』 管窺(萬明) 등이 있다.⁶⁾ 대부분 15세기 중반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女眞문제도 꽤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14세기 후반 명의 대고려·조선정책, 명태조의 대고려·조선정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명조초기 조선과의 문물교류(전순동)와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 조선인식과 외교관계,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김경록) 및 명초의 文字獄과 조선 表箋문제, 明靖難의 役 시기의 조선에 대한 정책, 조선의 대응, 조선 초기 요동攻伐 논쟁, 永樂年間 明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宣德年間(1425-35) 明과 조선간의 여진문제(박원호) 등의 성과가 명의 관점에서 조선관계를 상세히 연구하였다. 이어서 女眞, 요동문제, 15세기 명의 東八站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유재춘)과 明代 요동정책과 대외관계, 명대 요동지배정책 연구(남의현), 명대의 요동도사와 東寧衛, 명대 역사·교류場으로서의 요동도사(서인범), 중국학계의 명대 만주 및 조선관계 인식, 중국학계의 명대 동북 및 조선관계 인식(노기식), 명청조공제도연구(李雲泉), 明代 公文制度和 行移體系(김경록)⁷⁾ 등의 성과가 있다. 중국학자들의 정치문제, 현안, 요동문제보다 한국학자들의 명의 대조선

6) 許振興, 「洪武朝明與朝鮮半島政權的關係」, 『東方文化』 32/1, 1994 ; 劉子敏·姜龍范, 「明代建文朝同李氏朝鮮的友好交往」, 『延邊大學學報』, 1999-2 ; 陳學霖, 「明宣宗朝鮮選妃與朝鮮政治」, 『史叢』 3, 1998 ; 荷見守義, 「土木之變時期李朝搜集明朝情報的活動」, 『明史學集刊』, 1999(01) ; 王兆蘭, 「十五世紀三十年代朝鮮兩次入侵建州」,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于曉光, 「明朝朝鮮圍繞女眞問題政策和交涉的比較(1368-1449)」, 『第5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2005 ; 刁書仁, 「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史學集刊』 1992-2 ; 劉廣銘, 「『建州紀程圖記』中的女眞人形象」, 『東疆學刊』, 2004(04) ; 關克笑, 「簡論與朝鮮女眞人的統治」, 『滿族研究』, 1999, 第2期 ; 陳尙勝, 「胡安國的華夷觀與明朝對外政策」, 『宋明思想與中國文明』, 學林出版社, 1995 ; 萬明, 「明代後期中朝關係的重要史實見證——李朝檔案『朝鮮迎接天使都監都廳儀軌』管窺」, 『學術月刊』, 2005(09)

7) 전순동, 「14세기 후반 명의 대고려·조선정책」, 『명청사연구』 5, 1996 ; _____, 「명태조의 대고려·조선정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 교수 정년 기념논총) 서해문

정책이나 현안들 요동문제가 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 (2) 辨誣 관계는 「朝鮮辨誣陳奏上使赴明前後-以李廷龜 <<庚申朝天錄>>爲中心」(張德信), 徐光啓 『亟遣使行監護朝鮮』 研究(李紅權)과 淸修 『明史』 與朝鮮之反映(孫衛國) 등 논고이다.⁸⁾

(3)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을 계기로 명군의 조선개입을 다룬 壬辰戰爭 관계는 1972년 李光濤의 『朝鮮 「壬辰倭禍」 研究』 라는 대작이 있다. 1992년 壬亂 400주년을 기하여 明의 시각에서 抗倭援朝戰爭(張習孔), 萬曆年間的 조선전쟁(樊樹志), 明朝와 朝鮮의 壬辰衛國戰爭(楊通方), 明 出兵참여와 평정(최효식), 萬曆壬辰의 役이 남긴 友誼佳話(韋旭昇), 明의 援朝抗日戰爭(王志遠), 援朝逐倭探微(孫文良), 전쟁과 화의 문제, 刑玠의 공헌(朱亞非), 陳隣과 李舜臣(孫衛國), 援朝抗倭役의 영향(張存武), 戰後 明朝의 쇠락(杜家驥), 전쟁과 明 後期 정치대세(萬明), 전쟁승리와 韓文化東漸(趙建民), 전쟁과 조선 주자학의 東漸(金洪培), 전쟁과 한국의 浙籍 萃入(柳斌), 전쟁시 援朝將士와 한국성씨(王秋華), 임난의 명장 權士敏의 포상문제(金甲周) 등의 논저가 있다.⁹⁾ 한편 한국에서의 명의 시각에서의 연구는 임진왜화와 동북하 세계의 대

집, 2005 ; ____, 「명조초기 조선과의 문물교류」, 『충북사학』 13, 2002 ; 김경록, 「려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 ____,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2012 ; 박원호, 「명초의 文字獄과 조선 表箋문제」,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 ____, 「明 “靖難”의 役 시기의 조선에 대한 정책」, 「明 “靖難”의 役에 대한 조선의 반응」, 「조선 초기 요동攻伐 논쟁」, 「永樂年間 明과 조선간의 女眞문제」, 앞의 책, 2002 ; 「宣德年間(1425-35) 明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아세아연구』 88, 1992 ; 柳在春, 「15세기 명의 東八站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 조선시대사학회, 2001 ; 남의현, 「明代 요동정책과 대외관계」, 『강원사학』 15·16합輯, 2001 ; ____, 「명대 요동지배정책 연구」, 강원대출판부, 2008 ; 서인범, 「명대의 요동도사와 東寧衛」, 『명청사연구』 23, 2005 ; ____, 「명대 역사 교류장으로서의 요동도사」,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노기식, 「중국학계의 명대 만주 및 조선관계 인식」, 『한국사론』 40, 국편, 2004 ; ____, 「중국학계의 명대 동북 및 조선관계 인식」,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만주학회, 2004 ; 김경록, 「明代 公文制度和 行移體系」, 『명청사연구』 26, 2006 ; 李雲泉, 「淸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 博士論文, 2003 이다.

- 8) 張德信, 「朝鮮辨誣陳奏上使赴明前後-以李廷龜 <<庚申朝天錄>>爲中心」 『大連大學學報』 28-7, 2007 ; 李紅權, 「徐光啓 『亟遣使行監護朝鮮』 研究」, 內蒙古師範大學碩士論文, 2006 ; 孫衛國, 「淸修 『明史』 與朝鮮之反映」, 『文史知識』, 2008-6.
- 9) 張習孔, 「四百年前的抗倭援朝戰爭」, 『文史知識』, 2000-4 ; 樊樹志, 「萬曆年間的朝鮮戰爭」, 『復旦學報』, 2003 ; 楊通方, 「明朝與朝鮮的壬辰衛國戰爭」, 『當代韓國』, 2001-3 ; 崔孝軾, 「明朝出兵參與平定壬辰倭亂緣起考」, 『韓國學論文集』 8, 2000 ; 韋旭昇, 「萬曆壬辰之役所留下的中韓友誼佳話」, 『歷史月刊』 59, 1992 ; 王志遠, 「明朝的援朝抗日戰爭」, 『歷史教學』, 1993-7 ; 孫文良, 「明代援朝逐倭探微」, 『中國古代史』, 1994 ; 朱亞非, 「明代援朝戰爭和議問題新探」, 『中國史研究』 66, 1995 ; ____, 「刑玠在明代援朝戰爭中的貢獻」, 『山東師範大學學報』, 2002-6 ; 孫衛國, 「陳隣與李舜臣」, 『韓國學論文集』 4, 1995 ; 張存武, 「萬曆援朝抗倭之役的影響」, 『歷史月刊』 59, 1992 ; 杜家驥, 「抗倭援朝與明王朝的衰落」, 『歷史月刊』 62, 1993 ; 萬明, 「萬曆援朝之役與明後期政治態勢」, 『中國史研究』, 2001-2 ; 趙建民, 「壬辰衛國戰爭的勝利與韓文化東漸」, 『第二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歷史卷), 2000 ; 金洪培, 「壬辰倭亂與朝鮮朱子學的東漸」, 『東疆學刊』, 2004 ; 柳斌, 「明萬曆援朝抗倭與韓國之浙籍華人」, 『浙江檔案』, 2003-7, 王秋華, 「明萬曆援朝將士與韓國姓氏」,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2 ; 金甲周, 「18世紀末嶺南士林集團意識之一斑~壬亂與將領權士敏的褒贈問題爲中心」, 『第二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歷史卷), 2000.

변국(황원구), 임진왜란 전후 명과 조선, 壬辰·丁酉倭禍와 明의 對朝鮮關係(최소자), 명대 援朝抗倭의 실상 및 그 역사 계기성(김한식), 임진왜란시기 명의 참여 동기와 그 실제(최효식), 임진왜란시기 명군참여의 사회문화적 영향,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정유재란시기 명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임진왜란시기 명의 내정간섭과 직할통치론, 임진왜란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한명기), 임진왜란 후 명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김경태), 『孤台日錄』에 나타난 明軍의 모습(한명기), 조선에 온 중국첩보원-임진왜란기 동아시아의 정보전과 조선(차혜원), 明 兵部尙書 石星의 東征주장과 洪純彦故事(조영록)¹⁰⁾ 등 한국측 연구는 명군의 왜란참여, 그 전후문제를 훨씬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조선측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논고가 많다.(Ⅲ장 참조) (4) 明清 교체기인 17세기 전반 후금의 건국, 두 번의 對조선전쟁, 그 전후의 조선과의 관계, 宗藩관계 확립, 使臣往來 등 정치사적 연구는 상당하다. 후금건립과 관련하여 누르하치 통치 시기 조선과의 관계(陳捷先, 刁書仁), 薩爾滸戰(1619)時 조선출병(白新良), 그 전후 후금과 조선과의 관계(刁書仁), 毛文龍의 문제(李善洪, 陳生璽), 光海君의 兩端外交(李善洪, 王燕傑), 遼東戰(1618)으로부터 명과 조선관계의 변화(姜守鵬), 天聰年間 조선과의 관계(陳捷先), 丁卯·丙子胡亂(虜亂, ~役)의 원인, 전략, 결과(李善洪, 徐凱, 魏志江, 宋慧娟等), 皇太極喪禮와 관련 君臣관계(李賢淑), 그 후 多爾袞의 조선정책(劉爲), 입관 전후 양국관계(晁中辰, 孫衛國, 謝肇華 等), 被擄婦女문제(楊海英, 全信子), 소현세자, 봉림대군 유폐문제(葉泉宏, 柳岳武)는 17세기 중반까지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다룬 논고들이다.¹¹⁾ 또 淸과의 宗藩

10) 黃元九, 「壬辰倭禍與東北亞世界的大變局」, 『歷史月刊』 59, 1992 ; 崔韶子, 「壬辰倭亂前後 明과 朝鮮」, 『사명당유정』, 지식산업사, 2000 ; ____, 「壬辰·丁酉倭禍와 明의 大朝鮮關係」, 위의 책, 이대출판부, 1997 ; 김한식 「明代 援朝抗倭의 실상 및 그 역사계기성」, 『황종동 교수 정년 기념논총』, 1994 ; 최효식 「명의 임진왜란 참여 동기와 그 실제」, 『백산학보』 53, 1999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참여의 사회문화적 영향」, 『軍史』 35, 국방군사연구소, 1997 ; ____,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 역사문제연구소, 2001 ; ____, 「정유재란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 국방군사연구소, 1999 ; ____, 「임진왜란 시기 명의 內政干涉과 직할통치론」,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 ____, 「임진왜란 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 『東洋學』 29,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9 ; 김경태, 「임진왜란 후 명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9 ; 한명기, 「『孤台日錄』에 나타난 明軍의 모습」, 『남명학』 15, 2010 ; 차혜원, 「조선에 온 중국첩보원-임진왜란기 동아시아의 정보전과 조선」,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 조영록, 「明 兵部尙書 石星의 東征주장과 洪純彦故事」, 위의 책, 지식산업사, 2002.

11) 陳捷先, 「淸太祖時期滿洲與朝鮮關係考:略論天聰年間後金與朝鮮關係」,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刁書仁, 「論後金建立前與朝鮮的關係」, 『社會科學戰線』 1期 長春, 2004 ; 白新良, 「薩爾滸戰與朝鮮出兵」, 『淸史研究』, 1997-3 ; 刁書仁, 「薩爾滸之戰前後後金與朝鮮的關係」, 『淸史研究』, 2001-4 ; 李善洪, 「試論毛文龍與朝鮮的關係」, 『史學集刊』, 1996-2 ; 陳生璽, 「毛文龍與皮島(上)」, 『韓國學報』 13, 1995 ; 李善洪, 「從十七世紀初朝鮮內外局勢看光海君的“兩端外交”」, 『松江學刊』, 1996-1 ; 王燕傑, 「朝鮮光海君時期對明朝和後金“兩端外交”: 政策探析」, 『山東大學碩士論文』 濟南, 2008 ; 姜守鵬, 「遼東戰爭時期明朝與朝鮮關係的變化」,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陳捷先, 「略論天聰年間後金與朝鮮的關係」,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관계에 대해(刁書仁, 宋慧娟), 사행왕래(劉爲) 등이 있다.¹²⁾ 반면 한국 측의 명칭 대립시기 만주, 몽골, 조선관계의 변화(노기식), 중국측에서 본 丁卯·丙子兩役(최소자), 天聰年間 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조선정책(송미령), 淸과 朝鮮, 明清교체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최소자), 入關前淸의 조선에 대한 三色人 쇄환요구(정병진)의 논고도 있다.¹³⁾ 17세기 후반이후 대조선관계 논고는 康熙시기 청조의 조선정책조정(王艷莉) 등과 三藩의 亂 때 조선과의 관계(樊延明), 臺灣 鄭氏와의 조선 문제(鄧孔昭), 만주인旗中の 조선인(徐凱, 王火) 에 관한 것이 있다. 한편 청조의 대조선 정책을 강희, 옹정, 건륭으로 나누어 의례적인 면과 실제적인 교역, 월경, 漂民, 疆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 중국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상호인식(최소자)도 있다.¹⁴⁾ 교통로, 표류문제는 사행관계에 첨가하기로 한다. 交易 역시 관련 邊界 등에 첨가한다.

(5) 邊界, 越境,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中朝邊界史(楊昭全)에 이어 명대 중국과 조선간의 邊界형성(王冬芳), 명 전기 조선족의 移居遼東문제(李婷), 원말, 명초 중국과 고려 조선의 邊界논쟁, 명 전기 東段邊界의 변화(刁書仁 등),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를 둘러싼 교섭(于曉光), 과

李善洪, 「後金朝鮮“丁卯之役”原因淺析」, 『吉林師範學院學報』2期, 1995 ; 徐凱, 「論“丁卯虜亂”與“丙子胡亂”兼評皇太極兩次用兵朝鮮的戰略」, 『韓國學論文集』3輯, 北京大韓國學研究中心, 1994 ; 魏志江, 「淸鮮“丁卯胡亂”與“丙子之役”考略」, 『韓國研究』7집, 北京, 2004 ; 宋慧娟·侯雅文, 「論後金與朝鮮“兄弟之盟”的性質」, 『長春師範學院學報』, 2003, 第3期 ; 李賢淑, 「從朝鮮對皇太極喪禮的態度看淸廷與朝鮮的關係」, 『滿族研究』49輯, 沈陽, 1997 ; 劉爲, 「試論攝政王多爾袞的朝鮮政策」, 『中國邊疆史地研究』3期, 2005 ; 魏志江, 「從三田渡之盟到淸兵入關時期的淸朝與朝鮮關係」, 『韓國研究』8, 2005 ; 晁中辰, 「滿淸入關前與李氏朝鮮的關係」, 『韓國學論文集』4輯, 1995 ; 孫衛國, 「試論入關前淸與朝鮮關係的演變歷程」, 『中國邊疆史地研究』2期, 2006 ; 謝肇華·何溥澄, 「淸入關前後對朝鮮政策的變化」, 『第7屆清史國際研討會論文集』, 遼寧人民出版社, 1996 ; 楊海英, 「朝鮮士大夫的“季文關情結”和淸初披擄婦女之命運」, 『清史論叢』, 2007 ; 仝信子, 「論淸第2次征朝鮮與朝鮮女性俘虜」, 『滿族研究』2002-3 ; ____ , 「丙子胡亂與朝鮮述多女」, 『韓國學論文集』12, 2004 ; 葉泉宏, 「洗館幽囚記」, 『韓國學報』6, 臺北 ; 柳岳武, 「朝鮮孝宗朝淸國朝鮮危機初探」, 『新鄉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5-4.

12) 刁書仁, 「論淸朝與朝鮮宗藩關係的形成與確立」, 『楊州大學學報』, 2003-1 ; 宋慧娟, 「淸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 吉林大出版社, 2007 ; 劉爲, 「淸代中朝宗藩關係的通使來往」, 『中國邊疆史地研究』2002-3 ; ____ , 「淸代中國使者往來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13) 노기식, 「명칭대립 시기 만주와 몽골 조선관계의 변화」, 『16-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모색과 변동』, 2004 ; 최소자, 「중국 측에서 본 丁卯·丙子兩役」, 위의 책, 이대출판부, 1997 ; 송미령, 「天聰年間(1627-36) 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조선정책」, 『中國史研究』54, 2008 ; 최소자, 「淸과 조선-명淸교체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이화사학연구』22, 1995 ; 정병진, 「入關前 淸의 조선에 대한 三色人 쇄환요구」, 『명칭사연구』37, 2012.

14) 王艷莉, 「論康熙時期淸朝對朝鮮政策的調整」(山東大 2001 석사논문) ; 陳文壽, 「朝淸倭情咨報系統與淸朝的政策」, 『韓國學論文集』11, 2003 ; 樊延明, 「論“三藩之亂”時期朝鮮與淸朝的關係」, 『韓國學論文集』8, 1999 ; 鄧孔昭, 「論淸政府與臺灣鄭氏集團的談判和援朝例問題」, 『臺灣研究集刊』55, 1997-1 ; 徐凱, 「滿洲人旗中高麗士大夫家族」,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 山東大出版社, 1999 ; 王火, 「淸代人旗中的高麗人-兼談高麗人姓名的民俗特徵」, 『民間文學論壇』, 1995-3 ; 崔韶子, 「18세기 전후 淸과 朝鮮-康熙시기(1662-1722):淸朝관계의 확립」, 「雍正시기(1723-35):淸朝관계의 안정」, 「乾隆시기(1736-1796):淸朝관계의 완성」, 『淸과 조선 근세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 송미령,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본 청조 통치」, 『명칭사연구』23, 2005.

명초 金華學派의 華夷論 형성과 邊境인식(李慶龍)이 있다.¹⁵⁾ 청대 邊務定界 문제는 中國의 東北工程과 더불어 한국과 논쟁의 쟁점에 서 있는 문제이다. 이미 1970년대 張存武의 穆克登巡邊과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논고가 있었지만 수교 이후 奉祭를 위한 長白山 답사(陶缶勉), 장백산 定界碑 始末(任熙俊), 장백산 동남지구에 移設문제(徐德源)의 논고가 있고, 2000년대에 들어가 康熙年間 穆克登의 查邊定界(刁書仁), 圖們江境界연구(陳慧), 또 양국 邊界문제의 이론思考, 歷史的留影(姜龍范) 등이 있다.¹⁶⁾ 清代의 封禁, 越境, 開發, 移民문제는 압록강유역 封禁과 開發(張傑), 17, 18世紀 중국과 조선을 둘러싼 越境(李花子), 越境朝民의 문제(趙興元), 양국 범월사례분석으로 본 조선인과 중국인의 범월특징(정혜중), 청정부의 조선 墾民의 토지정책 犯禁(孫春日) 등과 주로 漢族의 조선이민문제 등에 대한 연구(劉春蘭, 牟元珪, 孫衛國, 朴今海, 文鍾哲)도 눈에 띈다.¹⁷⁾ (6) 명청대 사행의 조선과견과 관련된 연구로 명초에는 환관이 많았지만 후일 文人들도 왕래하였고 조선 관료들과 詩文을 통해 풍류와 향응을 즐겼으며 『皇華集』이 그 결과이고 명대에 비해, 청의 근대이전까지는 阿克敦의 기록만이 중심이다. 반면 한국학자들의 논저도 많다. 명초 중국과 조선을 오갔던 使者 僕長壽, 僕斯 등에 관하여(桂栖鵬, 王梅堂, 陳尙勝), 永樂년간 黃儼의 奉使朝鮮事蹟(陳學霖), 土木之變 때 대조선 使行인 倪謙과 압록에서 申叔舟 만남과 『遼海編』(1450년)(孫衛國, 詹杭備, 王錫天), 1460년 사행 張寧의

15) 楊昭全,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1993 ; 王冬芳 「關於明代中朝邊界形成的研究」,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1997-3 ; 李婷, 「明前期朝鮮族移居遼東的原因途徑及開發貢獻」, 『鄂州大學學報』 2002-3 ; 刁書仁·卜照晶,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 2001-1 ; 刁書仁·崔文植, 「明前期中朝東段邊界的變化」, 『史學集刊』, 2000-2 ; 于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真問題交涉論析」, 『重慶三峽學院學報』2003-1 ; 李慶龍, 「明初 金華學派의 華夷論 형성과 邊境 인식」, 『명청사연구』 24, 2005.

16) 張存武,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期, 臺北, 1971 ; 陶缶勉, 「清代奉祭長白山與踏查長白山」, 『中國邊疆史地研究』北京, 1996-3 ; 任熙俊, 「長白山定界碑始末-兼考圖們江界問題」,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刁書仁, 「康熙年間穆克登查邊定界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2003-3 ; 徐德源, 「長白山東南地區石堆築設的真相」, 『中國邊疆史地研究』, 1996-2 ; ____, 「穆克登碑的性質及其南立地點與位移述考」,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1 ; 陳慧, 「清代中朝圖們江境界研究-穆克登碑文中心」, 延邊大博士論文, 2007 ; 姜龍范, 「清代中韓兩國邊界問題的理論思考」, 『延邊大學學報』1997-3 ; ____, 「歷史的留影 清代中韓兩國的邊疆政策」, 『延邊大學學報』, 1997-4.

17) 張傑, 「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4 ; 李花子, 「17-18世紀中朝圍繞朝鮮人越境問題的交涉」, 『韓國學論文集』 13, 2005 ; ____, 『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爲中心』, 亞洲出版社, 2006 ; 趙興元, 「清政府對越境朝民的政策」, 『北華大學學報』, 2003-3 ; 鄭惠仲, 「清代朝鮮人和 清國人 犯越의 특징~兩國犯越事例分析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2006 ; 孫春日, 「試清政府對犯禁朝鮮墾民的土地政策」, 『漢族研究』, 2002-3 ; 劉春蘭, 「明清交替期 漢族의 조선이민」,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1997 ; 牟元珪, 「明清時期中國移民朝鮮半島考」, 『韓國研究論叢』 4, 1998 ; 孫衛國, 「試論明遣民之東去朝鮮及其後裔世代對明朝之恩懷」, 『韓國學論文集』 10, 2003 ; 朴今海, 「17世紀朝鮮人流入東北及其對後金(清)社會的影響」, 『黑龍江民族出刊』, 2004-1 ; 文鍾哲, 「清代朝鮮族旗人文氏族譜淺析」, 『滿族研究』 47, 1997.

『庚辰皇華集』과 詩話(杜慧月, 董就雄), 董越의 朝鮮溥(1488年)(傳德華), 龔用卿의 『使朝鮮錄』(1537-8)(駱安生, 殷雲征), 과 明代 환관사행(孫衛國), 『皇華集』의 의의, 사행의 정치문화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청대阿克敦의 『奉使圖』, 『東遊集』(徐凱, 廉松心, 李永求, 姜婷)에 관한 연구가 있다.¹⁸⁾

한편 한국 측의 논저도 상당하다. 金翰奎는 『使朝鮮錄 연구』(2011)에서 前言되었던 明代使行 6人の 저술과 清代阿克敦의 사행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明代倪謙, 張寧, 董越, 龔用卿, 朱之蕃, 姜曰廣과阿克敦의 자료를 분석하여 조선에서의 견문, 여정의 풍광과 정치제도, 도성과 성읍, 풍속과 의식주 등을 서술하였다.倪謙의 『遼海錄』은(김한규, 成元慶)張寧의 『奉使錄』은(김한규), 『표해록』을 기본으로 15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을 검토한(박원호), 동월의 『조선부』(박원호, 조영록, 윤호식, 신태영), 공용진의 『사조신록』(김한규, 권인용)許國의 조선기행(陳尙勝), 주지변의 『奉使朝鮮考』(김한규, 신영두, 김홍대), 姜曰廣의 『輜軒紀事』(한명기), 『皇華集』(신태영, 이혜순, 안장리, 김기화), 『奉使圖』(진윤주, 황유복, 홍성구, 김한규)가 있고, 明使들의 출신, 행적, 접대문제 등이 있다.¹⁹⁾

- 18) 桂栖鵬·尙衍斌, 「高昌僕氏與明初中朝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16, 1995 ; ____, 「談明初中朝交往中的兩位使者倭長壽, 俛斯」, 『民族研究』, 1995-05 ; 王梅堂, 「明代出使朝鮮的維吾爾族使者-俛斯」, 『民族』, 1993 ; 陳尙勝, 「倭長壽與高麗, 朝鮮王朝的對明外交」, 『第2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歷史卷), 2000 ; 陳學霖, 「明永樂朝宦官探索-黃儼奉使朝鮮事蹟考釋」, 『世變, 郡體與個人-第1屆全國歷史學術討論會論文集』, 臺灣大歷史學系, 1996 ; 孫衛國, 「土木之變與倪謙使朝」,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99 ; 詹杭倫·杜慧月, 「『遼海編』與倪謙出使朝鮮考述」, 『北京化工大學學報』, 2007-1 ; 王錫天·曹喜武, 「鴨綠絕響申叔舟與倪謙」, 『조선대외국문화연구』20, 1997 ; 杜慧月·詹杭倫, 「張寧出使朝鮮與『庚辰皇華集』考述」,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 2008-1 ; 董就雄, 「試論明朝使臣張寧詩在中韓詩話中之地位」, 『詩話學』8:9, 2007 ; 傳德華·李春博, 「明洪治年間中朝禮儀外交以董越出使朝鮮爲中心的考察」, 『韓國研究論叢』, 2009-2 ; 駱安生, 「龔用卿『使朝鮮錄』的史料價值」, 『東南學術』(福建師大歷史系), 2002-3 ; 殷雲征, 「龔用卿出使朝鮮述考以龔用卿『使朝鮮錄』與朝鮮『丁酉皇華集』爲中心」, 『中國文學』, 2009 ; 王裕明, 「明代遣使朝鮮述論」, 『齊魯學刊』143, 1998 ; 孫衛國, 「明代宦官與中朝交往」, 『韓國文化』11, 1992 ; 曹婷, 「『皇華集』中朝文化交往的歷史見證」, 『韓國學論文集』12, 2004 ; 曹春茹, 「明代使臣在朝鮮的政治文化活動」, 『長江師範學院學報』2009-4 ; 高艷林, 「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5 ; 詹杭倫, 「中國明朝詔史與朝鮮李朝遠接史唱和詩研究」, 『韓國學論文集』13, 2005.徐凱, 「清史阿克敦『奉使圖』」, 『明清論叢』, 紫金城出版社, 2001 ; 廉松心, 「清代中朝文化交流的結晶『奉使圖』」,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3 ; 李永求, 「『奉使圖』與『東遊集』及其史料價值」, 『唐山師範學院學報』, 2010, 32-33.
- 19) 成元慶, 「明倪謙著朝鮮紀事的評譯」, 『진국대인문과학논총』24, 1992 ; 김한규, 「倪謙의 『遼海錄』과 朝鮮倡和外交」, 『使朝鮮錄研究』, 서강대출판부, 2011 ; ____, 「張寧의 『寶顏堂訂正方洲先生奉使錄』과 女眞 문제를 둘러싼 朝明 倡和外交」, 위의 책, 2011 ; 박원호, 「15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최부 『표해록』을 길잡이로 삼아」,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조영록, 「1488년 명과 조선: 『표해록』과 『조선부』의 상호인식」, 『동아시아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윤호진, 「『조선부』, 가치, 1994 ; 조영록, 「동월의 『조선부』에 대하여」,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교류와 문화』, 지식산업사, 2002 ; 신태영,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조선인식」, 『한문학보』10, 우리한문학회, 2004 ; 김한규, 「董越의 『朝鮮賦』와 迎詔禮 논쟁」, 위의 책, 2011 ; 金垠廷, 「庚午本 皇華集 편찬경위와 詩文酬倡의 의미」, 『한국한시연구』7, 1998 ;

(7) 문화교류는 조선으로의 유입적인 측면이 강한데 주자학 양명학 실학을 중심으로, 또 대청 관계의 불운한 단초를 극복하기 위한 崇明排淸에서 18세기 후반 북학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의 인식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전반적인 기타의 문화교류는 논외로 하겠고, 문학에서 허균이나 허난설헌의 평가나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비교, 『金瓶梅』, 『紅樓夢』의 유입은 흥미로웠다.

주자학, 양명학, 실학의 조선유입은 程朱理學의 조선전파와 영향(潘暢和, 陳尙勝, 李保林), 陽明學의 傳入(조영록), 중국과 조선의 實學과 실학사상의 특징, 영향, 문학관념, (步近智, 李秀東, 陳尙勝, 李巖, 夏淸瑕) 洪大容과 주희의 인식비교, 洪의 實學的 학문 結構(姜春華), 18세기 조선 "利用厚生"학설(王政堯)과 청대, 18세기 한국철학 중에 출현한 현대성 문제(박제가의 실학사상중심)(李哲承), 이덕무의 人本사상(徐東日), 김정희의 실학사상(朱七星) 등이 있다.²⁰⁾

김한규, 「明使 龔用卿의 『使朝鮮錄』과 朝明禮義관계」, 위의 책, 2011 ; 권인용, 「16세기 중국사신의 조선인식: 龔用卿의 使朝鮮錄을 중심으로」,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 陳尙勝, 「許國의 조선연행과 조선사대부의 우정」, 『동아시아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김한규, 「朝明 唱和詩의 寶庫: 明使 朱之蕃의 使行 唱和詩集 『奉使朝鮮稿』」, 위의 책, 2011 ;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사행과 文藝교류에 관한 일고」, 『한문학보』 16, 2007 ; 김홍대, 「朱之蕃의 丙午使行(1606)과 그의 서화연구」, 『온지논총』 11, 2007 ; 한명기, 「17세기 초 明使의 서울방문 연구」 ; 김한규, 「姜曰廣의 『輜軒紀事』와 明末의 요동」, 위의 책, 2011 ; 신태영,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 이혜순, 「『皇華集』 수록 明使臣의 사행시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시가연구』 10, 2001 ; 안장리, 「조선전기 『皇華集』 및 명사신의 조선관련서적 출판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2002 ; 김기화, 「『皇華集』의 편찬과 刊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9, 2008 ; 신태영, 「『皇華集』의 편찬의식연구」, 『한문학보』 5집, 우리한문학회, 2001 ; 안장리, 「『皇華集』 쇄퇴의 이유와 의미」, 『溯上고전연구』 15, 2002 ;

정은주, 「阿克敦 『奉使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46:247, 2005 ; 黃有福, 「奉使圖初探」, 『경원대아세아문화연구』 3, 1999 ; ____, 「봉사도成書始末」, 『아세아문화연구』 4, 2000 ; 홍성구, 「18세기 중국의 조선인식: 아극돈의 조선출사와 『東遊集』 『奉使圖』를 통해 본 조정관계 그리고 그 시대적 특징」,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김한규, 「阿克敦의 東遊集과 奉使圖의 서문과 발문」, 위의 책, 2011 ; 조영록, 「선조의 조선출신 明使考」, 위의 책, 지식산업사, 2002 ; ____, 「조선초기 조선출신의 明使考-成宗朝之對明外交和 明使鄭同」, 『韓國學報』 11, 1992 ; 鄭求先, 「鮮初 朝鮮出身 明 使臣의 行跡」, 『경주사학』 23, 2004 ; 이상배, 「조선전기 外國使臣집대와 明使의 遊觀 연구」, 『국사관논총』 104, 2004 ; 노경희, 「17세기 초 문관출신 明使接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 42, 2008 ;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평안도에서의 淸使집대와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43, 2002 ; 정옥자, 「18세기 시대상황과 燕行錢別詩宴(전해중박사팔순기념) 『동아시아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2.

20) 潘暢和·李洪淳, 「程朱理學東漸: 朝鮮與日本之程」, 『延邊大學學報』, 1992-1 ; 陳尙勝, 「理學在朝鮮의 傳統及其影響」, 『文史知識』, 1995-11 ; 李保林, 「朱學對朝鮮文化影響的基礎和發端」, 『學習論壇』, 1996-3 ; 曹永綠, 「陽明學與朝鮮의 兩班社會~陽明學傳入朝鮮及其辨斥理由」, 『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杭州大韓國研究所編), 1997 ; 步近智, 「明清之際實學高漸與李朝實學與盛의 共同特徵」, 『中國史研究』, 1992-1 ; 李秀東, 「朝鮮實學思想의 特点及其歷史地位」, 『東北亞論壇』, 1993 ; 陳尙勝, 「中朝實學思想의 交流及其影響」, 『文史知識』, 1995-12 ; 李岩, 『朝鮮李朝實學派文學觀念研究』, 北京, 北京大出版社, 1994 ; 夏淸瑕, 「論朝鮮實學의 思想淵源」, 『海南大學學報』(社會科學編), 1995 ; 姜春華, 「洪大容與朱熹의 認識論比較研究」, 『韓國研究論叢』 7, 2000 ; ____, 「洪大容與朱熹認識主體對象之異同比較」, 『韓國學論文集』 8, 2000 ; ____, 「洪大容의 實學의 學問結構」,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編), 1999 ; 王政

壬辰倭亂 이후 再造之恩으로 형성되어 崇明, 小華論, 나아가 조선중화사상, 大報壇, 萬東廟로 이어지며 진보적 北學論의 등장은 조선의 자구적 생존의 방법이라고도 하지만 유래가 없고 현재 돌이켜보면 수치스러운 일면이다. 그러나 16, 17세기 조선이 처한 국내외적인 환경과 정치 세력이 保國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후대를 위해 현재의 우리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는 清代 宗藩體制下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치무였다. 東亞의 禮義世界, 조선의 儒化情境構造(黃技連), 명칭 변혁기의 조선의 義理논쟁(晁中辰), 전통적 華夷국제질서와 중한국민 관계(陳潮), 17-19세기 조선왕조의 清朝觀 演變(陳尙勝), 華夷觀, 三步曲(尊王攘夷→華夷一也→施夷長技)(鄭錫元, 鄭成宏), 명칭시대 조선사회의 慕華崇明사상(劉春蘭), 華夷觀의 변천과 조선왕조의 흡수(苗威), 入關後 清과 조선의 관심(魏志江), 조선후기 小中華의식(王元周), 조선의 尊明反清의식(孫衛國), 北伐論에서 北學論(刁書仁), 大報壇, 萬東廟 설치와 壬辰戰爭時 참여 明將의 祠廟(于彭, 孫衛國) 등이 있다.²¹⁾ 조선의 중화사상 연구는 조선과 명칭 관계사 연구현황에서도 중요한 논제이므로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상에서 주로 명칭과 조선관계사의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간의 정치적인 종속관계를 크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직 구체적인 세분화된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르는 경제, 무역문제 역시 그러하다. 관계사연구의

堯, 「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說與清代中國」, 『清史研究』, 1999, 3期 ; 李哲承, 「18世紀韓國哲學中出現的現代性問題~以朴齊家的實學思想爲中心」, 『當代韓國』, 2002 ; 徐東日, 「朝鮮儒士李德焚的人本思想爭議」, 『東疆學刊』, 2002 ; 朱七星, 「清代考據實學與金正喜的實學思想」, 『延邊大學學報』, 1995-2 ; _____, 「清初經世實學與丁若鏞的實學思想」, 『朝鮮文化韓國文化與中國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1) 黃技連, 『東亞的禮義世界: 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 中國人民大出版社, 1994 ; _____, 『朝鮮的儒化情境構造: 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 中國人民大出版社, 1995 ; 晁中辰, 「明清鼎革之際朝鮮的義理之爭」, 『第2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역사권), 2000 ; 陳潮, 「傳統的華夷國際秩序與中韓宗藩關係」, 『韓國研究叢論』2, 1996 ; 陳尙勝, 「論17-19世紀朝鮮王朝的清朝觀演變」, 『韓國學報』16期, 臺北, 1999 ; 鄭錫元, 「華夷觀念在朝鮮」, 『中國學報』44, 2001 ; 鄭成宏·李敦球, 「華夷觀三步曲~從“尊王攘夷”到“華夷一也”再到“施夷長技”」,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99 ; 劉春蘭, 「試論明清之際朝鮮社會的慕華崇明思想對明移民的影響」,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99 ; 苗威, 「華夷觀的嬗變對朝鮮王朝吸收中國文化的影響」, 『東疆學刊』, 2002-3期 ; 魏志江, 「論清兵入關後對清與朝鮮的關係」, 『江海學刊』6期, 南京, 2002 ; 王元周, 「華夷觀與朝鮮後期的小中華意識」, 『韓國學論文集』12輯, 北京大 韓國學研究中心, 2004 ; 孫衛國, 「朝鮮王朝尊周攘夷及其對清關係」, 『韓國學報』17, 臺北, 2002 ; _____, 「從正朔看朝鮮王朝尊明反清的正統意識」, 『漢學研究』22卷1期, 臺北, 2004 ; _____, 「試論朝鮮王朝尊明反清的理論基礎」, 『史學月刊』, 2004-6 ; _____, 「對明旗號與小中華意識~朝鮮尊明問題研究(1637-1800)」,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刁書仁, 「從“北伐論”到“北學論”~試論李氏王朝對清朝態度的轉變」, 『中國邊疆史地研究』, 第4期, 北京, 2006 ; 于彭, 「大報壇與明清之際的中朝關係」,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的演變』(陳尙勝 等), 濟南, 山東大出版社, 1999 ; 孫衛國, 「朝鮮大報壇創設之本末及其象徵意義」, 『中國文化研究學報』11期, 香港, 2002 ; _____, 「略論朝鮮儒林之尊周思想~以華(陽)洞萬東廟爲中心」, 『韓國學論文集』2輯, 2002 ; _____, 「試論朝鮮王朝崇祀明朝東征將士之祠廟」, 『韓國學論文集』11, 2003. 이 주제와 관련된 한국 측 성과는 III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복잡성을 감안하면, 공동연구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Ⅲ. 朝鮮과 明清 關係史 研究현황

朝鮮(1393-1910)과 明(1368-1643), 淸(1644-1911) 시기 중 19세기 이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선은 510여년의 장기통치를 이루었으며, 倭亂과 胡亂을 겪으면서 대외관계사의 가장 큰 상대국은 중국의 두 왕조와 일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려움도 겪고 요동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알력도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선진문화를 받아 들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도 하였다.

조선과 명청관계사라고 하면 조선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그 주체는 한국이다. Ⅱ장에 비해 훨씬 많은 연구자들의 논저가 있고 조선의 대외관계로는 근대이전에 주된 상대국이었다. 대부분 한국사, 중국사연구자들이지만 일부 중국이나 일본연구자들의 성과도 있다.

김한규의 力作 『한중관계사』는 요동을 중심으로 논리를 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조선시대 중국과의 관계를 明과 女眞이 遼東을 분점한 시기의 한중관계, 滿洲가 요동과 중국을 통합한 시기의 한중관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세분화하여 조선과 명의 정치외교관계, 經濟文化교류로 나누어 구체화시켰다. 조선과 청의 관계도 유사하다. 거의 연구 성과만을 기초로 방대한 한중관계사를 꾸렸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문제점도 있다. 일반 독자를 위한 간단한 개설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Ⅲ장에서는 수교 이후 이 분야의 연구를 몇 개의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조선과 명 관계 사안, 冊封조공, 宗系辨誣 문제, (2)倭亂, (3)17세기 명청 교체기와 그 후 조선과 중국 관계와 조공, 사대, (4)疆界, 白頭山定界碑, 越境, 交易 등 문제, (5)燕行錄에 보이는 중국인식 및 문화체험 (6)전반적 문화교류 즉 유입에 관한 것이다.

(1)조선과 명 관계 사안으로는 조선 이성계세력과 명과의 관계(조민), 명초 조선의 요동攻伐 계획과 表箋문제,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명과의 관계)(박원호), 조선 초기 조명 二重受職 女眞人の 兩屬 문제, 조선 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조선 전기 두만강유역 여진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두만강 유역에 나타나는 두 개의 '조선'(한성주), 15세기 조선과 명의 관계(박원호), 15세기 조선과 명의 문물교류(전순동)가 있다.²²⁾

22) 조민, 「조선 이성계 세력과 명과의 관계」, 『동북아연구』(조선대)24, 2007 ; 박원호, 「명초 조선의 遼東攻伐 계획과 表箋문제」,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 _____,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명과

冊封朝貢관계와 관련하여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권선흥), 전통적 조공관계와 한중관계의 이해(유재택), 조선초기의 사대론(안정희), 조선 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김경록), 조선전기 사대교린문제와 국방정책(이장희),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 양상(김경록)이 있다.²³⁾

宗系辨誣 문제로는 조선전기 조명관계에서의 宗系문제(박성주), 중기 조선의 종계변무와 대명외교로서 1539년의 權檣의 朝天錄을 중심으로(권인용), 丁應泰의 조선 誣告고발을 통해 본 조명관계(허지은), 명말 조선 감호론에 대한 조선의 변무외교-李廷龜의 庚申(1620)사행과 '조선감호론'에 대한 조선의 인식(권인용),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노선분쟁(계승범)이 있다. 17, 18세기 한중관계와 인조반정~조선후기의 인조반정 변무(한명기), 明清史書의 조선 曲筆과 조선의 辨誣(이성규) 등이 있다.²⁴⁾

(2) 임진왜란 관계는 중국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명과 조선의 관계에서 연구는 70년대 명의 출병, 전쟁참여, 조선에 남긴 폐해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임진왜화와 명조(최소자), 朝明관계사 연구(유보진), 이 시기 대외관계(이지영), 파병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大明觀의 변화(계승범),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김용호), 임난 초기 명군 내원과 군량논의(장학근), 명군의 출병과 戰局의 추이(조원래), 정유재란 후 명·일 정전협상과 조명관계(홍성덕), 조명연합 함대의 형성과 노량해전(이민웅), 해전을 통해 본 조명일 3국의 전략술비교(이민웅), 조명연합군 평양, 벽제, 남원전에서의 기병작전의 전개양상(서인한), 왜란 중 조·일·명 군

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 한성주, 「조선초기 朝明 二重受職 女眞人の 兩屬문제」, 『조선시대사학보』 40, 2006 ; ____, 『조선전기 수직여진인연구』, 경인문화사, 2010 ; ____,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여진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고대사학회, 2010 ; ____, 「조선전기 두만강유역에 나타나는 두 개의 '조선」, 『명칭사연구』 37, 2012 ; 박원호, 「15세기 조선과 명의 관계」, 위의 책, 2002 ; 전순동, 「15세기 조선과 명의 문물교류」, 『한국사의 국제환경과 민족문화』, 경인문화사, 2003.

23) 책봉조공관계로는 권선흥, 「조선과 중국의 책봉조공관계」,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외대출판부, 1999 ; 유재택, 「전통적 조공관계와 한중관계의 이해」, 『東西史學』 창간호, 동서사학회, 1995 ; 안정희, 「조선 초기의 사대론」, 『역사교육』 64, 역사교육연구회, 1997 ;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서울대국사학과, 2000 ; 이장희, 「조선전기 사대교린문제와 국방정책」, 『軍史』 34,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칭사연구』 30, 2008 ; ____, 「조선시대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 60, 2009.

24) 박성주, 「조선전기 조명관계에서의 宗系문제」, 『경주사학』 22, 2003 ; 권인용, 「명중기 조선의 宗系辨誣와 對明외교~權檣의 『朝天錄』을 중심으로」 ; 허지은, 「丁應泰의 조선 誣告 사건을 통해 본 朝明관계」, 『史學研究』 76, 한국사학회, 2004 ; 권인용, 「명말 조선 監護論에 대한 조선의 辨誣외교~李廷龜의 庚申使行을 중심으로」, 『명칭사연구』 35, 2011 ; ____, 「명말 '조선감호론'에 대한 조선의 인식」, 『명칭사연구』 33, 2010 ; 계승범, 「조선감호론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노선 논쟁」, 『조선시대사학보』 14, 2005 ; 한명기, 「17, 18세기 한중관계와 인조반정~조선 후기의 인조반정 辨誣」,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 李成珪, 「明清史書의 朝鮮曲筆과 조선의 辨誣」, 『李公範教授停年論叢』, 1992.

대의 특징(김재근), 倭軍嚮道論에 대한 명·일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장학근), 왜란기 3국의 화약 병기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와 교류(박재광), 명군 留撤을 둘러싼 조선과 명(이계황)의 논고와 있다.

또 왜란시기 조선과 명의 문물교류(조재근), 조선 지배층의 對明의식(최소자). 왜란전후 조선과 명조학자(윤근수와 육광조, 유성룡과 명조국자감과의 대화, 이정구와 송응창)들과의 학술논변(이경용), 왜란과 명말의 화북사회(정병철), 왜란 후 조선의 對明清관계(김중수), 임난 후 조선의 대명인식의 변란~재조지은(유보진), 임진전쟁의 역사적 성격 재검토(방상현), 임란과 한중일의 외교관계(이민호), 임진왜란과 한중관계(한명기),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중국적 체제질서의 붕괴(김한규) 등의 연구도 있다.²⁵⁾ 1990년대 이전의 연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피해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수교이후의 성과는 주로 군사 활동과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3) 17세기 명청교체기와 그 후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와 조공사대문제이다. 後金の 성립 전후로부터 광해군의 이중외교, 仁祖 때 丁卯·丙子胡亂과 조선의 대중국관계, 소현세자의 심양생활, 羅禪정벌시 출병요청, 孝宗연간의 北伐論 그 후 崇禪排淸의 논리 발전 등 수많은 문제가 연달아 제기되었다. 그 후 정과 邊界, 국경확장, 월경, 교역 등 정치외교상 현안들이 잇달았다.

광해군과 인조년간에 관한 연구는 조선과 後金の 교섭(김중원), 조선특사의 후금방문과 명질서의 균열(계승범), 광해군의 대중국정책(한명기, 이효중), 조선의 요동정책(고운수), 1619년 薩爾滸戰後 조선의 후금관계(魏志江), 胡亂前 조선의 대책(김중원), 朝淸연합군의 椴島 토벌, 이

25) 최소자, 「壬辰倭禍와 明朝」, 『아시아문화』 8號, 한림대문화연구소, 1992 ; 劉寶全, 『壬辰倭亂期朝明關係史研究』, 民族出版社, 北京, 2005 ; 이지영,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 4, 1996 ; 계승범, 「과명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2006 ; 金用浩, 「중국의 對韓半島 軍事介入에 관한 역사적 고찰」, 『軍史』 27, 1993 ; 장학근, 「임난초기 明軍來援과 군량논의」,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 趙潑來, 「명군의 출병과 壬亂戰局의 추이」, 『한국사론』 22, 1992 ; 洪性德, 「丁酉再亂 이후 明日 정전협상과 조명관계」, 『全北史學』 18, 1995 ; 이민웅, 「조·명 연합합대의 형성과 노량해전 결과」, 『역사학보』 178, 2003 ; __,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3국의 전략전술비교」, 『軍史』 51, 2004 ; 徐仁漢, 「朝·明 연합군 騎兵작전의 전개양상」, 『軍史』 51, 2004 ; 金在瑾, 「임진왜란 중 韓·日·明 군사적 특징」, 『壬亂水軍活動연구논총』, 1993 ; 張學根, 「倭軍嚮道論에 대한 明·日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 박재광, 「임진왜란기 朝·明·日 三國의 무기체계와 교류~화약병기를 중심으로」, 『軍史』 51, 2004 ; 이계황, 「임란 후 明軍의 留撤을 둘러싼 조선과 明」, 『東西文化論叢』 2, 1997 ; 조재근, 「임진왜란시기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아세아문화연구』 (한국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6, 2002 ; 최소자, 「임진난시 조선지배층의 대명의식」, 위의 책, 1997 ; 이경용, 「임진왜란 전후 조선과 명조학자들의 학술논변」, 『명청사연구』 30, 2008 ; 정병철, 「명말의 화북사회와 조선의 왜란」, 『명청사연구』 10, 1999 ; 김중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명청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 劉寶全, 「임진난 후 조선 對明인식의 변화~再造之恩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11, 2006 ; 方相鉉, 「임진전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명조의 조선출병 성격을 중심으로」, 『박영석교수화감논총』, 1992 ; 李敏昊, 「임난과 한중일의 외교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김한규,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계승범, 「임진왜란과 누르하치」, 앞의 책, 2007.

여송과 모문룡(유승주, 한명기), 호란과 조선의 對明·淸관계의 변천~사대교린의 문제(최소자), 포로문제, 강화협상과 조선의 대응(한명기, 허태구), 당시 淸譯 鄭命壽(김남윤), 교체기 조선지배층의 대응(한명기), 胡亂과 동아시아(한명기), 인조시대(1623-42) 조선의 후금교섭을 정리한(石少穎)과 조선의 대청관계(17세기 전반-18세기말)(최소자), 명청교체와 한중관계(민경준) 등의 논저가 있다.²⁶⁾

昭顯世子(볼모로 간)에 관하여는 淸廷에서의 소현세자(최소자), 심양일기와 소현세자의 볼모살이(김남윤), 소현세자의 왕세자교육(김문식), 소현세자의 淸 체험과 문화수용(김경미), 소현세자의 죽음과 장례절차(나종민), 소현세자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장정란),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 “심양장계”(남은경), 入關前 淸朝의 심양관 통제양상(송미령), 그리고 섭정왕 多爾袞과 通婚한 義順公主(최소자) 등의 논고가 있다.²⁷⁾ 孝宗년간의 제기된 北伐論(金世英), 후룡강의 羅禪(러시아)정벌에의 참여와 申瀏의 北征錄(계승범), 그 사상적 기반의 春秋大義(趙鍾業), 宋子の 北伐論과 민족의식(洪淳稔)이 있다.

또 조선과 청과의 조공 사대를 정리한 조선왕조의 대청조공사절(권선홍), 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조공체제(남궁곤), 조공관계와 외교질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영옥), 사대문서의 생산과

26) 김종원, 「조선과 후금의 교섭」, 위의 책, 해안, 1999 ; 계승범, 「조선특사의 후금방문과 명질서의 균열」, 『한중관계2000년 공유와 동행의 역사』, 소나무, 2008 ; 한명기, 「광해조대 대중국관계~후금문제를 둘러싼 對明관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9, 1995 ; 李孝鍾, 「光海君代の 中國政策의 전개과정과 그 정치적 의미」, 서강대 석사논문, 1995 ; 고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東方學志』 123,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4 ; 魏志江, 「論薩爾滸之役後朝鮮與後金的關係」, 『韓國研究』 第6輯, 北京. 學苑出版社, 2002 ; 金鐘圓, 「丙子胡亂之前朝鮮的政策」,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99 ; ____, 「후금의 정치적 변화와 양국관계」, 위의 책, 1999 ; 柳承宙, 「朝·淸연합군의 蝦島·明軍討伐考」, 『史叢』 61, 2005 ; 한명기, 「이여송과 모문룡」, 『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 90, 2010 ; 최소자, 「胡亂과 조선의 對明·淸관계의 변천: 사대교린의 문제를 중심으로」, 위의 책, 이대출판사, 1997 ; 한명기, 「병자호란시기 조선인 포로문제에 대한 재론」, 『역사비평』 85, 2008 ; 허태구, 「병자호란 강화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52, 2010 ; 김남윤, 「병자호란 직후 1637-44, 조청관계에서 淸譯의 존재」, 『한국문화』 40,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7 ; 한명기, 「명청교체기 동북아질서와 조선지배층의 대응」,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이화자, 「청초조선국과入朝說」, 『全北史學』 30, 2007 ; 한명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石少穎, 「仁祖時代朝鮮對後金交涉史研究」, 山東大 박사논문, 2008 ; 최소자, 「조선의 대청관계」, 『한국사: 조선후기의 대외관계』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민경준, 「明清交替와 한중관계」, 『한중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2005.

27) 최소자, 「淸廷에서의 소현세자」, 위의 책, 1997 ; 김남윤, 「瀋陽日記와 昭顯世子の 볼모살이」, 『奎章閣』 29, 2006 ; 김문식, 「소현세자의 왕세자교육」, 『국학연구』 18, 2011 ; 김경미, 「소현세자의 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0, 이대한국문화연구원, 2006 ; 나종민, 「소현세자의 죽음과 장례절차」, 『동양학』 14,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2008 ; 장정란, 「소현세자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교회사연구』 9, 94 ; 남은경, 「병자호란과 그 후의 기록~심양장계」, 『한국문화연구』 14, 이대한국문화연구원, 2008 ; 송미령, 「入關前 淸朝의 심양관 통제 양상」, 『명칭사연구』 30, 2008 ; 최소자, 「清代韓中通婚考」, 위의 책, 1997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2005.

전달체계,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同文彙考』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외교사안연구, 대청관계인식과 외교체계,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김경록), 조선왕실 冊封詔命과 敎命의 형태 비교(장을연)의 논고가 있다.²⁸⁾

(4) 疆界, 白頭山定界碑, 越境, 交易이란 보다 현실적이고 양국 간의 주요현안이다. 중국과의 疆界문제가 중요사안으로 드러난 것은 요동이라는 완충지대가 淸의 祖先의 땅으로 중시되면서 직접 경계를 접하게 되고 나서부터였다. 상환인식이 양국이 같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조선의 사행이 물론 예정된 路程에 따라 움직이지만 청은 조선과의 경계획정이라는 18세기 초 백두산 정계비, 이에 따르는 두만강, 압록강의 경계의 정리를 통해 그 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조선 역시 별 이의가 없었다. 이 문제는 현재적 관심에서 더 예민한 부분이다. 조선의 북방 疆界, 백두산정계비 등 연구는 조선의 북방강계에 대하여(김득황), 후기의 북방영토의식(강석화), 후기 조청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검토~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고성훈), 백두산정계비와 접반사 朴權에 관한 고찰(이원명), 후기외교사~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이상태)와 한중국경사 연구, 조청국경문제연구(이화자),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배우성), 한국국경사 연구(양태진), 조선 초기 북방영토개척~백두산정계비 설치를 중심으로, 국경획정연구(방동인), 1712년의 조청 定界와 18세기 조선의 지방경영, 백두산정계비와 간도(강석화), 북방국경의 역사적 고찰~백두산정계비설치를 중심으로(이상태), 조선시대 선배들의 백두산담사기(이상태 등)가 있고 두만강 하류연안의 新舊 土宇碑와 북방삼각지대의 국경영토문제(양태진), 古珥島, 薪島를 둘러싼 조청국경係爭(金旻春)의 논고가 있다.

越境 문제 역시 17,18세기가 조선과 중국 간에 심각하였는데, 원인은 採蔘, 수렵, 약탈이 목적이었다. 18세기 전후 청과 조선(강희, 옹정, 건륭시기)(최소자), 조선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월경과 정착(김춘선), 청대 강북의 개척과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손춘일), 14-15세기 한중간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유재춘), 청의 중원 입관 전후 조선인의 월경문제를 둘러싼 조청교섭(李華), 17-18세기 범월사건을 통한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이욱)과 조선후기 유민의 북방변경

28) 金世英, 「조선 孝宗朝 北伐論 연구」, 『白山學報』 51, 1998 ; 계승범, 「나선정벌과 申瀏의 北征錄」, 『군사연구총서』 5, 2008 ; 趙鐘業, 「北伐과 春秋大義」, 『尤菴思想論叢』, 1992 ; 洪淳昶, 「宋子の 北伐論과 민족의식」, 위의 책, 1992 ; 權善弘, 「조선왕조의 對淸朝貢使節」, 『국제문제논총』 10, 부산외대국제문제연구소, 1999 ; 남궁곤, 「조선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의 조공체계」, 『한국정치학회보』 33, 1999 ; 이영옥, 「조선청조의 조공관계와 외교질서 『중국역대조공제도연구』의 비판적 분석」, 『인문과학연구』 29, 성신여대인문과학연구소, 2011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____, 「조선시대 대중국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 ____, 「『同文彙考』를 통한 조선후기 외교사안 연구 原編 ‘封典事案’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2, 2009 ; ____, 「조선의 대청관계인식과 외교체계~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7, 2008 ; ____,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2005 ; 장을연, 「淸代 조선왕실 冊封詔命과 조선敎命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유입과 그 실태(변주승), 변경적 측면에서 본 欄頭(김선민),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양태진), 명대 지식인의 조선인식과 양국의 防北정책(이경용) 등의 논저가 있다.²⁹⁾ 부분적으로 조선과 명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청과의 관계의 범월문제이다.

交易에 관한 연구는 명조가 초기 海禁을 실시하였고 官 무역의 형태로 조공무역체제에 관한 연구(金泰明), 조선초기의 대외무역정책(박평식), 사행의 밀무역(백옥경), 八包무역(민덕기), 宣祖년간의 對明인삼무역(박평식)이 있다. 이어서 16-17세기 조선의 대중국수출정책(이현숙), 17세기 대청교역(李弘斗), 동이3국무역의 전개(김종원), 왜란 호란시기 조선의 對中國 수입정책에 대한 연구(이현숙),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와 무역수세제 시행(김정미), 대청무역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유승주),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품목(이철성), 중국과의 무역사(유승주, 이철성), 앞의 책은 유·이의 공저로 17-19세기 조선사행 일람을 포함하고 있다. 또 후기 柵門무역의 변천(서혜원), 北關 개시(고승희), 18세기 후반 대청 모자무역의 실태와 私商層의 성장, 18-19세기

29) 疆界문제는 金得槐, 「조선의 北方 疆界에 대하여」, 『白山學報』 41, 93 ; 강석화, 「조선후기의 북방 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2005 ; 고성훈, 「조선후기 조청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검토~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회, 2003 ; 李源明, 「백두산정계비와 접반사 朴權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0, 백산학회, 2008 ; 이상태, 「조선후기 외교사: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실학사상연구』 33집, 2007 ; 이화자, 『한중국경사연구』, 해안, 2011 ; ____,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2008 ; 배우성,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2007 ; 양태진, 『한국국경사연구』, 法經出版社, 1992 ; 方東仁, 「조선초기의 북방영토개척-백두산정계비설치를 중심으로」, 『관동사학』 5, 6, 관동대역사교육과, 1994 ; 방동인, 『한국의 국경회정연구』, 일조각, 1997 ; 姜錫和, 「1712년의 조청 定界와 18세기 조선의 지방경영」, 『진단학보』 79, 1995 ; ____, 「백두산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96, 한국사학회, 1997 ; 李相泰, 「北方國境의 역사적 고찰~백두산정계비설치를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 2,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 ____,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1998 ; 양태진, 「두만강 하류 연안의 신구 土宇碑와 北方 삼각지대의 국경영토문제에 관한 논고」, 『박영석회갑논총』, 1992 ; 金錫春, 「古珣島 薪島를 圍繞한 조청국경係爭」, 『국사관논총』 32, 1992 ; 김춘선, 「압록, 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2002 ; 이강원,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 土們江 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1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도서문제~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칭사연구』 36, 2011 ; 권내현, 「17세기전반 대청 긴장고조와 평안도 방비」,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 김한영, 「조선후기 朝淸변경의 인구나 국경인식」, 『한국사론』 41, 국사편찬위원회, 2004 등이다.

犯越관계는, 최소자, 「18세기 전후 청과 조선~강희, 옹정, 건륭시기」, 위의 책, 2005의 해당 조항을 참고하면 청과 조선, 조선과 청 간의 범월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분석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 측의 체제 참고. 손춘일, 「清代 江北의 개척과 韓人에 대한 토지정책」, 『청계사학』 13, 정신문화연구원청계사학회, 1997 ; 유재춘, 「중·근세 한중간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14세기~15세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 李華, 「청의 중원입관전후 조선인의 월경문제를 둘러싼 조청교섭」, 『한국학보』 112, 2003 ; 이욱, 「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한국사학보』 20, 2005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의 북방변경유입과 그 실태」,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 김선민, 「欄頭-청·조선 조공관계의 변경적 측면」, 『대구사학』 96, 2009 ; 양태진,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예나루, 2007 ; 이경용, 「명대 지식인의 조선인식과 양국의 防北정책」, 『명칭사연구』 25, 2005.

대청무역 ~모자, 인삼무역을 둘러싼 譯商간의 경쟁(이철성),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평안도의 대청사행지원과 무역수세(권내현), 북학론자들의 대외무역관(이태명), 한중교역의 허와 실(이태진)등의 연구가 있다.³⁰⁾ 그 밖의 교통로의 문제는 연행관계에서 다루기로 한다.

(5) 燕行使行 및 그 일행의 연행록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중국 체험을 통한 당시 상황을 전하는 관계사 연구의 중요 사료다. 조선의 대중국관계기록이 아직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 종류가 거의 600여 종으로 문학에서뿐 아니라 역사나 관련분야에서 연구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한중수교이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연구자들의 주요연구 대상분야라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명청 시대의 조선관계 사행기록이 아닌 조선의 명청 관계 연행록연구는 저자 중국학자들에 의하여 90여종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① 먼저 한국연구자들의 성과를 사안별로, 문화전반에 걸친 연구, 연행관련 논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임기중 교수는 연행록연구, 연행록과 한국학연구, 연행록 해제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행록 수집, 정리 및 연구의 대표주자이다. 또 18세기 연행록(김창업,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등)을 통해 당시 중국사회의 내면을 들여다 본 논저(최소자, 정혜중, 송미령)가 있고, 夫馬進의 『연행사와 통신사』와 국문학적 시각에서 김현미의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도 있다. 근래 연행록을 기초로 하는 중국과 한국 관계사 연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명대를 대상으로 朝鮮전기 연행록 사료의 가치와 그 활용(서인범)은 명대적 조천록 등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연행록 연구를 위한 제언(최소자)은 연행록관계 학회에서 대폭 수정 정리가 필요하다.³¹⁾

30) 金泰明, 「조공무역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4-1, 한국전통상학회, 2001 ; 박평식, 「조선초기의 대외무역정책」, 『한국사연구』 125, 한국사연구회, 2004 ; 백옥경, 「조선전기의 사행밀무역연구~赴京使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6 ; 민덕기, 「八包무역으로 보는 사대교린 사행외교의 특징」, 『日本學』 28집, 2009 ; 박평식, 「선조조의 대명 인삼무역과 인삼상인」, 『역사교육』 108, 역사교육연구회, 2008 ; 이현숙, 「16-17세기 조선의 대중국 수출정책에 관한 연구」, 『홍익사학』 6, 1996 ; 李弘斗, 「17세기 對淸무역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 김종원, 「동아3국무역의 전개과정」, 위의 책, 1999 ; 이현숙, 「왜란 호란시기 조선의 對中國수입정책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68, 2004 ; 김정미,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와 무역收稅制의 시행」, 『한국사론』 36, 1996 ; 柳承宙, 「조선후기 對淸무역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아세아연구』 37-2,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94 ;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품목」, 『한국실학연구』 26, 한국실학학회, 2010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徐惠源, 「조선후기 柵門무역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사학』 6, 홍대사학회, 1996 ; 고승희, 「조선후기 북관개시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 1997 ; 李哲成, 「18세기 후반 조선의 對淸무역 실태와 私商層의 성장~모자무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4, 1996 ; ____, 「18,19세기 조선의 대청무역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모자인삼무역을 둘러싼 譯商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1997 ; 권내현,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평안도의 對淸使行지원과 무역收稅」, 『史叢』 56, 2003 ; 李泰明, 「조선후기 북학론자들의 대외무역관에 관한 연구」, 『韓國傳統商學研究』 15-1, 2001 ; 이태진, 「전근대 한중교역사의 허와 실」, 『진단학보』 78, 1994.

조선초기 權近의 명조에의 사행과 관련하여 『奉使錄』 연구, 權近의 사행시, 應製詩와 對明外交(崔康賢, 朱慶烈, 朴天圭)연구가 있다. 그리고는 1488년 崔薄의 漂海錄 관계 논저인데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의 연구주제일 것이다. 표해록 연구(최래옥), 표해기(허문섭), 최부 표해록(최기홍 역), 저자 최부 연구(김기주), 표해록(서인범·주성지 역, 박원호 역주) 등에 이어 표해록 연구(연구와 번역의 회고, 서지학적 연구, 역사학적 연구, 연구기행 등 박원호) 등 저서와 논고가 있다. 또 표해록을 통한 한중항로(주성지), 명대의 운하길 답사(서인범)와 답사로 異國紀行(장덕순), 사립과 관료의 중국체험(서인석), 표해록이 묘사한 15세기 후반기의 중국, 唐土行程記와 비교(조영록), 조선인이 본 弘治中興의 兆朕(박원호), 조선관인의 눈에 보인 江南 소주, 항주, 강북과 요동(서인범, 박명숙, 김재선) 반세기 이후 策彦의 入明記(1539, 47)와 비교(홍성구), 표류민 송환절차와 정보 전달(박원호), 표해록 撰進에 따르는 수난과 戊午被禍(1498) 등 30여 편 가까운 논저가 있다.³²⁾ 17세기 전반까지는 蘇世讓(1533)의 赴京日記 관련 使行(권인용), 許筭(1574)의 사행과 양명학 變斥(김동진), 李晔光의 使行問答錄(엄경흠), 1636년 金堉의 朝京日錄(이영춘), 조정일록과 조천록(김영숙), 李延龜의 詩文을 통한 明代 교류(양우뢰), 柳夢寅의 1609년 연행체험과 중국인식(이승수), 1637년 瀋陽日乘을 통한 金宗一(소현세자 書筵官)의 청나라 인식(한명기) 등이 있다. 후반기에 西溪 朴世堂 연행록(1669)의 사행서신, 赴

31)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 ____, 「연행록과 한국학연구」, 『한국문화연구』 24, 2001 ; ____, 『국학고전 연행록 해제』,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3 ; 최소자·정혜중·송미령 엮음,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해안, 2007 ; 夫馬進,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 서인범, 「조선전기 연행록, 사료적 가치와 그 활용」, 『명칭사연구』 30, 2008 ; 최소자, 「연행록연구를 위한 제언」, 『명칭사연구』 30, 2008.

32) 허문섭·표해기, 『기행문집』, 해누리, 1994 ; 최기홍 역, 『최부 표해록』, 교양사, 1997 ; 김기주, 「표해록의 저자 최부 연구」, 『진남사학』 19, 2002 ; 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역주』 (연구와 번역 회고, 서지학적 연구, 역사학적 연구, 연구 기행 등), 고대출판부, 2006 ; ____, 『표해록연구』, 고대출판부, 2005 ; 주성지, 「표해록을 통한 한중항로 분석」, 『동국사학』 37, 2002 ;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항주에서 북경 2500k: 최부의 표해록답사기」, 한길사, 2012.

張德順, 「異國紀行의 錦南 崔薄 漂海錄」, 『한국수필문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립과 관료의 중국체험」, 『한국문화연구』 10, 이대한국문화연구원, 2006 ; 曹永祿, 「崔薄漂海錄所描寫의十五世紀下判期中國-朝鮮士人官僚之批判性觀察」, 『明史論文集』 第6屆, 明史國際學術討論會, 1997 ; ____, 「근세동아중국의 전통사회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최부의 표해록과 日譯 唐土行程記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4, 1998 ; 박원호, 「조선인이 본 明弘治中興의 兆朕-弘治元年(1488)의 최부 표해록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16집, 2005 ; 박명숙, 「최부 표해록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2011 ; 서인범, 「조선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집 (조영록교수정년기념논총), 2002 ; ____, 「최부 『표해록』 연구~최부가 묘사한 중국의 江北과 요동」, 『국사관논총』 102, 국사편찬위원회, 2003 ; 洪性鳩, 「두 외국인의 눈에 비친 15, 16세기의 중국~최부의 표해록과 策彦의 入明記의 비교」, 『명칭사연구』 24, 2005 ; 박원호, 「明代 조선 표류민의 송환절차와 정보전달~최부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명칭사연구』 24, 2005 ; 楊萬鼎, 「錦南 崔薄 漂海錄 撰進에 따른 수난과 戊午被禍」, 『전라문화연구』 8·9합輯, 1997 등이다.

燕時(김중수), 그 후 姜瑋의 연행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교류(주승택), 西堂 李德壽(1735-6)의 對淸觀(이승수), 숙종 말 영조 초 양국의 사행기록으로 상호인식(조성을) 등 논고가 있다. 全昌業의 노가재연행록을 대상으로 노가재 연행일기(김태준), 청국수도 북경 견문(정혜중), 상상 속의 중국(송미령) 등이 있다.³³⁾

北學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夷인 滿洲라도 배척만 할 수 없고 그들의 장점은 수용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18세기 후반의 대표적 연행기록은 洪大容으로부터 朴趾源까지 이어진다. 1765년 연행한 洪大容에 관하여는 북경여행기 『乙丙燕行錄』(김태준), 湛軒 洪大容 연구(김도환)과 洪대용의 入燕과 淸國學人~蕪南尺牘을 중심으로(이원식), 조선지식인의 만남과 知己의 표상 乾淨衡筆談(박은정), 洪대용과 淸조~홍대용의 학자, 학문관(小川晴久), 王夫之와 洪대용의 華夷觀 비교(金仁圭), 洪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인식(정훈식), 洪대용과 서양인 淸주교 신부 劉松齡(Hallerstein)과 鮑友管(Gogeisl)의 상호인식 「劉鮑問答」의 분석(노용필), 洪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김문용)의 논저가 있다. 1778년 연행한 朴齊家에 대하여는 박제가의 청문물도 입(박광용),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 속 국제교류(안대회), 北學사상과 성리학(小倉雅紀), 李德懋의 중국체험과 학문관(崔博光)의 논고가 있다.

1780년 연행관 朴趾源은 드물게 熱河의 황제 여름별장을 방문하였는데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한국과 중국에서 눈에 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이는 乾隆年間の 중국인식(최소자), 박지원의 청 현실이해(김혈조), 연암의 열하일기 필담내용 고찰(李學堂), 열하일기의 제일장관, 청의 중화론과 청문화수용론(이현식), 건륭연간 박지원(1780)과 영국사신Macartney(1790)의 중국인식비교(최소자), 열하사절단의 18세기말 국제질서 체험~조공책봉관계(차혜원), 연암 形象一考(정

33) 권인용, 「명 중기 조선의 入明使行~蘇世讓의 『赴京日記』를 통하여」, 『명청사연구』 19, 2003 ; 金東珍, 「許筠의 對明使行과 陽明學 變斥」, 『文化史學』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 嚴慶欽, 「李暉光의 使行問答錄에 대한 고찰」, 『문화전통논집』 2, 慶星大學도문문화연구소, 1994 ; 李迎春, 「병자호란 전후 조선·명·청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 『조선시대사학보』 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 金英淑, 「明末의 중국사회와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金堉의 朝京日錄과 朝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1, 2009 ; 楊雨蕾, 「李延龜의 시문을 통해서 본 明代 中韓文化交流」, 『東方學志』 139,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7 ; 이승수, 「柳夢寅의 연행체험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36, 2006 ; 한명기, 「병자호란 직후 조선지식인의 청나라 이해~소현세자 書筵官 金宗一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 1,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 김중수, 『西溪 朴世堂의 연행록 연구』, 혜안, 2010 ; ____, 「서계 박세당의 사행서신과 赴燕詩」, 『민족문화』 37, 2011 ; 주승택, 「姜瑋의 연행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교류양상」, 『한국문화연구』 11, 2006 ; 이승수, 「西堂 李德壽의 對淸觀」, 『한국사상과 문화』 2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조성을, 「조선후기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숙종말 영조초 양국의 使行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2006 ; 김태준,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 연행일기」, 『국제한국학연구』 1,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 정혜중, 「조선선비의 청국수도 북경견문~김창업의 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3, 2005 ; ____, 「18세기 조선선비의 북경여행」,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송미령, 「상상 속의 중국, 18세기 조선지식인이 본 淸조의 통치」, 위의 책, 2005.

일남), 연암 문학 속의 伯夷 이미지 연구(이현식), 연암의 公平論 「答化亨五論原道書」(김호), 연암일과 북학사상연구(유봉학)의 논저가 있다. 더불어 18세기 후반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의 중국인식, 진보적 지식인(홍대용, 박제가, 박지원)의 중국방문과 교류,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중국인식(최소자), 18세기 후기 진보문인의 중국 외교사행(홍대용, 박제가, 박지원)(李敦球), 18세기 청문화가 조선에 미친 영향(임계순)의 논저가 있다. 1787년 연행한 俞彥鎬와 趙煥의 연행일기 고찰(김동석)도 들 수 있다.³⁴⁾

그 밖의 관련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海路, 노정, 공간탐색 등에 대하여, 17세기 전반 對明海路使行에 관한 행차분석(박현규), 중국 내 연행 노정고, 문명의 연행길에 대해(김태준), 조선후기 연행체험과 故土 東八站 인식, 연행로의 공간탐색-봉황성의 안시성설과 관련하여, 요양, 鞍山, 廣寧구간의 인문지리학적 검토(이승수), 연행의 山河와 연행사의 역사의식(소재영) 등이 있다. 또 사행과 관련 동아시아 상황 淸學 東傳과 더불어 사행시 詩話를 통한 唱和 등 한시교류에 대해,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錄(임형택), 淸學東傳(李鉉), 주로 명대의 聘禮와 사행시(엄경흠), 명 사신과의 唱和(이향배)와

34) 김태준·박성순 옮김, 『홍대용 북경여행기(乙丙燕行錄)』, 돌베개, 2001 ; 金都煥, 『湛軒 洪大容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李元植, 「洪大容의 入燕과 淸國學人~薊南尺牘을 중심으로」, 『박영석화갑논총』, 1992 ; 박은정, 「조정지식인의 만남과 知己의 표상 『乾淨衡筆談』」, 『동방학』 18,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2010 ; 小川晴久, 「洪大容과 淸朝~홍대용의 학자와 학문관」, 『국제한국학연구』 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 金仁圭, 「王夫之 華夷論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성격~조선후기 홍대용 華夷論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濫知論叢』 7, 2001 ;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인식』, 세종출판사, 2007 ; 노용필, 「홍대용과 서양인 천주교 신부의 상호인식 「劉鮑問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2006 ;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예문서원, 2005. 박광용, 「조정 박제가의 청문물 도입」, 『국제한국학연구』 1, 2003 ; 안대회, 「楚亭 朴齊家の 燕行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東方學志』 145,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9 ; 小倉雅紀, 「朴齊家の 北學思想과 性理學」, 『한국문화』 18,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6 ; 崔博光, 「李德懋의 중국체험과 학문관」, 『대동문화연구』 27, 1992. 최소자,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대외인식~『熱河日記』에서 본 乾隆年間的 중국」, 위의 책, 1997 ; 김철조, 「박지원의 청 현실이해」, 『국제한국학연구』 1, 2003 ; 李學堂, 「燕巖의 熱河日記 筆談內容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문화연구』 15, 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 이현식, 「열하일기의 제일장관, 청나라 중화론과 청나라 문화수용론」, 『동방학지』 144, 2008 ; 최소자, 「건륭말 동서양 지식인의 중국 인식비교」, 위의 책, 2005 ; 차혜원, 「열하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변동하는 조공책봉관계의 종언」, 『역사비평』 33, 2010 ; 정일남, 「『熱河日記』 燕巖形象一考」, 『동방한문학』 42, 2010 ;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 『동방학지』 123, 2004 ; 김호, 「연암 박지원의 公平論 「答化亨五論原道書」를 읽고」, 『규장각』 29, 2006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연구』, 일지사, 1995 ; 최소자, 「18세기 후반 燕行錄을 통해 본 조선지식인의 대중국인식」, 『국사관논총』 76, 1996 ; ____, 「조선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방문과 교류」, 『동아시아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 ____, 「18세기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칭사연구』 32, 2009 ; 李敦球, 「論18세기후기朝鮮진보文人의 中國外交使行」, 『世界歷史』, 1998(03), 金東錫, 「俞彥鎬의 燕行錄, 趙煥의 燕行日記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56, 2007 ; 任桂淳, 「試論18世紀淸文化對朝鮮的影響~以朝鮮出使淸朝使節問題爲中心」, 『淸史研究』 20期, 中國人民大學淸史研究所, 1995.

의미와 양상(김남이, 김덕수, 최윤정), 사행시(14-17세기)연구(엄경흠), 18세기 한중 詩의 교류(신익철, 이종목), 백이숙제 관련 한시(이성형) 등 논저도 있다.

그리고 사행원의 대청인식, 북학론의 의미, 북학사상, 道器不離論(김성근, 박성순, 김인규) 등과 조선 중기 연행사를 보내는 送序의 시선(안대회), 연행록 속의 중국여성(김현미), 유리창의 한국고문헌과 공연예술(박현규, 이홍식), 사행록의 劍舞俠의 특징(최성애), 幻術(임준철), 사행문학의 연회(윤광봉), 연행과정의 식생활(김혈조), 복식(임기중), 中國禮俗(하숙의), 동북부지역의 宇屋(이승연) 등 다양한 논저들이 있다.³⁵⁾

- 35)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對明 향로 사행에 관한 행차분석」,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학회, 2011 ; 김태준, 「중국내 연행노정고」, 『동양학』 3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4 ; ____,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푸른역사, 2005 ; 이승수, 「조선후기 연행체험과 故土인식~東八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7, 2004 ; ____, 「燕行路上的 공간탐색 鳳凰山城~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29권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____, 「연행로 중 요양~鞍山·廣寧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 蘇在英, 「燕行的 山河와 燕行使의 역사인식」, 『동양학』 35, 2004.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燕行錄」, 『한국실학연구』 20, 2010 ; 李鉉, 「清學 東傳에 대한 일검도~연행을 중심으로」, 『加羅文化』 9, 경남대, 1992 ; 嚴慶欽, 「聘禮와 사행시~明使臣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17, 2003 ; 李香培, 「조선전기 詩話에 나타난 명 사신과의 唱和」, 『詩話學』 8·9, 2007 ; 김남이, 「15세기 조선文士와 明 使臣의 詩文酬唱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16, 동양고전학회, 2002 ; 金德秀, 「조선文士와 明 使臣의 酬唱과 그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7, 2001 ; 최윤정, 「명청교체기 조선문사의 사행 체형」, 『한국고전연구』 11, 2005 ; 嚴慶欽, 「한국사행시연구 14-19세기를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논문, 1994 ; 柳豐淵, 「朝天詩의 자료적 고찰」, 『李興鍾博士華甲 기념사학논총』, 1997 ; 신익철, 「연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한중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 25, 한림대태동고전연구소, 2009 ; 이종목, 「17-18세기 중국에 전해진 조선의 漢詩」, 『한국문화』 45,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9 ; 이성형, 「연행록의 伯夷 叔齊 관련한시연구~임난수습기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1, 2010 ; 김윤희,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특징』, 고려대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0.
- 김성근, 「연행록과 조선사행원의 대청인식소고~연행록선집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1, 2006 ; 박성순, 「조선후기의 대청인식과 북학론의 의미」, 『史學志』 31, 단국대사학회, 1998 ; 金仁圭, 「북학파의 對外인식과 북학사상」, 『한국사상사학』 12, 1999 ; 안대회, 「조선후기 연행을 보는 3가지 시선~연행사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 2010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2005 ; 박현규, 「北京 유리창 화폭과 한국 고문헌」, 『동방한문학』 42, 2010 ;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18-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7, 2011 ; 최성애, 「18, 19세기 사행록에 표현된 劍舞俠의 특징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임준철, 「18세기 이후 연행록 幻術 기록의 형성배경과 특성~홍대용, 박지원, 金景善의 幻術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7, 2001 ; 윤광봉, 「사행문학에 나타난 연회양상~병인연행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3, 대전대인문과학연구소, 1997 ; 김혈조, 「연행과정의 식생활」, 『한국실학연구』 20, 2010 ; 임기중, 「朝天錄과 연행록의 복식」, 『한국복식』 10, 1992 ; 何淑宜, 「17, 18세기 조선 사절의 중국禮俗관찰」, 『국학연구』 16, 한국학진흥원, 2010 ; 이승연, 「연행록에 나타난 청대동북부지역~宇屋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 석사논문, 1999.
- 그 밖에도 관련지워 볼 수 있는 朴成桂, 「조선 초기 遣明사절에 대한 일고찰」, 『경주사학』 19, 동국대경주사학회, 2000 ; 金松姬, 「조선 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일연구~對明使臣과 明使臣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任先彬, 「조선 초기 外國사신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사학회』 5, 1998 ; 張熙興, 「조선시대 對明使臣의 접대와 호송군~의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5,

②중국에서 조선의 연행록 관계연구는 劉爲의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2002)와 楊雨蕾의 『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2005, 復旦大 박사논문)을 들 수 있다. 劉爲는 사신왕래의 제도적 건립, 종류와 임무, 인원구성, 路線, 行程 및 館舍, 각종 禮儀, 貢品禮物과 回賜加賞 經濟活動, 文化交流 등을 정리하였다. 반면 楊雨蕾는 16-19세기 초까지를 한정지어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연행록 등을 정리하였다.

한편 推展韓國的華行錄研究(張存武), 조선사신의 중국사행기록으로 朝天錄과 燕行錄(孫衛國), 17-19세기 중조관계사의 중요문헌으로 연행록, 연행록과 청대 중조문화교류를 논한 논고, 燕行錄初探(王政堯), 연행록을 통해 청과 조선관계 연구(陳尙勝) 등의 논저도 있다.³⁶⁾

조선 초 1387년 對明 사행이었던 權近의 奉使錄을 대상으로 朝天錄논평(張德信, 松浦章),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던 崔溥의 漂海錄을 대상으로 葛振家는 『漂海錄』 序文, 표해록初探, 표해록研究, 표해록評注, 표해록 학술가치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표해록의 言語學價值(汪如東), 최부가 지나간 台州의 路錢考辨(王金尤), 조선인의 눈으로 본 중국의 운하 風情(范金民), 최부 表해록과 明 弘治年間的 杭州, 蘇州 일대 景觀(金在先), 중국에서도 명대 연행록 관계는 최부의 表해록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는 1574년 許筭 『朝天記』의 문학 특성(韓梅), 1624년 洪翼漢의 「朝天航海錄」 初步研究(于澎), 조선사신의 建州社會, 소견과 後金건국 이전 조선과의 관계(刁書仁)는 河世國과 申忠一의 『建州見聞錄』를 중심으로 1595년 건주와 조선관계를 다룬 것이다.

17세기 전반 明이 亡하기 이전의 1620年 李廷龜의 庚申使明研究(王克科), 사행 李珥의 對明出使와 詩歌初探(陳尙勝), 1629-30年 조선 사신 李屹의 『雪汀先生朝天日記』는 山海關에 체류할 때 袁崇煥에 대한 논평(邱瑞中) 및 조선사절의 燕行錄의 사료적 가치(張德信)에 관한 논저가 있다.³⁷⁾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迎接都覽」, 『한국학보』, 30-4, 2004 ; ____,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____, 「조선시대 대중국외교문서의 접수별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심승구, 「조선시대 외국인 관광의 사례와 특성~사행관광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등이 있다.

36) 劉爲, 『清代中期使者往來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 楊雨蕾 『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 復旦大 박사논문, 2005 ; 張存武, 「推展韓國的華行錄研究」, 『박영석교수회갑년총』 1992 ; 孫衛國, 「朝天錄與燕行錄~朝鮮使臣의中國使行記錄」, 『中國典籍與文化』, 2002-1 ; 王政堯, 「17-19世紀中朝關係史的重要文獻」, 『中國中外關係史學會第6屆會員代表大會』, 2005 ; ____, 赫曉琳, 「簡論『燕行錄』與清代中朝文化交流」, 『韓國學論文集』 7, 1998 ; ____, 「燕行錄初探」, 『清史研究』 3期, 1997 ; 陳尙勝, 「朝鮮王朝(1392-1910)對華觀的演變」, 山東大出版社, 濟南, 1999.

37) 張德信·松浦章, 「一部研究中朝關係的重要史料~『朝天錄』評價之~權近『奉使錄』」, 『史學集刊』, 1999-3 ; 葛振家, 『漂海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 ____, 『崔溥漂海錄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5 ; ____, 『崔溥漂海錄評注』, 繕裝書局, 2002 ; ____, 「朝鮮漢文古籍漂海錄初探」, 『朝鮮學術論文集』 1, 1992 ; ____, 「漂海錄學術價值再探」, 『當代韓國』, 1994-3 ; 汪如東, 「朝鮮人崔溥『漂海錄』의言語學價值」, 『東疆學刊』, 2002(01) ; 王金尤, 「崔溥行經台州路錢考辨~兼台州東北部歷史地

18세기 후반 연행록 관계 논저는 洪大容 관계로 『의산문답』에 반영된 홍대용의 자연철학사상과 문화의식에 대하여(김병민), 『海東詩選』, 『日下題襟合集』을 통한 홍대용 연구(祁慶富, 權純姬), 『韓客巾衍集』과 清代文人 李調元, 潘庭筠의 문학비평, 北學派 文學과 淸詩人 王士禎(金柄珉)이 있다. 또 홍대용의 중국민속비교연구(서일권), 홍대용 문학작품에 반영된 민족의식(한위섭) 등이다. 李德懋의 燕行(1778)에서 18세기 盛淸社會 이해(王振忠), 『李의 文學연구』 詩歌結構의 美的 창조, 시인심리 함양론, 李의 詩歌와 중국문학관계, 『天眞』 이덕무의 시가 본질론(서동일) 등 문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朴齊家 역시 文人으로 높이 평가하였는데 『燕京雜絕』의 분석을 통해 淸 현실 인식(김철), 문화의식(김병민), 淸代 文壇에의 영향, 淸代文學에 대한 비평(金哲), 題畫詩연구, 어문관과 시론, 『초정 박제가 문학연구』(정일남) 등 논저다. 그러나 가장 큰 연구대상은 역시 朴趾源으로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對淸觀(宋載邵), 열하일기와 중국문화(吳紹鈺), 열하일기연구綜述(楊雨蕾), 열하일기로 들여다 본 中朝 사대부 往來중 사상(施曉燕), 實學家, 文學家 朴의 이상국 사상의 모순 탐색(全紅), 利用厚生 학설과 열하일기(王政堯), 걸출한 사상가, 소설가, 시인으로 평가(何鎮華), 朴의 卽事趣眞의 文學思想 및 歷史哲學內涵(姜日天), 박지원의 화론과 문학진실관, 박지원의 미학사상의 근대적 성격(리암), 소설 『虎叱』의 원형의식(김병민), 박지원 소설 가운데 하층인물에 대하여(리암), 열하일기와 맹강녀전설(류성운), 승덕유람기(王松濤), 朴의 인간과 자연관(趙興元), 박지원의 자연산수미관, 散文의 예술특색, 史記列傳과 朴의 九傳의 영향관계(李岩), 연암의 錢謙益에 대해 논한 연구(沈慶昊)가 있다.

1790년 사행간 柳得恭의 『溟陽錄』과 『燕台再遊錄』을 근거로 창조 士人과의 교류(王錫民), 渤海考(孫玉良), 柳가 본 乾嘉시대 中國社會(王振忠), 1790년 徐浩修의 燕行日記, 건륭말 朝政(呂英亨, 謝正光)과 『燕行錄全集』考訂(左江), 張傑의 저자미상의 연행록 고증이 있다. 그리고 북학과 작가들의 入燕문학, 조선 중세기 북학과 문학연구, 청대 문학과 북학과의 문학비평(김병민)도 있다. 한편 연행관련 논저로 연행록과 淸代戲劇文化(王政堯), 淸淸時期 北京의 朝鮮館(祁慶富), 북경의 유리창市와 朝鮮學人(李元淳), 燕行使와 琉璃廠(黃美子), 연행록에서

理探析, 『韓國學論文集』10, 2003 ; 范金民, 「朝鮮人眼中的中國運河風情~崔溥『漂海錄』爲中心」, 京都一大學院文學研究編, 第2回報告集(歷史編), 2004 ; 金在先, 「崔溥『漂海錄』與明代弘治年間之杭州地區景觀」, 『中國社會史學會第十屆年會』, 1994 ; ____, 「『漂海錄』中明弘治年間之蘇州景觀」, 『第九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 1994 ; 韓梅, 「許筠『朝天記』의文學特点」, 위의 책, 1999 ; 于澎, 「洪翼漢『朝天航海錄』初步研究」,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出版社, 1999 ; 刁書仁, 「朝鮮使臣所見的建州社會~兼論後金建國前與朝鮮的關係」, 『滿族研究』, 2001, 2期 ; 王克科, 「李廷龜庚申使明研究」, 陝西師大碩士論文, 2010 ; 陳尙勝, 「重陪鷺更何年~朝鮮李珣出使明朝詩歌初探」, 『山東大學學報』, 2002 - 6 ; 邱瑞中·崔昌源, 「朝鮮使臣李訖筆下的袁崇煥『燕行錄』의史料價値」, 『韓國民族文化』25, 2005 ; 張德信, 「明代朝鮮使節的燕行錄」, (松浦章), 『淸淸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樂學書局, 2002.

본 18세기 北方 市集(劉靜), 조선使團과 東八站의 雇事業(張傑), 燕行관계 사신의 출신 지역 분포조사(楊雨蕾), 연행사의 눈에 비친 關羽형상(徐東日, 祁慶富), 연행사신과 漢籍의 조선 東傳(楊雨蕾), 燕行錄과 中國學研究(劉勇強), 使行的 文化交流활동(劉爲)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³⁸⁾

38) 김병민, 「『의산문답』에 반영된 홍대용의 자연철학사상과 문화의식에 대하여」, 『조선학』, 1995 ; 權純姬·祁慶富, 「『海東詩選』初探~關於燕行學者洪大容研究史料的新發見」,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99 ; ____, 「『日下題襟合集』概說~關於燕行學者洪大容研究史料的新發見」, 위의 책, 1999 ; 金炳珉, 「韓客巾衍集與清代文人李調元潘庭筠的文學批評」, 『外國文學』, 2001 ; ____, 「朝鮮北學派文學與清代詩人王士禎」, 『文學評論』, 2002(04) ; 서일권, 「홍대용의 중조민속비교연구」, 『문학과 예술』, 1994(01) ; 한위섭, 「홍대용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민족의식」, 『연변대조선언어문학학』, 2005(03) ; 王振忠, 「朝鮮燕行使者所見十八世紀之盛清社會~以李德懋的『入燕記』爲例(哈佛燕京圖書館所藏)朝鮮資料研究」, 경인문화사, 2004-11 ; 徐東日, 『李德懋文學研究』, 牡丹江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3 ; ____, 「論李德懋對詩歌結構美的創造」, 『中南民族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04(04) ; ____, 「李德懋的詩人心理涵論」,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01) ; ____, 「李德懋詩歌與中國文學關係探析」, 『外國文學研究』, 2005(04) ; ____, 『『天真』이덕무의 시가본질』, 연변대조선언어문학과편, 2005-2 ; 金哲, 「試談朝鮮詩人朴齊家對清代現實的認識~『燕京雜絕』爲中心」, 『黃海學術論壇』, 2005(05), 김병민, 「『燕京雜絕』에 반영된 조정 박제가의 문화의식」, 『조선학연구논문집』, 1992 ; 김철, 「論說朴齊家對清代文學的批評」, 『延邊大學學報』, 1998 ; ____, 「中朝文學交流~楚亭文學作品對清代文壇的影響」, 『延邊大學學報』1999-1, 金炳珉, 「試朝鮮詩人朴齊家的清代文化觀以『燕京雜絕』分析爲中心」, 『東疆學刊』2003-3期, ____, 「朝鮮詩人朴齊家與清代文壇」, 『朝鮮~韓國의 歷史傳統與精神』, 延邊大學出版社 ; 정일남, 「조정 박제가의 題華詩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4(03) ; ____, 「어문관과 시론」, 『한문학보』, 2000(03) ; ____, 「조정박제가 문학연구」, 지식산업사, 2004 ;

宋載邵, 「燕巖朴趾源的對清朝觀~以『熱河日記』爲中心」, 『韓國學報』14, 1996 ; 吳紹鈞·金炳珉, 「『熱河日記』與中國文化」, 『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 社會科學版出版社, 1995 ; 楊雨蕾, 「韓國『熱河日記』研究綜術」, 『韓國研究』제5집, 2001 ; 鄭克晟, 「讀朴趾源『熱河日記』管窺中朝士大夫交往中的思想狀況」,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2006 ; 全紅, 「朝鮮實學家文學家朴趾源理想國思想矛盾探析」, 『東疆學刊』, 2005(04) ; 王政堯, 「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說與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 『清史研究』, 1999(03) ; 何鎮華, 「傑出的思想家小說家和詩人朴趾源」, 『韓國研究論叢』6輯, 1999 ; 姜日天, 「燕巖朴趾源“即事趣真”的文學思想及其歷史哲學內涵」, 『當代韓國』, 2001(02) ; 리암, 「박지원의 화론과 문학진실관」, 『문학과예술』, 1993(02) ; ____, 「박지원의 미학사상의 근대적 성격에 대하여」, 『조선학연구논문』, 1996 ; 金炳珉, 「論朴趾源小說『虎叱』의 原型의식~以老虎的形象分析爲中心」, 『東疆學刊』, 2002(01) ; 리암, 「박지원 소설 가운데의 하층인물들에 대하여」, 『조선학』, 1995 ; 류성운,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맹강녀전설」, 『조선학』, 2002-3 ; 王松濤, 「朝鮮學者朴趾源觀承德游記談」, 社會科學論壇(學術研究卷), 2007-7 ; 趙興元, 「18世紀朝鮮學者朴趾源的人與自然觀」, 『古代文明』, 2007 - 3 ; 리암, 「박지원의 자연산수미관시론」, 『조선학』, 1993 ; ____, 「簡論朴趾源景散文的藝術特色」, 『韓國學論文集』12, 2004 ; ____, 「史記列傳與朴趾源『九傳』之影響關係簡論」, 『韓國學論文集』4, 北京大韓國學研究中心, 1995 ; 沈慶昊, 「燕岩論錢謙益」, 『第2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文化卷), 2001 ;

王錫民, 「柳得恭與清朝士人的交游」, 『韓國學論文集』2집, 1993 ; 孫玉良, 「柳得恭與『渤海考』」,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1995 ; 王振忠, 「柳得恭筆下清乾嘉時代的中國社會~以哈佛燕京圖書館所藏抄本『冷齋詩集』爲中心」, 『中華文史論叢』, 2008 - 2 ; 呂英亭, 「徐浩修『燕行日記』述論」, 『第3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出版社, 1999 ; 謝正光, 「乾隆末年學風與朝政讀徐浩修『燕行日記』」, 『九州學林』창간호, 香港, 2003 ; 左江, 「『燕行錄全集』考訂」, 『域外漢籍研究集刊』4집, 北京, 2008 ; 張傑, 「著者未詳燕行錄考證」,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혜안,

연행사행 및 그 일행의 중국인식 및 문화체험은 한국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중국의 연구도 상당한데, 조선후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 심도 깊은 연구를 한 학자들도 상당수 있지만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 학자들의 연구 역시 많이 눈에 띈다. 그들은 대부분 연행록 연구를 기초로 18세기 후반기의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에 이르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문학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는데, 연행관계 연구가 중국과 한국의 관계사연구의 3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6) 전반적인 문화교류의 연구에 앞서 壬亂 이후 형성되는 조선의 대중국인식은 조선중화주의(사상)으로 대변되지만 壬亂 이후 再造之恩에서 비롯된 小中華, 大明義理, 북벌론과 조선중화, 중화계승주의, 탈중화에 이르는 조선의 대중국의식, 인식의 변화는 많은 연구자들의 논제가 있다.

소중화, 중화의식, 중화론, 중화사상, 華夷論, 대명의리, 대중국관 등에 관하여는 조선의 소중화론(조영록), 송시열의 승명배청론 재평가(정두희), 李恒老의 조선 중화의식(이미림),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17세기말~18세기초 중화의식의 형성과 정통론 강화,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북방고대사 인식의 강화(허태용), 중화론의 이면과 그 유산(계승범), 중화사상연구(정옥자), 大報壇과 순조대 明三皇 從享, 英祖의 대보단중수와 明三皇 享社(김호), 조선 측의 명나라~대보단을 통해 본 지배층의 중화인식,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계승범), 華夷論의 변용과 그 의의(김인규), 17세기 한중일 3국의 華夷論에 대한 비교연구(송시열, 왕부지, 山崎闇齋의 許衡論(우경섭),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관념의 굴절(최연식) 등 논제가 있다.³⁹⁾

2005 ; 김병민, 「조선 북학과 작가들의 入燕문학~활동과 그 성격에 대하여」, 『조선학연구』, 1992(04) ; ____, 『조선 중세기 북학과 문학연구』, 목원출판사, 1992 ; 王政堯, 「略論燕行錄與清代劇文化」,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學報』, 1997-3 ; 祁慶富, 「明清時期北京的朝鮮館」, 『아세아文化研究』, 8, 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 李元淳, 「燕京琉璃廠市與朝鮮學人」, 『第2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歷史卷), 2000 ; 黃美子, 「朝鮮燕行使與中國琉璃廠」, 『東疆學刊』, 2004(02) ; 劉靜, 「從燕行錄看18世紀中國北方市集」, 『北京社會科學』, 3, 2006 ; 張傑, 「清代朝鮮使團與東八站的雇車業」, 『燕行錄』研究之一, 『明清史研究』, 23, 2005 ; 楊雨蕾, 「清代朝鮮燕行使臣的地理分布~兼論朝鮮王朝政治地域分野」, 『韓國研究』, 8, 遼寧民族出版社, 2007 ; 徐東日, 「朝鮮朝燕行使者眼中的關羽形象」, 『東疆學刊』, 2008-2 ; 祁慶富, 「中韓文化交流的歷史見證~關於新發見的鏢橋全集」, 『浙江大學學報』, 2001, 1期 ; 楊雨蕾, 「燕行使臣與漢籍東傳朝鮮」, 『韓國研究』, 6輯, 2002 ; 劉勇強, 「燕行錄與中國學研究」, 『韓國文學研究』, 24, 2001 ; 劉爲, 「朝鮮赴清朝使團的文化交流活動」, 『中國邊疆史之研究』, 2001-3期.

39) 조영록, 「조선의 소중화관」, 위의 책, 2002 ; 鄭杜熙, 「송시열의 승명배청론 재평가」, 『역사비평』, 35, 1996 ; 이미림, 「華西 李恒老의 조선중화의식연구」, 『동양고전연구』, 35, 2009 ;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 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____, 「17세기말~18세기초 중화계승의식의 형성과 정통론 강화」, 『진단학보』, 103, 2007 ; ____,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역사와 담론』, 54, 호서사학회, 2009 ; ____, 「조선후기 중화계승의식의 전개와 북방고대사인식의 강화」, 고려대 박사논문, 2006 ; ____, 「英·正祖代 중화계승의식의 강화와 宋明역

그리고 조선후기 近畿南人の 對中國觀 연구~이익의 중국사이해 중심(강병수), 숙종, 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노대환), 조선후기 對明의리론의 변천(이태진), 정조대 대명의리론의 정리작업~尊周彙編을 중심으로(정옥자), 趙翼先生의 對外觀~의리론적 實利주의(안외순), 영조대 皇朝人에 대한 인식(노혜영), 정조 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배우성),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김문식), 대청의식과 문화수용논리(박수밀)과 조선후기 북학파의 對中觀 이해(진홍석), 지식인의 대외인식(김문식),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원유한),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대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관념의 형성(조성산), 탈중화적 교린체제의 독립성과 허구성(손승철), 지도를 통해 본 대중국인식의 변화(오상학),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인식과 文物도입론(김문식) 및 조선후기 기자인식에 나타난 유교문명과 보편성(이정일), 關羽 신앙연구(이유나)도 있다.⁴⁰⁾

朱子學, 陽明學, 實學, 西學과 관련된 분야는 관계사보다는 사상, 철학 등 학술사에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있을 것이다.

元明교체기 주자학의 동전과 조선 초의 향촌 교화(지부일), 청조학술과 조선성리학(정재훈), 霞谷 鄭齊斗의 양명학 수용과 경제사상(정재훈), 조선시대 양명학의 유입과 배척(신규수), 성호

사서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 계승범, 「조선후기 중화론의 이변과 그 유산~명칭관련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9, 2009 ; 정옥자, 『조선후기 중화사상연구』, 一志社, 1998 ; ____, 「大報壇과 순조대 明三皇 從享」, 『한국학보』 120, 2005 ; 김호, 「英祖의 대보단중수와 明三皇 享社」, 『한국문화』 32,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2003 ; 계승범, 「조선 속의 명나라 대보단을 통해서 본 조선지배층의 중화인식」, 『명칭사연구』 35, 2011 ; ____,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출판부, 2011 ; 金仁圭, 「조선후기 華夷論의 變容과 그 의의」, 『柳茂相華甲論集』, 1996 ; 우경섭, 「17세기 한중일 3국의 華夷論에 대한 비교연구~송시열, 왕부지, 山崎闇齋의 許衡論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2009 ;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관념의 굴절」, 『변화속의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41집1호, 한국정치학회, 2007.

- 40) 강병수, 「조선후기 近畿南人の 對中觀 연구~星湖 李瀛의 중국사이해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1999 ; 노대환, 「숙종, 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 2003 ; 李泰鎮, 「조선후기 對明의리론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鄭玉子, 「정조대의 對明義理論의 정리작업~『尊周彙編』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69, 1993 ; 안외순, 「浦渚趙翼先生의 對外觀考察~義理論적 實利주의를 중심으로」, 『동방학』,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1998 ; 노혜영, 「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7, 2009 ; 배우성,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94, 일지사, 1999 ;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 박수밀, 「조선후기 對淸의식과 문화수용논리」, 『한국한문학연구』 47, 2011 ; 진홍석, 「조선후기 북학파의 對中觀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 원유한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아세아문화연구』 4, 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對淸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중화관념의 형성」, 『한국사연구』 145, 2009 ; 손승철, 「조선후기 脫中華의 交隣體制의 독립성과 허구성」, 『국사관논총』 57, 1994 ;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대중국인식의 변화」, 『북방사논총』 5,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인식과 淸文物도입론」, 『규장각』 17, 1994 ; 이정일, 「조선후기 기자인식에 나타난 유교문명과 보편성」, 『한국사학보』 37, 고대사학회, 2009 ; 이유나, 「조선후기 關羽신앙연구」, 『동학연구』 20, 한국동학학회, 2006.

학파의 양명학과 서양과학기술(서종태), 성호학파의 양명학 서학접촉과 이해(차기진), 조선후기 양명좌파의 수용(강명관), 양명학에 대한 조선유학자들의 비판(박연수), 한국에서 이탁오연구(신용철), 이탁오의 사상과 우리유학(유명중), 양명학과 조선의 양반사회(조영록)가 있다.

청대문화와 조선실학(갈영진), 명칭사상의 수용과 조선후기 실학의 양상(금장태), 論韓中實學思潮之異同(박영진), 成海應의 경학관과 대중국인식(김문식)과 17, 18세기 서구문화의 유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조선후기 대청관계와 도입된 서학의 성격(최소자),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노대환), 중국과 조선의 천주교 수용비교(최소자), 천주교 수용의 학술사적 의미(손승철), 心情論을 중심으로 본 정약용과 마테오리치 사이의 관계(백민정) 등 논고가 있다.⁴¹⁾

도서수입 및 자료수용은 15세기 조선시대 서적구입 정책(신양선), 조선시대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김문식), 조선후기 서적의 유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강명관),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진재교), 연행록을 통해 본 康雍年間 중국서적 유입(부유섭), 출판문화교류를 통해 본 한중관계의 전통적 성격(김승일), 조선과 중국의 서적 중개상과 서적유통문화(이민희) 등 논고가 있다. 자료수용과 활용에 대하여는 조선 초기 『大明律』의 수용과정(조지만), 대명문화교류와 성리대전의 수용(지부일),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정재훈), 『大學衍義』, 『大學衍義補』 수용과 이해(지두환, 윤정분), 조선초기 經筵의 『자치통감강목』 강의(오항녕), 청대 학자들의 『孟子』 해석과 정약용의 『孟子要義』(함영대), 中國類書의 전개와 수용(김영선) 등 논고가 있다.

문학의 교류는 18세기 동아시아 문학교류(강동엽), 淸劉喜海와 조선문인들과의 교류(박현규), 明代 吳明濟 『朝鮮詩選』의 새로운 발견(祁慶富), 조선시선이 중한문화교류에 미친 영향(祁慶

41) 池富一, 「元明교체기 주자학의 동전과 조선 초의 향촌 교화」, 경희대 박사논문, 1993 ; 鄭在薰, 「清朝學術과 朝鮮性理學」, 『한국사상과 문화』 16, 2002 ; ____, 「霞谷 鄭齊斗의 陽明學 수용과 경제사상」, 『한국사론』 29, 1993 ; 申圭秀, 「조선시대 양명학의 유입과 배척에 관한 일고찰~성리학의 이단배척을 중심으로」, 『정신개벽』 14, 1995 ; 서종태, 「성호학파의 양명학과 서양과학기술」, 『한국사상사학』 9, 1997 ; 車基眞, 「星湖學派의 양명학 서학접촉과 이해」,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1998 ; 강명관, 「조선후기 양명좌파의 수용」, 『오늘의 동양사상』 16,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7 ; 朴連洙, 「양명학에 대한 조선유학자들의 비판」, 『육사인문과학논문집』 48, 1995 ; 신용철, 「한국에서 李卓吾(1527-1602)연구」, 『한국사상사학』 4, 5, 1993 ; 劉明鍾, 「이탁오의 사상과 우리유학」, 『한기주화갑논총』, 원광대출판국, 1993 ; 조영록, 「양명학과 조선의 양반사회」, 위의 책, 2002 ; 葛榮晉, 「清代文化와 朝鮮實學」, 『한국실학연구』, 2000 ; 금장태, 「명칭사상의 수용과 조선후기 실학의 양상」, 『종교학연구』 13, 서울대, 1994 ; 朴泳珍, 「論韓中實學思潮之異同」, 『한국사상과 문화』 53, 한국사상문화연구소, 2010 ; 김문식, 「成海應의 경학관과 대중국인식」, 『한국학보』 70, 일지사, 1993. 최소자, 「17, 18세기 서구문화의 유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위의 책, 1997 ; ____, 「조선후기 對淸관계와 도입된 서학의 성격」, 『梨大史苑』 33, 34, 2001 ; 노대환, 「조선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1997 ; 최소자, 「중국과 조선의 천주교 수용비교」, 위의 책, 1997 ; 손승철,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의 학술사적 의미」, 다산 정약용과 信西派, 攻西派를 중심으로, 『萊山學』 9, 2006 ; 백민정, 「心情論을 중심으로 본 정약용과 마테오리치 사이의 관계」, 『東方學志』 136,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6.

富), 淸初 中國人 편찬 조선 시선집(박현규), 17세기 초 조선시의 중국전파에 대한 조선문단의 이중적 태도(노경희), 조선후기 한문학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김대중), 지식인의 漢語인식과 만주어(배우성), 17, 18세기 중한문인간 문화교류의 상호작용현상(이학당) 등의 논고가 있다.⁴²⁾

회화와 판화, 사진술, 건축의 논고는 동기창과 조선후기 화단(한정희), 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인식과 수용태도(홍선표), 명청교체기 對明海路사행 기록화 연구(정은주), 인조·숙종연간의 對中國 회화교섭(진준현), 『林園經濟志』에 나타난 徐有渠의 중국회화 및 화론에 대한 관심(이성미), 영·정조 때 회화의 對中교섭(한정희), 청대 『皇輿全覽圖』 수록 조선도 연구(장상훈), 「皇清職貢圖」 제작경위와 조선유입(정은주), 조선후기 회화에 미친 중국영향, 18-19세기 정통과 화풍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회화교류(한정희), 조선후기 심양관도 화첩과 서양화법(박은순),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심양관 도첩(정은주), 중국 남송화가 18세기 조선화단에 미친 영향(이혜숙),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조선미), 鄭歎의 진경산수화와 명청대 산수관화(고연희), 연행사절의 서양화인식과 사진술 유입(정은주), 「奉使圖」의 건축에 관한 소고(이영) 등이 있다.

그 밖에 과학, 재해, 기타적인 몇 논고도 있다. 선조대 『紅効新書』의 보급과 陳法의 논의(노영구), 宋應星과 『天工開物』~한국 중국 공예과학사 연구를 위한 시론(신대현), 測雨器 발

42)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의 서적구입 정책」, 『실학사상연구』 12, 1999 ;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서적의 수입과 간행~「四書王經大全」을 중심으로」, 『규장각』 29, 2006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유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18, 19세기장서가의 출현~18, 19세기 경화세족문화의 한 단면」, 『민족문화사연구』 9, 1996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임진왜란 이후의 인적교류와 서적의 유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1, 2008 ; 부유섭, 「연행록을 통해 본 康雍年間 중국서적 유입에 대하여」, 『한문학회』 22, 우리한문학회, 2010 ; 金勝一, 「출판문화교류를 통해 본 한중관계의 전통적 성격에 대한 一考察」, 『출판학연구』 96, 한국출판학회, 1995 ; 이민희, 「조선과 중국의 서적 중개상과 서적유통문화연구」, 『동방학지』 141, 2008 ; 趙志晚, 「조선 초기 『大明律』의 수용과정」, 『법사학연구』 20, 한국법사학회, 1999 ; 지부일, 「조선초의 대명문화교류와 『性理大典』의 수용」, 『동양학연구』 3, 1997 ; 鄭在薰, 「조선전기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 1998 ; 지두환, 「조선전기 『大學衍義』 이해과정」, 『태동고전연구』 10, 1993 ; 윤정분, 「『大學衍義補』의 조선전래와 그 수용」, 『중국사연구』 14, 2001 ; 吳恒寧, 「조선초기 經筵의 『자치통감강목』 강의」, 한양대 석사논문, 『한국사상사학』 9, 1997 ; 함영대, 「청대학자들의 『孟子』 해석과 다산 정약용의 『孟子要義』」, 『茱山學』 16, 2010 ; 金永善, 「中國類書의 한국전래와 수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6, 2003 ; 姜東燁, 「18세기 동아시아 문학교류의 연구」, 『淵民學志』 4, 연민학회, 1996 ; 朴現圭, 「淸劉喜海와 조선문인들과의 교유고」, 『중국학보』 36, 1996 ; 祁慶富·權純姬, 「關於明代吳明濟『朝鮮詩選』의新發見」, 『當代韓國』, 1998-3 ; ____, 「朝鮮詩選이 중한문화교류에 미친 영향」, 『아세아문화연구』 6, 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 朴現圭, 「淸朝初年中國人編纂的朝鮮詩選集」, 『第2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어언문학권), 2001 ; 노경희, 「17세기 초 조선시의 중국전파에 대한 조선문단의 이중적 태도~文才과시의 육구와 詩文유출에 대한 경계」, 『진단학보』 105, 2008 ; 金大中, 「조선후기 한문학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대동문화연구』 60, 2007 ; 배우성, 「조선후기 지식인의 漢語인식과 滿洲語」,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 李學堂·牛林傑, 「17, 18세기 中·韓文人간 문화교류의 상호작용현상 일고찰」, 『한국실학』 19, 2010.

명과 중국과학사(박성래), 17, 18세기 한중과학기술교류연구(이수웅)와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소빙기 기후변동(김문기)이 있다. 새로운 작물의 유입과 중국 사회의 변화(원정식), 조선후기와 청대 여성의 화장문화 비교(옥명선), 16세기 한국과 중국의 여성문화(천화숙), 조선의 分財文記와 명대의 分家文書(문숙자),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매매문서 비교(전경목) 등이다.⁴³⁾

400여 년 간의 조선과 명청간의 관계사에서 정치적으로 朝貢이라는 평등치 못한 관계의 실체는 언제인가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되겠고, 倭亂과 胡亂의 兩次 전쟁도 매우 힘겨웠던 것은 사실이다. 또 청조와의 관계에서 국경을 맞닿게 되면서 전시대와 달리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관계사라는 점도 감안하여 조선의 대명청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IV. 앞으로의 과제

- 43) 韓正熙, 「동기창과 조선후기 화단」, 『미술사학연구』 193, 1992 ; 홍선표, 「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인식과 수용태도~對明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6, 한국미술연구소, 2008 ; 鄭恩主, 「명청교체기 對明海路 使行 記錄畫 研究」, 『명청사연구』 27, 2007 ; 陳準鉉, 「仁祖·肅宗年間の 對中國 繪畫교섭」, 『강좌미술사』 12, 1999 ; 李成美, 「『林園經濟志』에 나타난 徐有槩의 中國繪畫 및 畫論에 대한 관심~조선시대 후기회화사에 미친 중국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193, 1992 ; 한정희, 「英·正祖 代 회화의 對中교섭」, 『강좌미술사』 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6 ; 장상훈, 「清代 『皇輿全覽圖』 수록 조선도 연구」, 『한중관계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서강대동양사연구실, 2008 ; 정은주, 「『皇清職貢圖』 제작경위와 조선유입연구」, 『명청사연구』 35, 2011 ; 한정희, 「조선후기 회화에 미친 중국영향」, 『미술사학연구』 206, 1995 ; ____, 「18-19세기 정통과 화풍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회화교류」, 『미술사연구』 22, 2008 ; 朴銀順, 「조선후기 沈陽館圖 화첩과 서양화법」, 『미술자료』 58, 국립중앙미술관, 1997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심양관 도첩」, 『명청사연구』 25, 2006 ; 이혜숙, 「중국 남송화가 18세기 조선화단에 미친 영향」, 奎北大, 2001 ;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赴京使臣 持來本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 2002 ; 高連嬉, 「鄭獻의 眞景山水畫와 명청대 山水版畫」, 『미술사논단』 9, 한국미술연구소, 1999 ; 정은주, 「연행사절의 서양화 인식과 사진술 유입~북경 천주당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0, 2008 ; 李英, 「『奉使圖』의 건축에 관한 小考」, 『아세아문화연구』 4, 2000.
- 盧永九, 「宣祖代 『紅劾新書』의 보급과 陳法의 논의」, 『軍史』 34, 1998 ; 申大鉉, 「宋應星의 『天工開物』~한국 중국 공예과학사 연구를 위한 시론」, 『문화사학』 1, 한국문화사학회, 1994 ; 朴星來, 「測雨器 발명과 中國科學史」, 『外大史學』 7, 외국어대역사문화연구소, 1997 ; 이수웅, 陳久金, 남문현, 「17, 18세기 한중과학기술교류연구」, 『18세기연구』 3, 한국18세기학회, 2000.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2011 ; ____,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소빙기 기후변동」, 『역사와 경계』 77, 부산경남사학회, 2010.
- 원정식, 「새로운 작물의 유입과 중국사회의 변화~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31, 외대역사문화연구소, 1998 ; 옥명선, 박옥련, 「조선후기와 청대 여성의 화장문화 비교고찰」, 『문화전통논집』 2, 景星大韓國학연구소(부산), 2004 ; 천화숙, 「16세기 한국과 중국의 여성문화」, 『한국사 인식의 두 관점~여성의 역사, 문화의 역사』, 혜안, 2009 ; 文淑子, 「조선시대 分財文記와 明代의 分家文書~근세한국과 중국의 재산분할 관행 및 문서비교」, 『고문서 연구』 29, 한국고문서학회, 2006 ; 전경목,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매매문서 비교」,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II장과 III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이후 연구현황을 보았다. 양국의 관계사연구는 기대이상 많았고, 중국과 한국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14-18세기 말까지는 가장 양국 간의 관계가 긴밀했던 시기였다.

크게는 두 나라 사이의 (1)정치관계(冊封朝貢, 정치현안들), (2)임진전쟁관계, (3)명청교체기 전후 양국관계(호란과 그 후), (4)청의 중국지배 후 疆界, 國境 획정 문제, 관련하여 越境, 交易 등, (5)燕行使行 및 문화체험 인식, (6)小中華로부터 비롯되어 조선중화, 탈중화로 발전하는 이념의 문제 등이다. 요동을 완충지역으로 두었던 明代에 비해 接壤하게 된 清代의 국경획정문제는 두 나라의 주요정치현안으로 그 당시보다는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燕行使行 기록을 주축으로 하는 명청대 수많은 자료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倭亂 이후 再造之恩의 문제에서 야기된 조선지배층의 崇明排淸의 의식에서 비롯된 이념의 논쟁은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간략하게 양국의 연구를 대비적으로 보면 (1)한국에서는 책봉조공문제, 초기사대론, 명초양국 관계 확립 등을 연구한 것에 비해 중국측은 일반적인 명초 조선과의 관계 등이다. 15세기 중엽 전후 女眞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의 갈등, 挾攻, 교섭 등 요동문제를 연구하였다. 한국에서는 명초 攻伐문제로부터 二重受職女眞문제, 明의 요동정책연구, 遼東都使, 東入站 등등 논고와 『遼東史』가 있다.

(2)壬辰倭亂 관계는 한국 측은 명의 군사개입, 활동, 군량논의, 협상, 조명연합해전, 전략전술 비교, 3국의 무기체계, 명국留撤을 둘러싼 문제, 왜란 후 대명관계 인식의 변화, 중국적 질서의 변화, 역사적 성격, 전후 3국의 외교관계의 성과를 내었다. 반면 중국 측은 抗倭援朝戰爭의 400주년을 기념하여 명의 출병, 참여, 공헌, 남긴 友誼佳話, 후기 재정난, 조선으로의 文化동진, 전망 영향 등 자찬의 성과가 주이다.

(3)한국은 명청 교체기 전후 후금성립기 광해군의 이중외교, 1619년 전쟁 후 조선의 후금관계, 호란전 대책, 전후 포로 문제 지배층 대응, 조선의 대청관계, 소현세자관계의 다양한 연구가 있다. 반면 중국은 누르하치시기, 1619戰의 조선출병, 광해군의 양단외교, 그 후 명청과 조선관계, 전쟁의 원인 및 전략, 결과, 그 후 대조선정책, 전후 被虜(부녀자, 세자문제) 등이다.

(4)에서는 한국은 北伐論, 羅禪정벌에의 출병, 조공사대문제,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더불어 중시된 월경교역문제, 정계비를 둘러싼 朴權, 김지남의 역할, 18세기 청지리지도의 백두산수계, 정계비와 간도, 두만강, 기타 섬들의 문제, 조선후기 북방 영토인식, 국경인식에서 두만강, 토문강, 분계강 개념검토, 조청변경의 인구와 국경인식 등등이 있다. 월경문제는 14, 5세기 국경완충지대의 월경, 入關 後 조선인 월경, 함경도 평안도의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조공무역, 조선초 무역

체제, 밀무역, 17세기 조선과 한국인의 범월 특징, 후기 유민의 변경유입과 실패 등과 대청무역, 무역수세제, 무역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 柵門무역, 私商, 역상간 경쟁 등의 논저가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17세기 후반 청조의 조선정책조정, 三藩의 亂, 대만정벌 시 조선 문제, 만주8 旗의 조선인 등과, 중국 측 관점에서 청조의 확립에서 완성시기까지의 대조선정책(강희, 옹정, 건륭)을 구체적인 사안 등으로 정리하였고, 월경은 명대 조선족의 요동 移民, 17, 18세기 조선인 월경, 청정부의 犯禁 조선간민의 토지정책, 월경조선인 정책, 17세기 조선인 유입 동북과 사회적 영향, 청과 조선관계사의 월경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封祭長白山답사, 長白山定界碑, 장백산 동 남지구에 정계비 移設문제 등이 있다. 무역과 개시는 후금과 군사무역, 압록강 상의 변경무역, 성경장군 직할구에서 사행무역, 청과 조선의 쌍변무역, 조선使團의 무역제도, 貢賜와 무역, 中江, 會源邊市무역 등이 있다.

(5)燕行관계 한국의 연구는 그 자료만도 엄청나지만 연구 역시 대단하다. 明代에는 『漂海錄』, 청대에는 朴趾源의 『열하일기』가 연구의 중심이고, 관련된 분야도 다양하다. 그리고 조선에 온 明, 清代 사행의 奉使錄 등의 연구가 있다. 明代가 詩文을 중심으로 酬唱의 형식으로 『皇華集』으로 대표된다면 清代는 아극돈의 奉使錄이 있다. 이 분야는 별도의 논고로 발표함을 양해 바란다. 중국 측의 연구도 역사, 문학 분야에서 심도 깊은 논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대부분 조선 측 자료에 의해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분야는 양국 모두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좋은 결과가 기대되며, III 장의 해당조의 참조 바란다.

(6)胡亂 이후 발전하는 小中華 → 朝鮮中華 → 脫中華로의 조선 지배층의 이념논리의 변화는 대중국인식의 발전이라고 할지는 의문이다. 淸朝가 漢族이 아닌 중국지배자라는 인식과 그 지배 체제 안에 들어선 조선지식층의 갈등과 위기 극복의 자구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尊明崇慕의 인식하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대보단, 만동묘, 明三皇에 대한 從享, 中國史書의 편찬 등의 상황은 그 해석의 찬반을 떠나 후술하고 싶다. 구체적인 논고는 III의 해당조를 참조하기 바라며, 중국학자들의 논지도 많다.

양국관계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명대 요동문제에서 발전한 청대 양국간의 경계문제이고 백두산정계비 문제이다. 또 한국에서 壬辰戰爭 이후 확산된 再造之恩에서 비롯하여 小中華, 조선중화주의, 北學, 脫中華로 발전하는 조선지식인의 중화관이다. 이 주제는 조선 내의 문제일 뿐 중국과의 관계사 연구에서 쟁점으로 내세울 주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연행관계연구인데 대체로 한국 측 자료를 통해 조선지식인의 중국인식을 보여준다. 명청대를 통한 광범한 자료인 燕行錄은 특히 청대 17세기로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중국에 관한 다양한 면모, 만주족 지배하의 한인 지식층의 존재형태, 구체적 생활상을 포함하는 사회상, 지배층에 대한 의식 대처능력 등 생

동감 넘치는 역사자료인 것이다. 물론 중국 측의 奉使錄도 있지만 물량이나 내용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연행록은 사료로서 뿐 아니라 文學작품으로 양국관계사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수교이후 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양국 간의 현안으로 떠오른 백두산정계비의 문제는 중국에서는 1880년대 조청국경회담에서 비롯되는데 穆克登의 碑가 定界碑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연적 관습적 경계인 圖們江의 江源을 조사하여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審視碑에 불과하고 백두산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정계비로 보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90년대 후반 연구의 중심이 되었으며 목극동비의 이동 목적 석회, 토회의 임의축조를 통한 조중변계의 문제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청의 封禁정책은 조선에 대한 변강정책의 일환이고 조선유민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도 관계있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康熙年間の 疆界문제를 검토하면 1677년 장백산은 祖先發祥의 땅이므로 현지답사를 시키고 五嶽과 함께 제사지내고 동시에 등산로를 찾게 되었다. 그 후 1684년에도 致祭하고 조선경내에서 등산로를 찾게 하였으며 『大清統志』 찬수를 위해 이 일대를 답사시켰다. 사실 疆界문제는 실측지도인 『皇輿全覽圖』 제작과 관련, 만주지역 측량도 1708년 예수회 선교사 Regis, Jartoux, Fridelli 등이 하게 된다.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1712년 예부 咨文으로 조선에 알렸다. 사실 이 정계비는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의 일방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선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중국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후대에 왜곡된 것이다.

앞으로의 양국관계사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史料의 발굴과 활용에 진력해야 한다. 한국 측의 官選的인 『朝鮮王朝實錄』은 『明實錄』, 『清實錄』에 비하여 중국관계 사료를 훨씬 많이 담고 있다. 『明實錄』이나 『清實錄』은 의례적인,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극히 부분적인 내용만 게재하고 있다. 반면 『朝鮮王朝實錄』은 의외로 중국관계 자료를 많이 기재하고 있다. 지금도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한 뭇하의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中華書局, 1980)를 참조하는 연구자가 많다. 『조선왕조실록』의 구체적인 활용은 대중국관계사연구에 필수적이다. 또 한 가지 史料로 『同文彙考』(국사편찬위원회, 1978) 原編의 封典, 哀禮, 進賀, 陳慰, 問安, 節使, 陳奏, 表箋式, 請求, 錫賚, 鑼幣, 飭諭 등 항목과 더불어, 실제적인 관계의 내용을 수록한 交易, 疆界, 犯越, 犯禁, 刷還, 漂民, 推徵과 補編의 使臣別單은 한중관계사 연구에 기초자료이다. 덧붙여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通文館志』나 개인 문집류, 야사 등도 많은 참고가 된다.

44) 배성준,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東北邊疆研究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2004, pp.119-125 참조.

45) 최소자, 「18세기 전후 청과 조선~강희시기」, 『清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pp.46-49 참조.

중국측 史料로 實錄類를 비롯하여 『明史』, 『清史稿』의 「朝鮮」이나 『起居注』, 『上諭內閣』, 『官中檔奏摺』類, 『硃批諭旨』, 『文獻通考』類 등과 盛京, 吉林, 奉天通志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앞으로 새로운 檔案史料類의 발굴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史料를 추출해야 될 듯하다. 또 기대하고 싶은 성과는 조선과 명청관계사 개관과, 정치, 경제, 문화부분에서 공동연구를 통해서라도 1차 사료에 기초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출간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연구 성과를 중국에 알리는 것 역시 한국의 관계사연구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히 관계사 연구는 양국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물을 낼 때 그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너무 한국사의 입장, 중국사의 입장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2012.6.25.)

조선왕조의 長久性과 한중관계

계승범(서강대)

- | |
|---------------------|
| I. 머리말 |
| II. ‘장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 |
| III. 기존 설명의 비판적 검토 |
| IV. 한반도 왕조의 국제 환경 |
| V. 조선왕조의 지배구조 |
|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왕조의 長久性¹⁾에 대해서는 근대역사학이 도래한 이래 그것을 가능케 한 요인에 대한 설명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세계사에서 볼 때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일정한 문명 상태를 갖추고 고도의 국가시스템을 구축한 15세기 이후에 어떤 특정 왕조가 500년 이상이나 비슷한 지배 속성을 지닌 채 존속한 예가 일반적이지는 않기에,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일부 어용학자들이 그런 장구성에서 한국문명의 停滯性을 보고 그 점을 극구 강조했다면, 서구 학계의 연구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조선왕조 장구성의 역사적 특수성을 조선왕조 내부의 시스템과 국제적 환경을 들어 설명하고자 했다.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사회의 내부에서 장구성의 요인을 찾으려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이 사대의 대상으로 섬기던 중원 제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그 요인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특히 국내 학계에서 강해,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후자의 경우

1) 이 발표에서 ‘장구성’은 단순한 수명 차원보다는 지속적인 ‘안정성과 내부 통합력’의 의미로 사용했다.

는 주로 구미 학계에서 강조하는데, 국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내부 요인을 아울러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한 왕조가 존속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 왕조를 주관하는 국왕은 먼저 내부의 도전세력(귀족/하층민)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도전세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를 소홀히 한다면 내부의 정변이나 반란으로 몰락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소홀히 하다가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왕좌에 앉은 국왕은 자신의 전체 가용 에너지 중에서 받은 내부의 적을 척결한 데, 나머지 받은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데 써야 함을 의미한다. 각 왕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에너지의 분배 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상에 앉은 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며, 그것이 바로 통치의 기본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을 파악하는 접근법도 비교적 명확해진다. 바로 조선왕조 내부의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분석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조선이 처한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동아시아 무대에서 ‘완전한’ 자주국으로 존재한 적이 없고, 항상 중원 제국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그 屬國으로 존재했으므로, 굳이 중요성을 따진다면 후자의 요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에 기초해, 이 발표에서는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하되, 먼저 이 주제 관련 기존 설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 다음에 조선이 처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에서 제일 요인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조선 내부의 요인을 새롭게 제시한다.

II. ‘장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

조선왕조의 장구성 요인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국내외 학계에서 지금까지 적지 않지만, 모두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노정한다. 하나는 그런 질문이 과연 합당하고 사실에 입각한 질문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시각과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가의 문제이다. 이 소절에서는 먼저 질문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대해 흥미를 느껴 질문을 던지겠다고, 무엇보다도 세계사에서 볼 때 조선왕조만이 다른 왕조에 비해 유독 장구한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비교사 차원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조’의 개념정의부터 최대한 명확히 하고, 그것을 세계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비교를 한 후에, 그래도 조선왕조의 장구성이 독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논한 연구들 가운데 ‘왕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왕조’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한 예를 들자면, 전근대 일본의 경우는 왕조인가 아닌가? 천황이 주재한 그 시스템은 왕조인가 아닌가? 왕조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더 장구했으므로 우리의 질문은 당연히 일본 ‘왕조’의 장구성에 먼저 맞춰져야 한다. 전근대 일본을 왕조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천황제와 막부의 성격과 관련해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막부가 권력을 장악한 12세기 이후에도 천황은 일본 ‘왕조’의 대표자가 아니었나? 14세기 남북조 분열의 제일 요인이 바로 천황 문제 아니었는가? 북조에 의해 다시 통합된 후에도 천황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후의 모든 쇼군들은 왜 천황제를 없애지 않았을까? 또는 못했을까? 그 이유들 가운데 정통성 문제와 같은 정치적 이유가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최대한 명확히 한 후에 장구성 관련 질문을 조선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고 나서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논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다.

또한 중원의 제국(왕조)과 비교할 때에도 ‘장구성’이란 단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일 제국을 건설한 중원 왕조는 대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존속했다. 그런데 200년이나 300년이 과연 짧은 기간일까? 특히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외부 세계에 오픈된 중원의 경우에, 특히 북방기마민족이 수시로 대규모로 침략하던 중원에서 어떤 왕조가 200년을 넘어 300년 동안 존속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경이로운’ 長久가 아닐까? 500년이 300년보다는 표면상으로 길게 보이지만, 해당 왕조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한반도 왕조의 500년과 중원 왕조의 300년 사이에 과연 어느 쪽에서 왕조가 장구하는 속성이 더 강했다고 봐야 할까?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논한 기존 설명들 가운데 이런 비교 차원의 문제를 언급한 글도 역시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왕조’를 단순히 왕실의 존속 차원을 떠나 동질의 지배구조(정치체)라는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자면, 중세 유럽의 교황체제는 500년이 넘도록 건재했다. 실질적인 힘을 많이 상실한 뒤에도 그 권위는 남아, 신성로마제국으로 이어졌다. 이미 과거가 된 지 오랜 로마제국과 실세를 잃어가던 교회의 권위를 다시금 되살려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신성로마제국’(962~1806)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우리는 그 장구성을 읽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유지된 점에서 그 장구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양 고대의 로마제국(700s BCE~476CE)도 천 년 동안 존속했고, 동로마제국(330~1453)도 천 년 이상 존속했다. 오스만투르크제국(1299~1922)은 600년 이상 존속했다. 그런데 왜 그 장구성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의 장구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며 강조할까?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논하는 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동아시아 세계에서만 보아도 마찬가지다. 왕조를 넓은 의미의 정치체로 볼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가 여전히 모호하다. 일본의 독특한 막부체제 때문이다. 물론, 왕조(dynasty)를 같은 성씨의 지배자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면,²⁾ 일본의 막부도 왕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막부 시스템 못지않은 정치체가 존속한 때가 있었다. 이른바 고려시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에 걸쳐 존재한 무신정권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인 최고통수권자가 무신(장군)이었고, 최씨무신정권의 예에서 보듯 그 지위를 직계 후손이 계승해, 일종의 dynasty를 구축했다. 더욱이 무신정권 100년 동안 고려 왕실의 왕은 ‘허수아비’에 다름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로 퇴위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 왕실의 권위는 그야말로 바닥을 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권력을 장악한 무신세력은 고려왕조를 종식시키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려라는 왕조가 무신정권(최씨 dynasty)에 상관없이 장구하게 존속했다면, 천황으로 대표되는 일본이라는 왕조도 그렇게 보아야 형평에 맞는다. 일본의 막부를 왕조로 간주해 왕조교체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다고 한다면, 고려의 무신정권기도 그런 교체시기로 보아야 논리적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일본의 막부를 왕조로 간주해 조선왕조는 장구했고 일본은 자주 바뀌었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면, 논리적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역사 이해에 왜곡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경우를 보아도 문제는 여전하다. 일본의 천황제를 무시하고 막부제도만으로 왕조교체 내지는 정권교체를 논하겠다면, 같은 논리로 조선의 경우에도 왕실(왕위)에 중심을 두지 말고 봉당의 권력 다툼에 따른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장구성을 논해야 형평에 맞는다. 특히 19세기의 세도정치는 특정 가문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이루며 대물림을 한 통치체제, 곧 넓은 의미의 dynasty라 할 수도 있다. 봉당체제도 거의 집단적으로 세습된 점에서는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도 정권(dynasty)교체는 부단히 발생했다. 오히려 도쿠가와막부 당시가 정권교체 차원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조선후기 상황을 청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조선보다는 청나라의 정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권의 이념이나 통치논리로써 정권(왕조) 교체를 말하겠다면, 일본의 막부들 사이에 그런 차별화가 과연 얼마나 강했는지 의문이며, 중국의 왕조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런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또한 조선 내부만 보더라도, 16세기에 士林이 득세하면서 조선왕조의 정치 속성(이념)이 괄목할 만하게 바뀌었으며, 조선후기에도 그런 변화는 부단히 일어났다.

2) “A dynasty is a sequence of rulers considered members of the same family. … A dynasty is also often called a house (e.g., House of Saud and House of Windsor), and may be described as imperial, royal, ducal or comital depending upon the chief title borne by its rulers.” Wikipedia at <http://en.wikipedia.org/wiki/Dynasty>, Accessed on June 25, 2012. 동아시아 역사에서 ‘왕조’의 의미와 영어권에서 말하는 ‘dynasty’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했다는 표피적 현상에만 주목해, 한국의 왕조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독특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 그런 결론에 기초한 질문, 곧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 자체에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함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유럽사와 다시 비교해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 예로,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합스부르크왕가의 장구성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합스부르크왕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황제 지위를 유지한 시기(1438~1918)만 놓고 보아도 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력(왕조)을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은 조선왕조의 존속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아도 튜더왕조(1485~1603)나 스튜어트왕조(1371~1714)나 하노버왕조(1714~1917)나 열거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왕실의 핏줄을 계속 이은 왕가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父系로 따질 때는 그런 왕조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모계까지 따져본다면 오히려 영국 왕조의 장구성은 무려 1,000년을 훌쩍 넘을 정도로 강고했다. 이는 (비록 내전을 통해 국왕을 처형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영국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귀족세력이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영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왕조교체가 발생할 수 없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귀족 엘리트 곧 양반사대부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조선왕조는 적어도 내부의 요인만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왕조의 장구성의 내재적 요인을 푸는 열쇠는 지배엘리트의 왕조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조선은 과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구한 왕조였는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500년을 장구하다고 보겠다면, ‘장구’의 역사적 개념부터 보다 면밀히 따진 후에 조선왕조의 장구성(독특성)을 물어야 한다. 단순히 기간의 長短보다는 그 왕조가 처한 환경 조건을 감안해서 장구성을 ‘상대적’으로 논해야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접근이 사실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Ⅲ. 기존 설명의 비판적 검토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폈듯이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한 기존의 설명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이 소절에서는 기존의 설명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자.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한국문명의 독특한 점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학자들의 기존 설명은 크게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의 관료사회 내부에 형성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왕조의 장구성에 기여했다는 설명

이 있다. 이런 설명을 처음 시도한 이는 미국의 Edward Wagner인데, 그는 조선의 대간제도에 주목해, 대신들보다 관등이 낮은 대간들이 국왕에 대해 면전에서 간쟁하고 고위대신들을 탄핵하는 대간제도로 인해 관료사회 내부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국왕·대신·대간 등이 각기 세 개의 축을 형성해 서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이 가운데 어느 누가 홀로 독단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를 통해 그 셋이 공통으로 받치고 있는 왕조의 안정성을 설명한 것이다.³⁾ 이런 ‘견제와 균형’ 이론은 그의 제자인 James Palais 의해 대폭 보장되어,⁴⁾ 서구의 한국사학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정설처럼 되어 있다.

국내 학계에서 1980년대부터 크게 유행한 ‘붕당정치’론에서도 비록 붕당정치와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직접 연결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붕당간의 상호 견제와 공존이라는 정치시스템이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붕당정치 이론을 지지하는 국내 학자들의 장구성 관련 설명도 (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구미 학자들이 제기한 ‘견제와 균형’ 이론에 같은 범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구미 학계에서는 상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내부적 요인 외에도 중원의 거대 제국이 한반도를 직접 병합하려 하지 않은 점도 비슷한 비중으로 (또는 더 비중을 두어) 설명한다. 이는 조선 내부에서 아무리 어떤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외부의 거대한 제국이 한반도의 왕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왕조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국제질서를 강조한 시각이다. 물론 국내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중원 제국을 主語로 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왕조(조선)를 주어로 삼아 설명하는 추세가 강하다. 따라서 사대와 교린이라는 코드로 접근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외부적 요인보다는 조선사회 내부에서 장구성의 (긍정적인) 요인을 찾는 경향이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지배적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차원의 문제는 다음 소절에서 별도로 다룬다.)

셋째, 조선왕조 특유의 ‘公論정치’를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으로 보는 설명이 있다.⁵⁾ 공론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일단 道學의 가치에 적합하면서도 사안별 사대부의 중론을 공론으로 정의한다면, 하나의 설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록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널리 소개된 ‘사람정치’와도 짝을 이뤄 조선왕조 정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공론을 중심에 놓건, 그것을

3) Edward W. Wagner,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3).

4)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James B. Palais,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5, No. 2 (1995).

5) 박현모, 『정조 사후 63년: 세도정치기의 국내외 정치 연구』 (창비, 2011)

다루는 인간 곧 士林을 중심에 놓건 이 양자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 약간 다른 어감을 주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士族 및 ‘사족지 배구조’라는 말과도 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자들 사이에 사석에서 오가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反正’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세계사에서는 이를 나위도 없고, 같은 동아시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반정이 조선에서만 두 차례 발생한 사실에 착목해 반정이 가능한 조선사회의 특성을 강조한 설명이다.⁶⁾ 정식 논문의 형태를 갖춘 글은 아니지만, 또한 이런 반정의 독특성을 조선왕조의 장구성과 바로 연결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세 가지 내부 요인은 어느 한 가지가 독자적 요인으로 기능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모두가 한데 어울려 장구성의 일부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설명을 보다 면밀히 천착하고 시야를 넓혀 검토하면, 의외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세 가지 설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자면, 장구성의 요인을 찾는 시각이 지나치게 조선왕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애초의 질문 자체가 “조선왕조의 장구성”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조선왕조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볼 때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왕조의 장구성이 조선왕조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이전의 고려왕조(918~1392)도 500년 가까이 존속했으며, 그 이전의 신라왕조(?~935)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0년 이상 존속했다. 심지어 국제질서의 안정성이 취약했던 시기의 고구려와 백제왕조도 최소한 400년 이상 강력하게 존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때, 반드시 그 이전 왕조들의 경우와도 비교하는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시각이 결여된 채 조선왕조의 내부에서만 장구성의 요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한반도 왕조의 장구성이라는 상위의 명제에 대한 보편적 담론을 형성하기 어렵다. 조선왕조 또한 한반도의 왕조였으므로,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먼저, 대간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설명을 보면, 그것이 비록 조선왕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라의 경우는 이를 나위도 없고) 고려왕조의 장구성조차 비슷한 논리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주지하듯이, 귀족정치구조를 구축한 고려왕조에서 대간의 기능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간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고려왕조는 어떻게 장구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고려 말에 이르러 대간제도가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려왕조는 바로 그때 망했다.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대간에 중점을 두어 ‘견제와 균형’ 논리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에 답을 해야 한다.

6)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공론정치’를 조선왕조 장구성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허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고려왕조의 경우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공론정치’가 실제로 작동한 예가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⁷⁾ 뿐만 아니라, 대간의 기능을 강조한 기존의 설명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가의 문제도 따른다. 아울러,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는 道學정치니 王道정치니 하는 개념과는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의 비슷한 말을 하면서 단어 정도를 바꾸는 식으로는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정’ 이론도 한 번 보자. 반정이라는 정치철학으로 인해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왕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은 일단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은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반정은 언제나 事後에 공표된 레토릭에 불과한 정치선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변을 준비할 때부터 반정 이론을 염두에 두고 발생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종반정의 경우에, 정변 주체세력은 기존의 국왕을 내쫓고 왕실 중에서 한 명을 추대했다. 그리고는 사후에 그런 행위를 반정이라 공표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변이라면 중국에도 많았고 한국에도 적지 않다. 한 예로, 고려의 무신정권 실권자들은 모두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는 국왕을 마음대로 내쫓았다. 그러나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종실에서 누군가를 골라 왕좌에 앉혔다. 즉, 굳이 반정이라는 정치선전을 하지 않고도, 무신정권으로 인해 고려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정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조반정은 어떤가? 이 경우는 처음 모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고 주동자가 바로 인조였으므로, 반정이고 무엇이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역시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정치선전이었을 뿐이며, 조선왕조의 장구성과는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전혀 상관이 없다.

요컨대, 기존의 세 가지 설명이 갖는 문제점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과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조선왕조의 장구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에서 조선처럼 장구한 왕조들의 사례를 뽑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사 내부에서만 조망할 경우라도, 조선왕조 내부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려왕조의 장구성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 요인들을 찾는 데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의 권리

7) 박현모(2011)는 현실정치에서의 공론을 “士林의 대화 속에서 조정과 절충이 가능한 미결정의 어떤 것”이라 규정했는데, “어떤 것”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하며, 조선의 정치무대에서 조정과 절충이 정말 이루어지던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 공론정치 이론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당쟁 발생 이후로 공론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의심이다. 오히려 당쟁이 발생한 16세기 후반 이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론정치가 크게 위축되고 쇠퇴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공론정치를 조선왕조 장구성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공론정치가 그 본연의 의미를 잃은 조선후기 17세기나 18세기 언젠가에 조선왕조가 몰락했어야 논리적으로 맞겠기 때문이다.

이자 의무인 통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선의 외부 환경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조선이 망하지 않았던 요인들 가운데 과연 내부와 외부 가운데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있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IV. 한반도 왕조의 국제 환경

동서고금의 어느 정치체나 최고통수권자의 관심은 내부의 적을 막고 외부의 적을 막는 일이다. 이는 역으로 말해, 왕조와 같은 어떤 정치체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균형을 맞춰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왕조가 처한 형편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이 중원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격리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내부 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에 어떤 제국과 인접하면서 屬國으로 존재한 나라들일수록 외부 요인이 중요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 조선왕조 장구성의 요인을 따지면서 왕조의 내부 환경보다 국제적 환경을 앞에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⁸⁾

이와 관련해, 국내 학계에서 강조하는 事大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럴 경우라 해도, 실질적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구미 학계와 국내 학계 사이에 일정 차이가 존재한다. ‘주체적 선택’으로서의 사대정책을 강조하는 국내 학계와는 달리, 구미 학계에서는 조선의 입장과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중원 제국의 입장과 선택에 무게를 더 두는 경향이 강하다. 나도 이에 동의하는데, 내가 중원 제국이 칼자루를 잡은 甲의 입장이고, 조선이 乙의 입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의 안정기에는 사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제국의 교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몰락의 위기에 처하는 시기는 바로 그런 교체기였다. 이른바 왜란과 호란, 그리고 개항 이후의 상황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때 조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보건, 사실적으로 보건,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하지 않은 제일 이유 또한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조선 내부의 요인들, 이를테면 수군의 활약이나 의병의 활동 덕분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두 강자인 명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를 경계로 삼아 형성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설명이 보다 솔직하고 사실에도 더 부합한다.

셋째, 병자호란 때 조선왕조가 망하지 않은 제일 이유도 당시 청이 조선의 병합을 굳이 원하

8) 조선왕조는 중원 제국이나 일본의 외압이 아무리 심했는지라도 왕조 내부의 어떤 매카니즘이나 내공으로 인해 장구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중원 제국이 한반도를 병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동아시아에 형성된 힘의 균형 때문에 장구할 수 있었는가? 이 둘은 모두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청의 관심은 언제나 중원 정복이었기에, 조선을 병합하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다. 솔직히, 당시 청이 중원보다 조선에 더 관심을 두었다면, 조선은 그때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넷째, 개항 이후 조선이 오래(?) 존속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크게는 당시 동아시아에 형성된 고도의 긴장을 동반한 힘의 균형 때문이었고, 작게는 청이 상당한 수준의 내정간섭을 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전통적 조공·책봉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⁹⁾ 그러던 조선왕조가 1905~1910년에 걸쳐 끝내 몰락한 제일 요인은 바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그런 균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16세기부터는 국가의 自衛力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조선왕조가 400년이나 별다른 문제없이 존속한 이유는 결국 한반도의 국가를 바라보는 중원 제국의 시각 및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된 힘의 균형이 제일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을 먼저 살핀 후에 내부의 요인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물론 이런 중원 제국과 조선과의 관계에서 조선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조선이 비록 乙의 입장이기는 했지만, 甲이 마음대로 다루기 어려운 자체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지하듯이 조공책봉체제는 호혜적 관계였다. 우선, 중원 제국(특히 明) 입장에서는 조선과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쪽 방면의 경계를 안정시키는 결정적인 이득이 있었다. 지형학적으로 볼 때, 대륙에서 길게 튀어나온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명과 함께 만주일대의 여진을 제어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와도 같은 형세를 이루었다. 실제로 명초/조선초에 왜구 문제의 해결을 놓고 명과 조선은 이해관계를 서로 공유했으며, 만주의 여진을 토벌할 때 명과 조선은 두 차례나 공동작전을 구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왜란 때 명이 내부의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신속하게’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¹⁰⁾ 까닭은 바로 일본을 견제할 전진기지가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도, 그래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한반도를 통제권 아래 두고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었던 점은 명이 얻은 최대의 이익이라 하겠다.

9) 1882년부터 1893까지 청이 취한 조선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대적 제국주의라는 견해와 전통적 책봉체제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개항 이후 청의 내정 간섭 시기에 ‘속국’의 개념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 조공과 책봉의 성격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구선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한편, 그 성격을 “informal imperialism”으로 설명한 연구로는 Kirk W.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10)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明軍의 참전과 그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폄하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당시 명의 군사력과 내부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5만대군과 막대한 군수품을 전쟁 발발 일 년도 안 되어 조선에 투입하기 시작한 점은 (명 내부의 참전 반대론까지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른 결정이자 과단성 있는 즉각적인 실행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천자의 교화가 널리 퍼진 대표적인 증거로 조선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漢族이 세운 제국이건 북방족이 세운 제국이건 대개 중원을 장악한 후에는 유교적 가치의 수용을 통해 정통성을 내세웠는데, 小中華를 자처한 조선은 천자의 교화가 中外(제국의 영토)를 넘어 四海에 두루 미친 증거로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정통성 문제는 조선의 왕이 책봉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북경의 천자가 조선으로부터 오는 조공과 표문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¹⁾

조선이 조공책봉관계를 선호한 이유도 비록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그래서 乙의 입장이지만),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았다. 역시 가장 큰 이득은 국가의 안위를 상당 수준으로 보장받은 점이다. 특히 이전 고려시대 4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북쪽으로부터의 침입과 위협에 시달린 경험을 고려할 때, 요동까지 장악한 명이 몽골과 여진을 적절히 막아주는 형국은 조선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이제부터는 북경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적어도 북쪽 변경의 불안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동아시아) 최고 문명인 중화문명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런 조공책봉관계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문치주의가 대세인 당시 중원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문화 차원에서 명 다음 2인자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이 소중화를 통해 자부심을 느낀 것은¹²⁾ 그 좋은 예이다.

이런 호혜적 관계는 물론 甲의 입장인 중원 제국이 한반도를 병합해 직할통치하는 옵션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원을 장악한 제국이 굳이 한반도를 탐내지 않은 이유, 또는 설사 한반도의 왕조를 정복했는지라도 직할령으로 삼지 않고 곧 철수한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 했고 그만큼 의견이 난무했다. (단, 정식 논문의 형태를 갖춘 설명은 의외로 적다.) 현재 통설처럼 수용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중원의 覇者가 한족이 세운 제국일 경우에는 한반도가 바다 건너에 있는 먼 지역이며,¹³⁾ 또한 군사 원정을 통해 실패한 경험 때문에 한반도의 병합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Palais) 예를 들어, 수와 당이 경험한 참담한 패배가 반면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전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대를 해 오는 한반도 왕조를 교화 차원에서 수용해 주는 쪽이 훨씬 이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방족이 중원을 장악한 경우에는, 역시 그들의 최대 관심이자 제일 관심은 중

11) 이에 대한 실례로는 Seung B. Kye, “Huddling under the Imperial Umbrella: A Korean Approach in Early 1500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No. 1 (Seattle: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10) 참조.

12)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13) 明太祖가 고려와 조선에 대해 보인 인식은 좋은 예이다.

원을 정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단 그들이 보기에 한반도가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했다. 북쪽이나 동북쪽으로부터 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반도를 먼저 평정하는 쪽이 전략적으로 요긴했기 때문이다.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이 실제로 조선에 침입했거나 심각한 위협을 가해온 사실은 이런 설명을 잘 뒷받침해준다. 요약하자면, 한반도를 정복하고 직할령으로 편입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cost를 계산했을 때, 한 차례의 군사원정이라면 모를까, 지속적인 주둔과 직할 통치는 타산이 안 맞았던 것이다.

이런 기존의 인식은 충분히 수공이 간다. 그런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하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이론으로 명명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 균형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곧 중원 제국이 한반도를 비교적 손쉽게 정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대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또는 못한) 이유는 단순한 cost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2000년 내내 유지되어 온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원 제국의 한반도 병합을 불가능하게 만든 ‘균형’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제국의 후방이 완벽하게 평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원 제국 내부의 불안 요인이 상존한 점이고, 마지막 하나는 한반도 국가가 보유한 국력(군사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 4~6세기 (남북조시대): 이때는 중원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서의 China가 분열된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점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백제나 고구려도 충분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7~9세기 (수·당): 통일 제국의 힘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는 했으나,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는 했으나, 한반도의 신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소강상태로 유지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며, 끊임없이 당의 북쪽을 위협한 돌궐의 역할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 그 후로도 안사의 난이나 티벳의 융성 등도 모두 당이 비록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기는 했어도 큰 틀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세력)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줄곧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또한 비록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켰으나, 그래서 그 ‘사람들’(인적자원)은 많이 끌고 갔으나, 백제와 고구려가 차지하던 지역(공간)은 직할령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이 또한 당이 그것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 곧 당시 당이 보유한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고구려 몰락 후 불과 30년 만에 만주일대에서 흥기한 발해도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했다.

* 10~13세기 (宋과 거란제국/여진제국): 이 시기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패권이 이전과는 달리 두 개의 중심으로 나뉜 시기이다. 중원의 송은 그 세력을 북경 너머로 확대할 수 없었고, 만

주에서 흥기한 거란제국이나 여진제국은 중원까지는 장악했을지라도 강남까지는 정복하지 못했다. 동아시아에 복수의 천자(황제)가 공존한 시기였으며, 고려의 일부 왕들이 칭제를 하고 연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국제질서 환경 덕분이었다. 동아시아 전체가 여전히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되, 이전의 균형이 당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 균형이라면,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 무대 자체가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면서 발생한 균형이었다.

* 13~14세기 (몽골제국): 몽골이 고려와 남송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균형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여진제국이 붕괴된(1234) 후에도 몽골은 여진제국(금)의 위치를 대신했을 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가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균형 구도를 비교적 장기간(40년 이상) 지속케 한 제일 요인은 고려의 대몽항전이라 할 수 있다. 1270년대에 고려와 남송이 끝내 몰락하면서 동아시아 대륙 전체가 몽골제국의 새 질서로 강력하게 편입되었지만, 그래도 고려는 왕조를 유지했다. 그 이유는 몽골제국 내전 당시 고려의 왕들이 쿠빌라이와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이기도¹⁴⁾ 하겠지만,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방식에도 크게 기인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이미 왕실의 보존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에 의한 강화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할 예정임)

* 14~17세기 (명): 이 시기는 명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한 시기이지만, 역시 동아시아에는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일인자 지위를 확보한 점에서 보면, 한족이 건설한 (엄밀히 말하자면 당이 과연 한족의 제국인지도 의문이지만) 당제국의 붕괴 이후에 명은 실로 500년 만에 한족이 권토중래해 건설한 제국이었다. 그러나 cosmopolitan 정책을 펼친 당과는 전혀 달리, 명은 처음부터 고립주의정책을 취했다. 영락제의 원정 등이 예외적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명은 쇠국으로 일관했다. 해금정책이나 장성축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명이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몽골제국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역시 적극적인 대외공세를 취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즉 힘의 균형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15세기 내내 명을 괴롭힌 몽골과 16세기부터 세력을 확대한 만주일대의 여진은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심지어 16세기 후반부터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일본까지도 가세해 동아시아 균형의 틀에 변화를 주었다. 오히려 17세기에 들어서면 조선이 명의 입장에 적극 공조를 취해 주어야 그나마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¹⁵⁾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 17~19세기 (청): 청이 명을 정복할 즈음에 사실 청이 마음만 먹으면 조선을 병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개 병자호란 당시 상황에만 중점을 두

14)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고려·원 관계의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출판부, 2007) 참조

15) 계승범,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명질서의 균열」,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실 편,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2008).

어 청의 관심이 중원에 있었다거나, 중원에 대한 총공격을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다거나 하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17세기 거의 막바지까지 동아시아에는 힘의 균형이 여전했다. 남명(1644~1662)과 三藩(1673~1681)은 청의 China 정복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의 세력권이 거의 확정되고 안정기에 들어선 강희제(r. 1661~1722) 때에도 대륙으로는 러시아와 흑룡강을 경계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위구르와 티벳 일대에 대한 정복사업은 강희제 재위 거의 내내 이루어졌다. Portuguese와 Dutch의 존재도 균형대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이 조선을 직할령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중원과 강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군사력도 아까울 지경이었으며, 공간으로서의 China를 평정한 후에는 굳이 조선을 (병합하기 위해) 다시 정복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 19~20세기(근대 제국의 각축과 일본, 냉전): 앞서 언급했듯이, 개항(1876) 이후 조선이 적어도 1905년까지 국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제일 요인은 이전과는 다른 상당한 긴장 국면의 균형이지만 그래도 동아시아에 형성된 그런 균형의 프레임은 여전했다. 다만 청일전쟁으로 청이 물러난 후에 그 자리를 러시아가 차지한 점과 일본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점이 달랐을 뿐이다. 그런데 러일전쟁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일본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 근대 일본은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와는 무관한 근대의 제국이였다. 균형추가 일본으로 급격히 기울자마나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된 것은 바로 이런 근대의 제국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전성기 때에도 동아시아에는 일정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ROC)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또한 중국 내에 깊이 개입해 있는 서양 세력이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통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간적으로 볼 때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된 점이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현상은 그동안 중원에 중심을 둔 제국의 몰락에 따른 결과였다.

* 20세기~현재 (냉전과 G2): 이 시기는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힘의 균형이 공간적으로 한반도를 양분해 버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단 상태는 비단 한국의 분단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분단인 셈이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한반도에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상태(냉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산물에 다름 아니다. 이미 도래한 이른바 'G2시대'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세력권의 분할이자 세력 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한 분단된 한반도의 정국은 역설적이게도 안정적일 수 있다. 동아시아 판도의 격동은 한반도의 통일을 전후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의 균형 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균형 이론을 보강하기 위해 북방축의 흥기와 한반도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방축의 최대 관심은 중원 정복이었기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그럴지라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가 갖는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높았다. 몽골이나 만주일대에서 흥기해 중원을 정복한 정복국가들의 패턴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거란제국은 중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평정해야 할 한반도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비록 고려가 거란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기는 했으나, 우선 군사적인 대결에서조차 거란제국은 고려를 제압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거란이 중원의 송을 정복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뒤의 여진제국은 일단 1115년에 고려를 평화적으로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고려의 확실한 중립을 얻어낸 것은 여진제국으로 볼 때에는 성공이었다. 앞선 거란제국의 실패를 고려할 때 특히 그랬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125년에 여진제국은 거란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음해인 1126년에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이때도 고려는 평화적으로 굴복해 왔는데, 이 또한 여진제국의 중원 정복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실제로 이듬해(1127)에 여진은 송제국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장악할 수 있었다.

몽골도 1234년에 여진제국을 완전히 붕괴시킨 후에는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 약 40년 가까이 한반도 전역을 유린했으나 한반도의 주인인 왕실을 제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러다가 결국 몽골제국이 내전에 휘말리는 기간에 고려와의 협상에 급진전이 있었고, 결국 고려왕실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때가 1270년인데, 몽골(원)제국은 바로 이로부터 9년 후인 1279년에 마침내 남송을 완전히 정복하고 병합했다.

만주(Manchu)도 중원을 치기 전에 조선을 먼저 굴복시켰다. 전면적인 공격으로 1637년에 조선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선왕조를 존속시켜준다는 조건이 붙은 불완전한 항복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청은 이로부터 7년 후인 1644년에 마침내 명제국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정복할 수 있었다.

북방족의 중원 정복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면까지 본다면 경우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출현한 대표적인 4개의 정복국가가 보여준 패턴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중원 정복 몇 년 전에 반드시 한반도를 제어한 공통점 말이다. 요컨대, 그들은 중원 정복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한반도의 평정을 필요로 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병합은 사실상 그 방법(웁션) 중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역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어떤 ‘균형’ 때문이었다. 국가 간의 균형만이 아니라 한반도 국가의 국력이나 중원 제국 내부의 이해타산도 그런 균형을 이루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북한이 ‘예상 밖으로’ 굳건히 지속(長久)되는 점도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곧 현재 동아시아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힘의 균형 상태를 무시

하고 북한 내부의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¹⁶⁾ 중국(PRC)으로서도 북한의 체제와 돌출행동이 골치 아프기는 하지만,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는 절실히 필요하다. 동아시아를 양분한 미국과 (예전이라면 바다 건너 일본과) 경계를 맞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전통시대 중원의 제국은, 특히 한족이 세운 제국은 대체로 그런 완충지대를 두곤 했다. 外服이니 藩屏이니 藩屬이니 하는 지역이 그런 예이고, 唐代의 羈縻州도 (중원의 통제력이 보다 강화된 형태이지만) 일종의 완충지대라 할 수 있다. 현재 PRC에게 있어 북한이 갖는 의미도 이런 전통 구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조선왕조 내지는 한반도 왕조의 장구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장구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중국·북한 관계가 바로 조선왕조의 장구성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V. 조선왕조의 지배구조¹⁷⁾

통일신라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뿌리를 둔 세습지배세력(귀족)들은 그들의 가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적이 별로 없다. 왕실은 가끔 바뀌었지만, 왕조의 몰락이 기존 기득권층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았다. 조선왕조 장구성의 내부적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는 왕조(ruling house; 宗廟社稷=國家)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비록 근대 개념은 아니지만) 종묘사직이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국가 인식이 더 강했고 중요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왕조교체 문제: 중원의 왕조는 대개 정복국가이므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 왕조가 몰락한 경우가 지배적임. 내부적인 ‘교체’라 해도 한나라와 명나라의 경우는 농민전쟁으로, 송나라의 경우는 군벌의 내전을 통해 건국됨.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에 전격적인 왕조 교체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 대개 큰 전쟁이나 내전상태를 비교적 오래 겪는 특징이 있음.

반면에,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전쟁과 같은 대규모 폭력에 의한 (정복에 의한) 왕조 교체는 전무함. 지배귀족층이 건재한 바탕 위에서 새 왕조가 건립됨. 따라서 지속성이 강함. 또한 지속성이라 함은 바로 장구성과 통함. 신라가 고려에게 망할 때 무엇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나?

16)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내부의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한 연구로는 Hongkoo Han,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 Doctoral disserta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참조.

17) 이 소절은 논문의 형태로는 필요하고 중요하나, 이번 한중관계 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정식 문장으로 바꾸지는 않은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은 신라 왕실의 몰락이지, 신라 귀족층의 몰락은 아니었다. 고려가 망할 때 그것은 고려 왕실의 종말을 의미하지, 고려 귀족층의 몰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한반도의 왕조(왕실)는 대체로 귀족사회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했지, 귀족을 제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왕조는 李氏의 왕조라기 보다는 양반사대부(士族)가 형성한 국가였다. 따라서 사대부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외침에 의해 정복(병합)되지 않는 한, 왕조는 건재할 수 있었다. 특히 道學이 최고의 가치로서 그 어떤 인간보다 우위에 놓인 사회구조.

* 중앙 집중 현상이 강하고 동질성이 강한 사회구조: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중앙의 벼슬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풍조: 중앙의 권위를 다들 인정한다는 것. 또한 그런 시스템 (예: 과거제도) 이런 현상은 비단 조선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려 때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한반도라는 동질의 공간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의 왕조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했기에 왕실을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중국과 비교:

- 중원의 황제는 신료들을 제어할 힘을 갖추; 조선 국왕은 신료들에게 교육을 받음. (君弱臣強)
- 중원의 중앙조정(정부)은 지방을 강력하게 통제 못함; 조선의 중앙조정은 지방을 장악함.
- 요컨대, 중국에 비해 조선은 국왕(왕조의 대표)은 힘이 약하나, 중앙(사대부정권)은 매우 강함.

* 왕권이 적당히 약했던 점: 중원 제국의 황제 > 조선의 왕 > 일본의 천황

* 세습지배층(士族)의 존재 형태: 사족지배구조

(1) 지식의 독점성과 통일성: 주자성리학이라는 특정 이념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이 지식과 해석을 독점하고 그들의 지식이 전국적인 망을 형성했으며 (방방곡곡에 포진), 상당한 균질성(통일성)을 갖춘 점. 다른 것이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

(2) 토지경제 문제에서 지식인들이 세습 지배층을 형성하고 토지를 독점적으로 보유해 하층민을 지배한 구조: 이런 경제적 상위층이 역시 전국방방곡곡에 산재해 포진한 나라. (조선에서 중앙이 강했다는 것은 중앙이 지방을 힘으로 눌렀다는 뜻이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양반지식인들이 모든 관심과 안테나를 중앙으로 향하게 했으며, 실제로 중앙 진출을 염원했고, 낙향하는 것이 곧 실권을 의미함.¹⁸⁾

18) '山林정치'의 경우에도 사실은 산림권력의 핵심은 언제나 중앙에 있었음.

(3) 세습신분제: 양반이라는 지배신분계층이 전국방방곡곡에 산재해 포진한 나라.

(4) 이들 상위계층이 모두 사족이라는 동일집단으로 귀결됨. 다른 말로 특정 지배세습계층인 사족이 지식과 경제력과 노동력(노비)과 정치권력과 사회시스템을 모두 독점한 사회구조를 구축함. 이게 조선사회의 지배구조. → 이런 사회에서는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내부적으로는 하층민에 의한 상위 양반계층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나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함. 조선왕조가 무르익을수록 이런 구조가 강해지다가 19세기에 가서야 답보상태를 보임 (이마저도 급격히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

예를 들어, 민란이라 해도 대규모 민란은 없으며, 지방에서 봉기한 농민반란군이 중앙을 향해 진격해 올라가는 그런 일도 거의 없음. 이괄의 난 때 도성을 함락한 유일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위화도회군처럼 군부의 쿠데타 성격으로 보아야 함. 이런 사회에서 사족 곧 사대부가 왕조를 부정하지 않는 한 조선왕조의 몰락(왕조교체)은 상당히 어려움.¹⁹⁾ 19세기 말의 동학농민 봉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한 양반’을 주요 적결 대상으로 삼았지, 국왕과 왕조를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음. 양반계층 전체를 겨냥한 봉기도 아니었음. 진주민란을 비롯해 19세기 민란들 거의 대부분은 왕명에 의해 스스로 해산한 뒤 주모자는 스스로 잡혀 처형되는 흥미로운 패턴을 (차라리 낭만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심지어 구한말의 항일의병조차도 국왕의 칙령에 따라 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해산하곤 했다. 칙령을 거스른 경우는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을사의병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을미의병까지만 해도, 특히 위정척사 계열의 사족이 의병장인 경우는 대개 칙령에 따라 해산함.

결국, 사대부 곧 사족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들이 조선이라는 왕조 자체의 전복을 꾀하지 않는 한, 조선왕조는 건재하게 되어 있었다. 적어도 내부에서는 왕조를 무너뜨릴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갑신정변 주동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심지어 독립협회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말한 ‘왕조’ 내지는 ‘조선왕조’의 의미를 어떻게 규명해야 할까?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발표자의 가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미 왕조의 범주를 넘어 국가라는 의미 곧 역사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 단순히 왕조로서의 조선이 아니라 국가(nation)로서의²⁰⁾ 조선 의식이 성장한 결과는 아닐까?

19) 戊申亂의 경우는 사대부들이 주동이 된 거의 유일한 지방 반란인데, 그조차도 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라, 왕을 부정했음.

20) 물론 이때 nation은 근대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 proto- 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리고 보다 정치하게 실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라 생각한다. 실록에 보이는 國家는 거의 다 종묘사직 곧 왕실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역사·정치 공동체라는 의미의 國家를 강조하기 위해 nation이라는 단어를 차용했을 뿐이다. 왕조를 이런 의미의 국가로 본다면, 공화국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VI. 맺음말

조선왕조 장구성의 용인에 대한 설명은 대개 강의시간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구두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정식 연구논문의 형태로는 매우 적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또는 동아시아사를 통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조망할 때 조선왕조만이 아니라 한반도 왕조의 장구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 엄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조선왕조 장구성의 양대 요인: 韓中관계 + 사족지배체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로 보인다.

* 조선왕조 몰락의 양대 요인: 동아시아 국제질서 균형의 와해 + 19세기의 내부 혼란과 도전: 장구성을 설명한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와해되는 시기가 바로 19세기 후반. 그 결과는 왕조의 종말.

현재 북한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조선왕조의 지속성과 안정성과 유사한 면이 많다.

장구하듯이,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장구했음을 설명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설명 틀은 고려왕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 이름 불러주기-실록의 조선·청나라 호칭(互稱) 분석

이영옥(성신여대)

I. 머리말
II. 야인과 여진 딱지
1. 변방의 야인들 2. 여진이라는 딱지
III. 그 이름 불러주기
1. 솔호와 호로(胡虜) 2. 단 하나의 천조(天朝)
IV. 맺음말

I. 머리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과거에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불렀으며, 현재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하는 호칭¹⁾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한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하기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자국의 동쪽에 있는 반도와 국가를 언급할 때 조선·남조선·조선반도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한국·남한·한반도 등은 익숙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교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정부나 민간의 인사들은 한국정부나 민간의 인사들을 접촉할 때 상대방을 한국 측이라고 표현하고, 한반도문제를 언급할 경우 남한·북한·남북한관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그들은 조선정부나 민간의 인사들을 접촉할 때 상대방을 조선 측이라고 표현하고, 조선반도문제를 언급할 경우 북조선·남조선·북남조선관계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이 한(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나라를 부르는 방식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분리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²⁾ 이러한 방식을 중국식 실용주의나 실리적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1) 호칭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가 ‘서로 부름을 뜻하는’ 互稱이고, 두 번째가 ‘이름 지어 부름 또는 그 이름을 뜻하는’ 呼稱이다.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두 개의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2) 더 현실감이 있는 사례로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있다. 중국의 매체들에서 6자회담의 공식적인 명칭은 “朝核六方會談”이고 그 참가국을 조선·한국·중국·미국·러시아·일본 등의 순서로 언급한다. 한국에서 북핵 6자회담, 일본에서 朝核六方會談, 미국에서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 Uclear Program 등으로

한편 한국정부나 민간의 인사들도 두 개의 중국에 대해 중국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1980년대 후반 한 신문기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외교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호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自由中國(臺灣) 외교부는 韓國정부의 中共에 대한 中國 호칭문제와 관련, 이는 한·自由中國의 관계를 해치는 처사라는 항의를 駐韓대사관을 통해 韓國정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臺北의 聯合報가 13일 보도했다.”³⁾ 이 기사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중국공산당 정부)으로 부르면서 국가로 여기지 않았던 과거가 있으며, 정식으로 수교하기 전에 이미 한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 사이에는 국가 호칭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타이완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 동안 반한감정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에서는 타이완을 자유중국으로 중국을 중공으로 불렀는데, 차츰 타이완과 대륙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다가 현재는 타이완과 중국이 일반화되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호칭도 20세기를 전후하여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다.⁴⁾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이 수립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1913년 10월에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공문에 중화민국이 아닌 차이나(支那)를 쓰도록 하였다. 일본인들은 중화나 중국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은 중국을 자국보다 뒤떨어진 나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의 중심으로서 중화든, 중심의 나라로서 중국이든 과거 중국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한중관계나 중일관계 이외에도 동아시아에는 일종의 특수한 관계, 남북관계가 존재한다.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의 실무자나 정부관계자가 접촉할 때, 민간교류를 위해 민간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양측은 호칭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남조선이라는 호칭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는 양측이 호칭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을 벌이는지 보여준다. 2011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던 요하네스버그에서 한국 기자가 김정훈 감독에게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질문하자,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조선대표팀”이라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⁵⁾ 1998년, 한 국회의원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영어·러시아어·한자 등으로 된 다국어 명함을 만들었다. 그는 명함 뒷면에

불린다. 이들 명칭은 각국이 남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 3) 「臺灣, 韓國의 「中國」호칭에 항의」, 『동아일보』 1988.07.14.
- 4) 單冠初는 일본이 1911년혁명 이후 중국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놓고 일본의 심리와 의도를 분석하였다. 그는 野澤豊이 지녔던 호칭에 대한 호기심과 倪建周·修明의 문제제기를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單冠初, 「民國時期日本稱謂中國國號之演化及用心考論」, 『史學月刊』 2002-3; 野澤豊, 「序章」, 『日本の中華民國史研究』, 汲古書院, 1995; 倪建周·修明, 「“支那”源流考」, 『人民日報』 1999.05.07.
- 5) 「북한 김정훈 감독, “월드컵에 나온 것은 조선대표팀”」, 『스포탈코리아』 2010.06.14.

“韓國(南朝鮮) 國會議員”이라고 표기했다가 일부 언론과 경쟁관계에 있던 정당으로부터 못매를 맞았고, 결국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⁶⁾ 현재 남북의 만남에서 남측을 남측·남쪽·이남·남 등으로, 북측을 북측·북쪽·이북·북 등으로 호칭하면 큰 무리가 없다.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호칭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이 불리는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장미는 달콤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⁷⁾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접하고,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날 언제 봤다고 반 말을 하느냐?”, “내 몇 쟤 동생뻘도 안 되는 녀석이 말을 함부로 해” 등의 말이다.⁸⁾ 이런 말들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호칭이 원만한 관계·소통·교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한인(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호칭에 대한 기억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센징이라는 호칭은 어떤 명칭이 그 자체로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비하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인들은 한인들을 부를 때 조선인의 일본어발음을 사용하여 조센징이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조센징 바가야로’ 처럼 폄훼하는 말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결국 호칭이란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용어도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호칭에 대해 현실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조선과 청나라가 서로를 어떻게 이름 지어 불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상호이해나 관계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긴다. 이 글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나 상호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⁹⁾를 참고하면서 실록에 나타난 양국의 호칭을 분석하려 한다. 먼저, 만주인이 금나라(후금)를 세우기 이전까지 명나라와 조선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되고 불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만주인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자신들이 원하는 호칭(呼稱)을 얻는 과정과, 조선과 청나라가 서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유지한 평화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호칭을 분석함으로써 상대방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느냐는 상대방의 지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李錫玄의원 南朝鮮 표기 명함파문」, 『매일경제』 1998. 08.21.

7) 수잔 로메인, 박용한·김동환 옮김, 『언어와 사회: 사회언어학으로의 초대』, 소통, 2009, 168쪽.

8) 박영순, 「국어와 영어의 호칭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2004, 265~270쪽.

9)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박원호 외,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최소자, 『淸과 朝鮮 -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2005.

II. 야인과 여진 딱지

1. 변방의 야인들

원나라는 금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단강(牧丹江, 당시 胡里改江) 서쪽의 여진인들을 무참히 살육하였고, 랴오둥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정책은 여진인으로 하여금 몽골인이나 한인에게 동화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랴오둥지역과 중원의 여진인들은 차츰 무단강이나 헤이룽강 남부유역에서 살던 부족들과는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¹⁰⁾ 따라서 이미 농경문화에 적응한 여진인들과, 송화강·헤이룽강·무단강유역 등에 살던 부족들을 같은 명칭으로 부르기는 어려웠다.

원말명초(여말선초)가 되면, 동북지역¹¹⁾은 오랫동안 힘의 공백(=행정의 부재) 상태에 빠졌고, 여진을 비롯한 다양한 야인(野人)들이 명나라·몽골·조선 사이에서 생존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부족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여진인들은 요동과 두만강 북쪽지역(지도의 ◇·△)에 거주하면서 농경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오랑캐인들은 몽골인이 중국을 잃고 초원으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송화강유역(지도의 ○)지역에서 밀려나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¹²⁾ 우디거인들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나라 이전부터 무단강 동쪽의 송화강·헤이룽강 합류지역(지도의 ○)에서 거주하고 있었다.¹³⁾ 오도리인들은 무단강 남쪽과 투먼강(圖們江)유역(지도의 □)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는데, 조선의 두만강유역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었다.¹⁴⁾

10) 孫進己 外, 『女眞史』, 吉林文史出版社, 1987, 142~147; 李自然, 「試論元末明初女眞人遷徙的原因及其影響」, 『黑龍江民族叢刊』 2000-4.

11) 원나라 때이기 때문에 遼陽行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동북지역이라고 하였다. 헤이룽강 남쪽, 송화강 서쪽, 압록강·두만강 북쪽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다. 홍타이지가 자신을 만주인이라고 규정하였을 때 만주는 선양을 중심으로 하는 랴오둥지역을 의미하였다. 만주인은 중국을 정복한 뒤에 랴오둥지역부터 헤이룽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성징(盛京)이라고 불렀다. 당시 성징은 좁은 의미에서 만주인들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선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고, 넓은 의미에서 랴오둥지역부터 헤이룽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의미하였다. 청말민초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遼寧·吉林·黑龍江의 3성이 설치되면서 성징은 東三省으로 불렸지만, 일본이나 러시아는 그 지역을 만주라고 불렀다. 그 뒤,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만주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1949년, 중국은 만주국을 동북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했고,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지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동북부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동북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 오랑캐인들의 이주에는 몽골인의 압박 이외에도 랴오둥지역과의 무역이나 명의 정치적 혼란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였다. 오랑캐(우량카이 3위)의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을 참조.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소나무, 2010, 308~313쪽.

13) 戴光宇, 「兀狄哈諸部落及其分布」, 『滿族研究』 2011-2; 董萬倫, 「明代東海骨看兀狄哈社會狀況的考察」, 『延邊大學學報』 1982-3.

오랑캐·우디거·오도리인들은 명나라와 조선의 역사서에서 비슷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동음을 다르게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¹⁵⁾ 오랑캐는 역사서에서 兀良哈·兀郎介·兀刺哈·五郎哈·吾郎改·吾郎介 등으로 표기하였고, ula(강)+ingge(~하는 사람)의 합성어로 ‘물가의(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우디거는 兀狄哈·委知介·委知哈·委狄哈·兀狄介·兀者 등으로 표기하였고, weji(금)+ingge의 합성어로 ‘숲의(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오도리는 翰朶里·翰朶憐·吾都里·翰都里·翰東 등으로 표기하였고, 송화강과 무단강이 합류하는 곳의 지명이었다.

일부 연구서에서는 이들을 모두 여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나라는 원래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부족들을 야인으로 여겼는데, 1403년 건주위(建州衛)를 설치한 다음부터 차츰 건주(◇△)·해서(□)·동해(○) 등의 지역명칭을 따서 건주여진·해서여진·동해(야인)여진 등으로 불렀다.¹⁶⁾ 하지만 명나라 중앙이 위소를 설치하고 동북지역의 부족들을 크게 세 개의 여진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모든 부족들이 자신을 ××여진이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정통연간(正統年間1436~1449)까지도 오랑캐·오도리인을 비롯한 많은 부족들이 『명실록』에 등장하고, 해서여진으로 분류되었던 부족들은 오히려 1550년대 무렵이 되면 여허·올라·하다·호이파(후룬4부)라는 명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¹⁷⁾ 한편, 조선에서는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 너머에서 생활하던 부족들을 통칭하여 야인으로 여겼다.¹⁸⁾ 명나라가 건주위를 설치한 뒤에 여진으로 분류되는 부족들이 증가하지만, 조선에서는 연산군시대(1494~1507)까지 오랑캐인 등은 여진과 분명하게 구분되어 불려졌다.¹⁹⁾

14) 刁書仁, 「論明前期翰朶里女眞與明、朝鮮的關係-兼論女眞對朝鮮向圖們江流域拓展疆域的抵制與鬭爭」, 『中國邊疆史地研究』 2002-3.

15) 오랑캐인을 비롯한 동북지역의 부족의 연원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김구진의 선구적인 다음 논문들이 훌륭한 참고가 된다. 「吾音會 翰朶里女眞에 對한 研究」, 『사충』 17, 1973; 「麗末鮮初 豆滿江 流域의 女眞 分布」, 『백산학보』 15, 1973; 「骨幹 兀狄哈 女眞 研究」, 『사충』 20, 1976; 「明代女眞社會의 經濟生活樣式과 그 變化」, 『동양사학연구』 제17집, 1982. 김구진은 우디거를 “우디캐”로 표기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원래 발음에 가깝게 우디거로 표기하였다. 또한 오랑캐인 등이 원나라 때부터 여진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후술하듯이 그들이 여진인으로 분류된 것은 명나라 永樂帝 이후의 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이 여진·오랑캐·오도리·우디거인 등을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고, 그 때문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들은 다음을 참조.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야인(여진족)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제16호, 2006 →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대출판부, 2007. 오랑캐의 어원에 대한 더 다양한 견해는 다음을 참조. 김기선, 「오랑캐의 어원과 민속학적 고찰」, 『몽골학』 제11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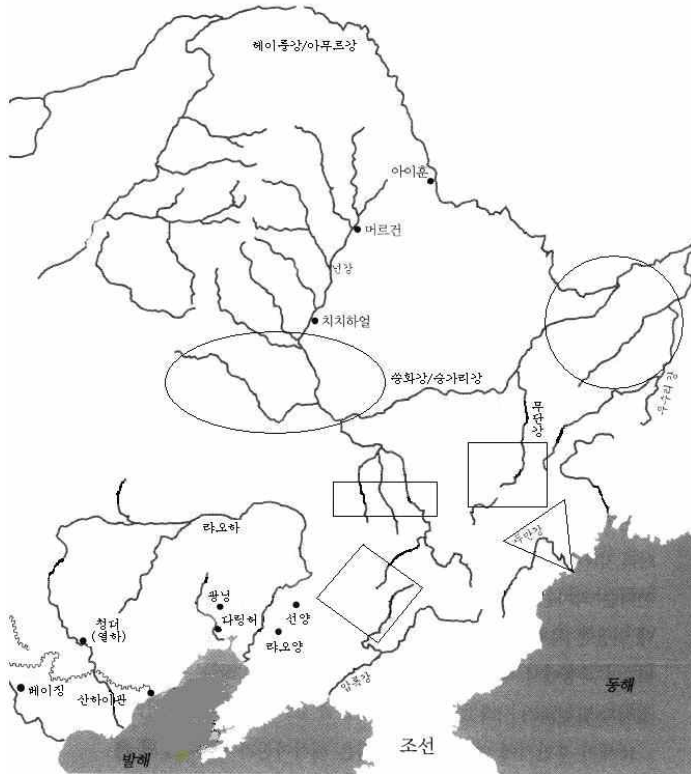
16) 建州女眞도 처음에는 건주지역에 거주하는 야인들이라는 의미에서 건주야인으로 불렸고, 海西女眞도 1441년(正統6年)에 海西野人으로 지칭한 기록이 등장한다. 孫進己, 임동석 옮김,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1992, 347~364쪽; 鄭紅英, 「試論明朝對女眞의 招撫」, 『黑龍江民族叢刊』 2010-6.

17) 海西女眞의 變遷과정은 다음을 참조. 王雪梅·翟敬源, 「海西女眞南遷的原因」, 『邊疆經濟與文化』 2011-12.

18) 『조선왕조실록』, 태종4년(1404) 12월 3일; 단종3년(1455) 3월 24일; 성종1년(1470) 1월 24일.

19) 여진·오랑캐·오도리·우디거 등이 동시에 언급되고, 각각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례는 다음을 참조.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제공), 태조4년(1395) 12월 14일; 태종3년(1403) 6월 25일; 단종3년(1455) 3월24일; 연산

지도 원말명초 여진(△)·오랑캐(○)·오도리(□)·우디거(○)의 분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여진으로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명나라와 조선의 중앙으로부터 야인으로 여겨지고 '여진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실록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2. 여진이라는 딱지

9년(1503) 9월 18일. 김주원(2006)의 지적대로 '여진의 오랑캐·오도리·우디거'와 같이 오랑캐인 등을 여진에 포함되는 관계로 번역한 것은 오류이다. 오랑캐·오도리·우디거는 각각 1533·1600·1607년에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연산군시대 이후가 되면 이들 부족의 명칭은 간헐적으로 등장할 뿐이었다. 이들 부족들은 건주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휘하에 들어가거나 조선에 귀화함에 따라 실록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건주위와 조선의 관계는 다음을 참조. 김순남, 「조선 成宗代 建州三衛」, 『대동문화연구』 제68집, 2009; 「조선 燕山君代 여진의 동향과 대책」, 『한국사연구』144, 2009.

20) 명나라가 여진을 통해 오랑캐인 등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은 다음 기사를 참조. “황제가 여진에게 칙유(勅諭)하여, 오도리(吾都里)·울량합(兀良哈)·울적합(兀狄哈) 등을 초무(招撫)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하였는데, ...,” 『조선왕조실록』, 태종3년(1403) 6월 25일. 명나라와 여진 사이의 관계를 遼東邊牆을 통해 밝히려 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남의현, 「明代 遼東邊牆의 形成과 性格」, 『中國學報』 제54집, 2006.

여진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여진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알기는 어렵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나라나 조선에서 여진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실록』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여진의 용례(用例)는 우리에게 명나라와 조선의 여진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실록의 여진 용례를 살피기 전에 실록의 시선과 관련하여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역사서의 서술에서 어휘의 선택이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왕조시대에 황제와 국왕이 죽은 다음 편찬된 사서는 그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역사서술에서 어휘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인물은 공자였다. 공자는 “자신의 관점과 저축되어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다 싶으면 개조하기조차” 하였고, 은휘(隱諱)와 포폄(褒貶)의 방법으로 저술한 『춘추』를 내놓았다.²¹⁾ 공자는 『춘추』를 통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해 춘추시대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록에 드러나는 관점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사관(史官)이 되었느냐는 문제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사관은 과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관리로서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다. 또한 사관 중에서 82%가 서울출신이었다고 이미 관료를 배출한 성씨의 가문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풍산 흥씨였던 홍리상의 자손은 17세기부터 22명의 사관을 배출했고, 반남 박씨였던 박소의 자손 가운데 26명의 사관이 나왔다.²²⁾ 특정 지역과 가문에서 대를 이어 사관을 역임하는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그만큼 사관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다.

관리로서 승진이 보장된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관도 조선과 마찬가지로였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사관은 학술·문화적 측면에 아주 높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고, 국가의 정치에도 크게 관심을 가졌으며, ‘천하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품었다.”²³⁾ 사관은 주로 고위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림원(翰林院) 출신이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과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진사(進士)들만이 한림원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조선과 명·청나라에서 사관들이 학술·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미래를 보장받는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들이 지닌 안정적인 지위는 실록의 서술이

21) 高國抗 지음, 오상훈·이개석·조병한 옮김, 『중국사학사』 상, 풀빛, 1998.

22) 원창애, 「조선시대 史官 출신 관원의 실태와 관직 승진 양상」,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1121-1136쪽. 조선시대 사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정수, 『朝鮮時代의 史官 研究』, 국학자료원, 1998.

23) 명나라의 史館은 청나라에 비해 황제로부터 덜 독립적이었고,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翰林院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예측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출신자들에게 翰林院과 관련된 기구의 경력은 관리로서 살아가는데 유리하였다. 명청시대 사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商慧明, 「明代史館考述」, 『江淮論壇』 1991-01; 謝貴安, 「明代史館探微」, 『史學史研究』 2000-02; 王記錄, 『清代史館與清代政治』, 人民出版社, 2009, 149쪽.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일관된 특징을 갖는 바탕이 되었다. 사관들은 과거시험을 통과한 핵심적인 관료예비군으로서 유교적인 도덕과 명분을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그들이 정리·편찬한 실록은 황제와 국왕의 통치행위를 유교라는 핵심적인 통치이념을 통해 설명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 배경을 지닌 사관들은 실록에서 여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명나라는 초기부터 라오둥에서 송화강과 헤이룽강에 이르는 동북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서로 구분되는 특성과 상관없이 여진이라고 하였다.²⁴⁾ 그 결과 당시 여진은 금나라와 원나라를 거치는 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같은 부류로 분류될 수 없었던 몽골계·투구스계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명나라 때 사용된 여진은 포괄적인 명칭이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여진이라는 명칭은 동북지역의 부족들마다 가지고 있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1403년 건주위의 설치를 전후한 시기 『명실록』에서 여진인(여진사람)을 의미하는 명칭에는 대체로 “야인(野人)”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이때 여진야인은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 중에서 교화(教化)되지 못한 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 예를 들어, “여진야인 두목 아하추(阿哈出)”는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 뒤에는 더 이상 여진야인인 아니라 “건주위 군민지휘사 아하추”로 불려졌다.²⁶⁾ 여진야인이라는 표현은 명나라로 귀부(歸附)하는 부족들이 가장 많았던 영락제의 통치시기(1403~1423)에 140회 등장한다. 영락제는 동북지역의 부족들을 여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회유함으로써 변경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명나라에 귀부하는 여진야인이 많아지고 조공이 빈번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진야인들이 “진공(進貢)을 명목으로 경사로 와서 종종 개인의 이익을 좇고, 농사일에 힘써야 할 시기에 군민들은 힘들고 귀찮게” 만들었던 것이다. 1439년, 정통제는 요동총병관(遼東總兵官)에게 칙서를 내려 진공의 횡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다.²⁷⁾ 그 뒤, 명나라에 귀부하는 부족들이 줄어듦에 따라 여진야인이라는 명칭도 찾기 어렵게 되었다.²⁸⁾

24) 『大明志書』(1370년)를 기본으로 하여 완성된 『大明一統志』(1458년)는 女眞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였다. “女眞은 동쪽으로는 바다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兀良哈와 맞닿고, 남쪽으로는 朝鮮과 이웃하며, 북쪽으로는 奴兒干·北海까지 이른다.”(孫進己 外, 같은 책, 157쪽, 재인용.)

25) 여진야인은 헤이룽강 남쪽과 우수리강 유역의 부족을 가리키던 野人女眞의 다른 표현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中華文史網(<http://www.historychina.net/>)이 제공하는 『明實錄』(pdf본)을 사용하였고, 해당 자료는 글자의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女眞과 관련된 활자본 기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孫文良·陸玉華 編, 『明實錄中的女眞史料選編』, 遼寧大學歷史系, 1983.

26) 『太宗實錄』 永樂元年(1403) 11月, 95면.

27) 『英宗實錄』 正統4年(1439) 8月, 227면.

28) 1426~1521년(宣德~正德年間), 『明實錄』에서 女眞野人은 27회 등장한다. 1522~1572년(嘉靖~隆慶年間)에는 보이지 않다가 1573~1620년(萬曆年間)에 2번 등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명나라가 遼東의 境外에서 명나라의 통치·관할 아래 들어오지 않고 있던 부족들을 女眞野人으로 부르고, 그들이 ‘조공을 통해 명나라의 직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야인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진야인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은 여진에 대한 명나라(사관)의 생각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1447년, 건주위·건주우위·올자위(兀者衛) 등의 도독첨사(都督僉事)들은 조공에 대한 회사품(回賜品)이 적다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예부상서는 “야인의 조공”에 대한 회사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다고 의견을 올렸고, 정통제도 원래 “외이(外夷)”에 대한 회사는 멧대로 더 주거나 덜 줄 수 없다면서 전례(典例)에 따르도록 하였다.²⁹⁾ 이 언급은 여진을 여전히 야인으로 보면서 외이에 대한 전례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후에도 여진을 이인으로 여기는 언급은 『명실록』의 조공과 관련된 기사들에서 보이고,³⁰⁾ 1522년에는 “해서의 여진이인”이나 “해서·건주의 여진이인”이라고 하여 여진과 이인이 결합된 “여진이인(夷人)”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³¹⁾ 그리고 1525년에는 “여진조공이인(朝貢夷人)”이라는 언급이 나타났고, 나중에 “조공이인”은 줄여서 “공이(貢夷)”라고도 하였다.³²⁾ 영락제 때 여진야인이 명나라에 귀부하지 않은 부족들을 일컫는 명칭이었다면, 가정제 때 등장한 여진이인이나 여진공이는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바탕을 둔 명칭이었다. 명나라의 관료들은 천조에게 조공하는 집단을 크게 둘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조선처럼 왕조체제를 가진 “속국(屬國)”이었고, 여진처럼 위소가 설치된 지역의 “이인(夷人)”이었다.³³⁾

비슷한 시기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압록강의 경계를 넘어와서 살고 있던 여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논의하는 기사가 등장한다. 1523년, 중중은 한해(旱害)가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무리이고, 자칫 “삼위(三衛, 건주삼위)의 야인들”이 조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³⁴⁾ 여진인을 하찮게 여기고 야인으로 부른 것은 조선의 관료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여진인을 나타내는 일반명사에는 야인 이외에도 “호인(胡人)·피인(彼人)·원인(遠人)·피적(彼賊)” 등이 있었고, 특정 부족명이 아니라 여진인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³⁵⁾ 이러한 호칭들은 조선도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진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록에서 여진은 조선과 명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뒤쳐진 야인과 이인을 떠올리게 하는 호칭이었다. 그렇다면 누르하치는 왜 금나라를 여진인의 나라라고 하였을까? 명나라에서 여진을 어떻

29) 『英宗實錄』 正統11年(1447) 正月, 552면.

30) 『孝宗實錄』 弘治13年(1500) 2月, 849면.

31) 『世宗實錄』 嘉靖元年(1522) 正月, 77·79면. 女眞을 夷人이라고 하는 사례는 이미 1513년에 “國初, 建州·海西의 夷人이 達賊들과 결탁하여 누차 변경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을 참조. 『武宗實錄』 正德8年(1504) 7月, 629면.

32) 『世宗實錄』 嘉靖4年(1525) 5월. 『世宗實錄』을 검색해보면, 貢夷는 일반명사로서 왕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부족과 같은 정치체제를 갖고 있던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하러온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33) 『神宗實錄』 萬曆34年(1606) 6月.

34) 『조선왕조실록』 중종18년(1523) 5월 18일.

35) 김주원(2007), 18쪽.

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갖든지, 누르하치는 과거 여진인의 자랑스러운 기억을 떠올렸고 당시 통치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은 여진이였다. 그의 머릿속에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위대한 민족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 금나라가 송의 휘종·흠종과 싸울 때 고려는 어느 쪽도 따르지 않은 공평한 나라였다.”³⁶⁾는 식으로 과거 “우리 금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금나라를 세우기 1년 전에도 “여진 나라 곳곳의 병사들은 들에서 (적을) 만나면 만나는 적을 향해 즉시 쳐서 죽이고”³⁷⁾있다면 여진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진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을까? 그에게 여진이라는 호칭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떼어버리고 싶은 일종의 딱지는 아니었을까? 이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우선 실록에 나타난 조선·금나라(청나라) 사이의 호칭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그 이름 불러주기

1. 솔호와 호로(胡虜)

홍타이지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라는 누르하치의 유훈을 따르지 않았고 한(han)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누르하치는 이인(夷人)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건주위의 지휘사를 거쳐 금나라의 한이 되었지만, 홍타이지는 버일러를 거쳐 한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고 고귀한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1627년의 전쟁을 겪고도 금나라를 온전히 대등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홍타이지의 사적을 기록한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조선을 “朝鮮”으로 기록하고 있다.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朝鮮”이라는 명칭은 만문사료와 비교하였을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문노당』에 조선의 호칭은 “솔호(Solho)”와 “초한(Coohiyan)” 두 가지로 등장한다.³⁸⁾ 홍타이

36)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滿文老檔』I, 天命4年(1619) 3월, 東洋文庫, 1963, 143쪽. 금나라(amaga asin gurun)이라는 국호는 1621년에 처음으로 『滿文老檔』에 등장한다.(같은 책, 293쪽) 누르하치시기의 『만문노당』에는 “후금”과 “금나라”의 사적을 언급하는 기록이 각각 9번과 17번 등장할 정도로 금나라가 더 많이 등장한다. 누르하치가 금나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을 참조. 高慶仁, 「1616年上尊号后努爾哈赤權名稱考辨」, 『滿族研究』 1997-01; 薛虹·劉厚生, 「『舊滿洲檔』所記大清建號前的國號」, 『社會科學輯刊』 1990-2.

37) 『滿文老檔』I, 萬曆43年(1615) 12月, 63쪽.

38) “Coohiyan”의 경우 “차오히안”으로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가능한 축약하는 것이 당시 발음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초한”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Coohiyan”을 조선이 아니라 “초한”이라고 한 것은 만주인이 조선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타이지시대의 『滿文老檔』IV-VII(1627-1636)에서 “솔호”는 76차례(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단수로 계산), “초한”은 30차례 사용되었다.

지시대의 만주인들은 “초한”보다 “솔호”라는 호칭을 더 선호하였다. 『만문노당』에는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조선에서 온 사신들의 말이나 그들이 가지고 온 국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할 때는 “초한”을 사용하지만, 자신들이 조선을 지칭할 때는 “솔호”를 사용하였다.³⁹⁾

[1628년 8월] 27일에 솔호의 사신이 도착하였다. 가지고 온 문서의 말(은 이렇다). “... , ... , 귀국의 호칭을 아이신(Aisin)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호칭을 초한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문서이든 구어이든 각각의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무지하고 천한 아랫것들이 들어서 알고 익숙해진 옛 호칭을 부르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 ...”⁴⁰⁾

[1632년] 9월 4일에 초한 나라의 왕 이종이 박난영을 파견하여 가을인사[秋禮]로 그곳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머리 조아리러[叩頭] 왔다.⁴¹⁾

[1636년 12월] 19일에 솔호의 왕경성(王京城=서울)을 포위하려 간 호쇼이 예친왕이 보낸 우르가나가 5명을 이끌고 말 올리러[上言] 이르렀다.⁴²⁾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조선을 “솔호”라고 하면서 사신이 가져온 국서의 내용을 만주어로 옮길 때는 조선을 음차하여 “초한”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초한나라의 왕”은 상대방의 국서에 “조선국왕(朝鮮國王)”이라는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홍타이지시대의 만주인들이 조선을 부를 때 “초한”보다는 “솔호”를 선호하였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인용문은 조청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기록으로 “솔호”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인용문은 조선의 국왕이 금나라가 국서를 보낼 때 “솔호”가 아니라 “초한”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금나라는 “솔호”라는 호칭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의 입장에서 “솔호”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몽고인들이 자신들을 불렀던 것으로 연속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었다. 또한 솔호라는 명칭의 존재는 만주인이 몽고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몽고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조선을 솔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반면, 만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을 자기 방식대로 대우하는 것이었다. 또한 “초한”은 조선을 명나라에서 차오센(朝鮮)이라고 부르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었다. 만주어의 발음에는 ‘조’도 ‘선’도 존재하기 때문

39)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38)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빈도를 보았을 때 “솔호”를 선호하였다.

40) 『滿文老檔』IV, 天聰2年(1628) 8월, 171-172쪽.

41) 『滿文老檔』V, 天聰6年(1632) 9월, 845쪽.

42) 『滿文老檔』VII, 崇德元年(1636) 12월, 1490쪽.

에 ‘조선(Josen)’이라고 표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호칭은 세 번째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조청전쟁 때도 바뀌지 않았다.⁴³⁾

사실, 호칭에서 느껴지는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나 멸시는 조선쪽이 더 심했다. 1595년 『왕조실록』에서 누르하치를 가리키는 노을가적(老乙加赤)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보인다. 그 뒤에 그가 거느린 세력을 지칭하는 노적(老賊)과 노적(奴賊)은 각각 1603년과 1615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⁴⁴⁾ 그런데 실록에서 노적(老賊)은 보통명사로서 오래된 도적떼라는 의미에서 조일전쟁 때 일본군을 지칭하거나 도적질을 일삼는 도적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 이외에 노호(老胡)나 노적(虜賊)도 사용되었다. 노호는 『왕조실록』에서는 1616년까지 단 네 차례만 사용되었고,⁴⁵⁾ 노적(虜賊)은 그보다는 많은 21차례 사용되었다.⁴⁶⁾ 하지만 대부분 노적(奴賊)이 사용되었고[132차례] 노적(老賊)이 혼용되는 경우[33차례]도 있었다.⁴⁷⁾

만주인과 그 나라를 부르던 명칭은 금나라(=後金)가 건국되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꾼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광해군 때는 금나라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⁴⁸⁾ 인조 때 금나라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만, 그 명칭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27년 2월 2일] 호인 심부름꾼[胡差]이 갑곶에 이르렀는데 호인의 문서[胡書]는 이랬다. “대금국(大金國) 이왕자(二王子=二貝勒 阿敏)가 조선국왕에게 답합니다. 두 나라가 화친하는 것은 둘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귀국이 진심으로 화친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남조[南朝=명나라]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우리나라가 형, 귀국이 아우가 되어야지요. 남조가 노여워하더라도 우리는 이웃나라로 서로 가까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⁴⁹⁾

43) 1637년의 만문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1636년까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조선과의 전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호칭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777년에 조선에서 출간된 『漢淸文鑑』(卷5, 28a면)에서도 “솔호”를 “초한의 사람(coohiyan i niyalma)”로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솔호”가 국호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륭시대에도 만주어에서 조선에 대한 호칭이 크게 바뀌지 않고, 초한보다는 솔호가 더 보편적이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44) 선조 36년(1603) 8월 3일; 광해 7년(1615) 8월 2일. 누르하치는 老乙加赤 이외에도 老酋·奴酋·虜酋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45) 명나라에서는 老胡가 아닌 奴胡로 불렀는데, 두 명칭은 각각 老乙加赤과 奴兒合赤의 첫 글자에 胡를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광해 4년 2월 6일의 기사에서 史官의 주석을 참조.

46) 虜賊도 老賊과 마찬가지로 다소 보통명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세조·중종·선조·경종 때도 사용되었다.

47) 명나라의 경우 『熹宗實錄』(天啓帝)에는 奴賊·奴兵, 『毅宗實錄』(崇禎帝)에는 淸兵이 사용되었는데, 후자는 청나라 때에 찬수되었기 때문이다.

48) 광해군 때 금나라라는 명칭은 송나라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등장할 뿐이다. 다음을 참조. 광해 13년(1621) 12월 26일; 광해 14년(1622) 1월 2·3일.

49) 인조 5년(1627) 2월 2일. 금나라는 누르하치 사후에 4대 버일러(貝勒)의 세력이 가장 컸는데, 그들은 대버일

앞서 홍타이지시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상대방의 국서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만 정식 국명이 등장할 뿐이다. 실록의 서술 주체인 사관은 금나라의 사신을 “호인 심부름꾼”으로 격하하고 있다.

국호만이 아니다. 청나라의 황제에 대한 호칭도 조선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바꾼 이후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대청국(大清國)”의 “황제”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은 논란 끝에 청나라로 보내는 국서에서는 “청국(淸國)”이라고 명칭을 쓰기로 하였지만, 조정의 논의과정에서는 여전히 “금(金)”이라는 국호와 “금한(金汗)”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⁵⁰⁾ “금한” 이외에 “노한(虜汗)”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⁵¹⁾ “노한”은 “노병(虜兵)·“호로(胡虜)”에서 사용된 “노(虜)”와 같이 야인·종놈이라는 의미이고, 실록에서는 청나라(금나라)·청나라 사람·청나라 군대 등을 가리킬 때 “노(虜)”나 “호(胡)” 한 글자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⁵²⁾

한편, 청나라와 조선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명나라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명나라를 어떻게 불렀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땠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주인은 명조를 명나라(ming gurun明國=ming明)·대명나라(daiming gurun大明國=daiming大明)·니칸(nikan漢) 등으로 불렀는데,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명나라이었다. 그들은 아래 사례처럼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명나라와 대등한 왕조라고 공언한 뒤에도 명나라를 대명나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1636년 11월 25일] ..., 이것을 우리들은 알고서 일곱 가지 큰 원한(을 야기한) 잘못[七大恨]을 글로 써서 하늘과 땅에 올리고 대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했기에 하늘과 땅은 우리들이 옳다고 하였다. 기미년[1619년] 대명나라가 크게 군대를 일으켜서 네 방향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을 때, 초한나라가 우리를 죽이려고 대명으로 보낸 군대도 왔다.⁵³⁾

위의 기사는 만주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기 직전에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인이 명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을 바라보는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대명나라

러 다이산·이버일러 아민·삼버일러 망굴타이·사버일러 홍타이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버일러를 왕자로 번역하였다.

50) 인조 15년(1627) 1월 2·17·18일.

51) 인조 10년(1632) 10월 30일; 인조 14년(1636) 10월 6일.

52) 광해군과 인조 시대의 실록에서 “胡·藩胡·北胡·胡人·胡兵·老胡·胡地·忽胡” 등은 모두 605번 등장한다. 이것이 모두 청나라(금나라)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명나라와 조선의 경계지역에서 노략질을 하던 집단을 경우도 있었다. “胡”가 들어간 용어는 대외관계에서 명나라를 제외한 나라에 대해 조선이 지니고 있었던 우월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53) 『滿文老檔』VII, 崇德元年(1636) 11月 25日, 1467쪽.

를 정벌하겠다.”는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선과 달리 명나라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큰[大]’ 나라였던 것이다.

‘대명나라’는 ‘여진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위소(衛所)를 설치하고 요동순무(遼東巡撫)를 통해 건주(建州)·해서(海西)·야인(野人) 여진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누르하치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더 나아가 나라를 세운 것도 일종의 반란으로 받아들였다. 『천계실록(天啓實錄)』에 등장하는 “역적 누르하치”[逆奴]·“누르하치 무리”[奴賊]·“누르하치 군대”[奴兵] 등의 표현은 모두 금나라(청나라)를 왕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호칭이었다.⁵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승정제의 사적을 기록한 『승정실록(崇禎實錄)』에 등장하는 “청병(淸兵)”이라는 호칭은 원래 건주놈[建虜]으로 되어있던 것을 청나라의 사관이 바꾸어 기록한 것이었다.⁵⁵⁾

요컨대 조청전쟁 이전의 실록에서 사용된 호칭은 조선·금나라(청나라)·명나라 등이 상대방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감정으로 대했느냐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준다. 조선과 명나라는 청나라가 과격하고 문화수준도 높지 못하며 의례(儀禮)를 모르는 여진인의 무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청나라는 명나라와 대등하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지닌 우위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대명나라라고 하였다. 반면, 자신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을 슬호나 초한이라고 낮춰 불렀다. 그렇다면 조청전쟁과 명나라의 멸망은 호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 단 하나의 천조(天朝)

홍타이지는 무력으로 몽골과 조선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한과 일곱 명의 버일러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돌보던 틀을 폐기하였다. 그는 ‘주군(ejen)’으로서 한과 ‘신하(hafan)’로서 버일러라는 새로운 틀을 만듦으로써 자신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1636년 4월 11일, 홍타이지는 만주·몽골·한인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는 의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즉위 이래 10년 동안 힘을 다하여 “조선을 정복하였고 몽골을 통합하였으며 더 나아가 옥새를 얻어서 멀리까지 강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내외의 신하들이 망령되게도 신의 공로를 받들어 함께 존호를 올림으로써 하늘의 마음에 맞추려 한다고 합니다.”⁵⁶⁾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사실 많은 경우 의례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일을 확

54) 王其渠 編, 『明實錄-鄰國朝鮮篇資料』,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內部發行), 1983, 545~578쪽.

55) 王其渠 編, 『明實錄-鄰國朝鮮篇資料』, 579~585쪽.

56) “幸賴皇穹降佑, 克興祖父基業, 征服朝鮮, 混一蒙古, 更獲玉璽, 遠拓邊疆. 今內外臣民, 謬推臣功, 合稱尊號, 以付天心.” 遼寧大學歷史系編, 『清太宗實錄稿本』, 遼寧大學出版社, 1978, 84쪽.

인식키는 절차이다. 이날의 의식도 몽골인과 한인들이 이제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조선의 인조와 신료들은 금나라에 대한 강경론을 통해 얻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홍타이지의 황제추대식에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청나라와의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조청전쟁은 표면적으로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받들 수 없다고 버티던 조선과, 대세가 기울고 있다면서 명나라를 정리하라고 압박하던 청나라 사이에 호칭을 둘러싸고 벌어진 무력충돌이었다.⁵⁷⁾ 조선은 자국이 야인으로 여기면서 무시하던 자들과 형제관계를 맺은 것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받드는 것은 재조지은을 배운 명나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결국 홍타이지는 인조에게 최후통첩을 하였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제들을 인질로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월모시(某月某時)에 군대를 일으켜 너희 국경으로 갈 것이고, 그 때는 후회해도 어찌 할 수 있겠느냐?”⁵⁸⁾

홍타이지가 최후통첩을 한 이후부터 군대를 움직이기 직전인 10월까지 『만문노당』에는 더 이상 “초한”이라는 국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국명을 써야 할 경우에도 모두 “솔호”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⁵⁹⁾ 한편, 같은 시기 『조선왕조실록』에는 “노적(奴賊)”, “금로[金虜]”, “노한[虜汗]”⁶⁰⁾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조선은 과거 야인들로 여겼던 자들을 멸시하던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었고,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조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좀 달라졌다. 청나라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시 “초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노적”이나 “금로”처럼 상대방을 멸시하는 호칭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호칭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청나라에게 “초한”은 “초한 나라”, 즉 조선국으로 황제의 나라가 제후국을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황제의 나라로서 권위를 잃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은 청나라라고 부르는 순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고, 황제의 나라로서 예우하는 것이 되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전쟁은 인조가 홍타이지 앞에 세 번 무릎을 꿇었고 한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세 번씩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의례로 마무리되었다. 『인조실록』은 그 날의 상황에 대해 인조가 성을 내려가는데 “청나라 군사 수백기가” 맞이하였고, 삼전도에서 “한

57) 조청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와 이해는 다음 글을 참조. 송미령, 『天聰年間(1627~1636) 支配체제의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中國史研究』 第54輯, 2008, 161~163쪽;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1636년 조청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비롯한 사신파견·호칭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영옥, 『조청관계에서 대한 편의적 이해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제35호, 2012.

58) 遼寧大學歷史系編, 같은 책, 21~22쪽.

59) 『滿文老檔』VI, 1140·1158쪽; 『滿文老檔』VII, 1246·1281·1362쪽. 통역관들도 “솔호로부터 바이미(拜米)라는 관리가 15명의 사람을 이끌고 솔호 왕의 서신을 올리고 고두하러 왔다”(1362쪽)고 기록하였다.

60) 인조 14(1636) 5월 26일; 8월 14일; 10월 6일.

(汗)”에게 의례를 갖추었다고 기록하였다.⁶¹⁾ 이 기록은 모순적이다. 금나라가 아닌 청나라라고 하면서도 황제가 아닌 “한”에게 의례를 갖추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인조실록』이 1653년에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나라가 이미 중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뒤에도 사관들에게 홍타이지는 황제가 아닌 “한”이었다.

사실 조선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명나라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1643년, 홍타이지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조선에 직접 사람을 보내 왕과 신료들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너희가 아마도 천시(天時)를 헤아리지 못하여 명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⁶²⁾ 조선이 청나라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명칭에서도 보인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부터 1831년까지 『조선왕조실록』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107차례에 걸쳐 “호란(胡亂)”이라고 하였다.⁶³⁾ 호란은 ‘호인(胡人)이 일으킨 난리’나 ‘호로(胡虜)가 일으킨 난리’라는 의미였을 것인데,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생각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호인은 북방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가리키는 호칭이었고, 호로는 왜로(倭虜, 왜놈)처럼 멸시하는 의도를 지닌 호칭이었다. 호인이 북방 이민족을 머리에 떠올리고 호불호를 판단하는 용어라면, 호로는 그 자체가 멸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호인은 1507년 이후에 여진인·오랑캐인·오도리인·우디거인 등 북방이민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다.⁶⁴⁾ 우리는 조청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인들이 잔학무도한 행위를 하던 호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반감도 심해졌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이미 성종연간(1470~1494)부터 오랑캐인의 춤추는 모양이 마치 개들과 같으면서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또한 호인들 중에서 “오륜도 모르고 인도(人道)도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랑캐라고 하였다.”⁶⁵⁾ 이러한 상황들은 호인과 오랑캐가 서로 동일시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청전쟁을 배경으로 한 조선후기 소설 『박씨전』·『임장군전』에서 “호인”이나 “호병”은 “오랑캐”나 “오랑개놈” 등과 혼용되었다.⁶⁶⁾ 오랑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산군시대(1494~1506)까지 994회나 등장하였다가 거의 사라졌는데, 조선후기의 소설에서 청나라사람이나 병사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었다.⁶⁷⁾

61) 인조 15년(1637) 1월 30일.

62) 王其渠 編, 『淸實錄-鄰國朝鮮篇資料』,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內部發行), 1987, 187쪽.

63) 인조 16년(1638) 3월 8일 ~ 순조 31년(1831) 9월 1일.

64) 호인은 중종연간(1507~1544) 이후에 여진을 대체한 호칭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호인은 모두 582회 등장하는데, 중종 이전에는 단 28회에 불과하다. 여진은 모두 401회 중 79회만 중종 이후에 사용되었다.

65) 李圭景, 「兀良哈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文化社, 1959, 977~978면. 오랑캐인들을 멸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兀良哈대신에 아예 五囊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개호로세끼라는 육은 ‘개+호로(胡虜, 胡來, 胡奴)+새끼’로 개와 호로를 동일시함으로써 호로를 멸시하는 것에 어원을 두고 있다.

66) 김기현 역주, 『박씨전/임장군전/배시황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36~217, 222~293쪽.

67) 현재 우리말에서 오랑캐는 만주인뿐만 아니라 문명이 뒤떨어진 이민족을 통칭하는 보통명사로서 그 사용범

반면,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존대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7년 전쟁을 겪은 뒤에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서 높이 받들었다.⁶⁸⁾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은 명나라를 명(明)·대명(大明)·천조(天朝) 등으로 불렀는데, 선조시대 이전에는 단 33차례만 명나라를 천조(天朝)라고 하였다. 하지만 선조시대 이후에는 영조시대 이전까지 302차례에 걸쳐 천조라고 하여 명나라를 우러르는 경향이 심해졌다. 그리고 영조시대 이후에도 조선에서 천조는 청나라보다는 명나라 혹은 중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⁶⁹⁾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을 했지만 마음속에 있던 단 하나의 천조는 명나라였다.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대신에 책봉을 받는 왕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왕을 책봉하는 나라가 과거에 군대를 이끌고 조공체제를 관철시켰던 일을 난리로 폄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사행을 보내 현실에서는 청나라를 받들면서도 머리로는 명나라를 잊지 않으려 했는데, 행동과 생각 사이의 모순은 1704년에 정점으로 치달았다.

1704년 1월 10일, 숙종은 여러 신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명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내렸고, 왜인들이 침략하였을 때는 군대를 보내서 “우리 동방을 재조(再造)하였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명나라가 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⁷⁰⁾ 3월 7일, 숙종은 정식으로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묘(廟)를 세우는 일을 논의하도록 명하였다.⁷¹⁾ 12월 21일, 일본과의 전쟁 때 군대를 보내준 신증에게 ‘크게 보답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한 대보단(大報壇)이 완공되었다.⁷²⁾ 명나라를 잊지 않으려는 조선 조정의 움직임은 청나라의 입장에서 분명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일은 적어도 청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 대보단의 설립에 관한 일을 기밀에 부쳐져서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행인의 눈의 피하기 위해 설치장소로 선택된 창경궁 금원(禁苑)의 담장은 더 높아졌으며, 묘(廟)가 아닌 단을 세움으로써 만일의 경우 통상적인 제례라고 둘러댈 수 있게 하였다.⁷³⁾ 『청실록』에는 대보단의 설치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없는 것을 보면 기밀은 잘 유지

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68) 조선은 중종 이후 “명을 실제로 부모의 나라로 인식하는 표현이 조정의 일반적인 논의 중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의 전쟁을 겪고 난 뒤에는 “재조지은”을 베푼 명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조선의 조정과 관료들의 의식은 다음을 참조.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144~145쪽.

69) 본문에서 제시한 횡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록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영조시대 “天朝”의 용례는 영조 19년(1743) 2월 22일의 기사를 참조. 1743년, 영조는 고인이 된 송도남의 관직을 높이고 시호를 내렸다. 그 이유는 송도남이 “정묘년 호란”을 당하였을 때 “(胡)虜”에게 “和約을 저버리고 來侵한 죄를 날 날이 꼬고, 우리나라가 天朝의 大義를 저버릴 수 없음” 말하였고, 성이 함락되자 자결한 기개를 추도하기 위해서였다.

70) 숙종 30년(1704) 1월 10일.

71) 숙종 30년(1704) 3월 7일.

72) 숙종 30년(1705) 12월 21일. 대보단의 제례는 왕이 직접 주관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단될 때까지 180년 동안 이어졌다.

73) 대보단의 설치경과와 그 함의는 다음을 참고.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몇 년 뒤인 1706년 강희제는 조선이 청나라를 받드는 태도를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홍타이지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의 곳곳을 빠짐없이 정복하였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전처럼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태종 문황제가 주둔하였던 곳에 비석을 세워서 갱생(更生)하여준 덕행을 기록함으로써 누대에 걸쳐 감사하고 받들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만족스러워하였다.⁷⁴⁾

조선에서는 대보단이 세워지고 명나라를 대신하여 중화의 적통을 이으려 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조선의 조공사행이 보이는 예의바른 태도를 진심어린 복종의 표시라고 여겼다. 압도적인 무력인 가진 서구열강이 등장하기 전까지, 조선의 평화는 청나라가 원하는 그 이름 불러주고 의례를 갖추으로써 유지되고 있었다.

IV. 맺음말

지난 세기에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호칭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남한·북한·중국·타이완, 북한⁷⁵⁾에서 사용하는 북조선·남조선·중국·타이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조선·타이완, 일본이 사용하는 한국·조선·중국·타이완 등은 모두 각 나라가 상대국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호칭뿐만 아니라 과거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그것도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며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만주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주인’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명나라에 의해 여진으로 규정되었다. 명나라의 영락제는 동북지역을 관할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그곳에 위소를 설치하고, 건주·해서·야인여진 등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진으로 규정된 모든 부족들은 자신의 부족명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랑캐·오도리·우디거 등은 상당히 오랫동안 자신의 부족명을 지켰고, 해서여진의 경우에는 1550년대부터 여허·올라·하다·호이파 등의 명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명실록』에서 여진인은 문화적으로 뒤쳐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야인, 조공을 바치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이인(夷人) 혹은 공이(貢夷)로 기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야인을 비롯하여 호인(胡人)·피인(彼人) 등을 사용하여 여진인을 지칭하였다. 명나라든 조선이든 여진을 낮춰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누르하치는 자신이 여진인의 후예

74) 강희 45년(1706) 10월 13일. 이 기록은 다음을 참조. 王其渠 編, 앞의 책, 249쪽.

75)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혹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하는 것도 호칭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용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부족들을 통합하였고, 금나라를 건국하였다. 하지만 홍타이지에게 여진은 떼어내야 할 거추장스런 딱지였다. 그는 한(han)이 중심이 된 권력구조를 만들었고, 여진이라는 호칭을 부정하였으며, 청나라의 황제가 되었다.

조선의 인조와 신료들은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이름 불러주기를 거부하였다. 홍타이지는 솔호(=조선)에게 자신을 황제로서 예우하지 않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명나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호로(=청나라)의 불경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인조는 홍타이지에게 황제의 예를 갖추었고, 청나라는 조선이 때가 되면 조공해야 하는 황제의 나라가 되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황제의 나라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입관 전까지 명나라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정세를 관망하였고, 1653년에 편찬된 『인조실록』에서도 청나라와의 전쟁은 호로가 일으킨 난리로 기록하였다. 더 나아가 1704년에는 명나라의 멸망 60주기를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중화의 적통을 잇기 위하여 대보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대보단은 비밀리에 축조되었고 제사도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올렸기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조선은 명나라를 여전히 단 하나의 천조로 받들고 있었고, 청나라는 조선이 정기적으로 보내던 조공사절의 예절바른 태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호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얽매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세기 이념에 얽매어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폄훼하였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가 끝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고, 그가 원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김선민 (고려대)

I. 머리말
II. 일본 제국주의와 만선사
1. “동양사”의 등장
2. “만선사”와 일본 만주학
III. 중국 민족주의와 만주학
1. “중국”의 등장과 滿學
2. 만학과 청사공정
IV. 맺음말: 변경사로서의 만주학

I. 머리말

최근 몇 년간 한국 역사학계 전반에서 만주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만주족이 건설한 청제국의 역사,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기록들, 그리고 그들이 현재의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에 남긴 유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으로 미국학계의 “신청사” 연구성과가 국내에 다수 소개된 점, 중국학계의 “동북공정” 및 “청사공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현재 중국의 팽창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족, 청대사, 현재의 중국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정치적 관심은 이제 만주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만주족과 만주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만주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만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적인 만주학 연구자들이 설명하는 만주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은 만주학의 정의가 간단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해왔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만주학은 만주어 연구에만 국한될

수도 없고, 청사와 완전히 일치시킬 수도 없다. 동시에 20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만주족의 종족의식, 현대 시베족의 시가와 민요, 혹은 중국고전의 만주어 번역서까지를 모두 만주학의 범위에 넣을 수도 없다. 그가 제시한 만주학의 정의는 “과거와 현재에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 가진 언어, 역사, 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만주어나 다른 언어로 쓰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¹⁾

일본의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는 일본학계의 “滿洲史”를 정의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만주족과 관련된 연구는 청조사, 청대사, 명청사, 만주사, 만주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 지리공간으로서 만주를 무대로 하여 그곳에서 전개된 역사를 다루는 “만주지역사,” 둘째, 여진의 금, 원·명 이래 여진족-만주족의 역사를 다루는 “여진-만주민족사” 및 부여·말갈에서 만주족까지 통구스계열의 여러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滿族史,” 셋째, 만주어로 기록된 역사 혹은 그 기록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²⁾ 이 가운데 세 번째 부류가 엘리엇이 정의하는 만주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趙志强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北京市 社會科學院 滿學研究所가 세계 “滿學”의 중심임을 자임하지만 만주학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가 쓴 “중국의 만주학 연구 근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국학계에서 통용되는 만주학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만주어 및 만주어 문헌자료, 만주족의 역사 및 청대 제도사, 내몽고와 만주지역, 만주족 작가 및 민간문학, 만주족의 풍속·결혼관습·복식·건축, 만주족의 샤머니즘, 팔기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³⁾

한국의 만주학은 주로 만주어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만주학의 전통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고동호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만주어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사역원에서의 연구와 1950년대 이후의 연구로 나누어지며, 1950년대 이후의 연구는 다시 사역원 청학서에 대한 연구와 청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헌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⁴⁾ 한편 홍성구는 한국 만주학의 전통을 조선시대 사상계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17세기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

1) 마크 엘리엇, 「중심으로서의 주변: 만주학의 미래를 위한 서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초청강연, 2010년 8월 23일.

2)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化研究』 10 (2008년), pp. 348-349. 스기야마에 따르면 만주지역사와 여진-만주민족사 연구는 서로 중첩되는 면이 많다. 금대 여진족의 역사는 청과 연결되는 여진민족사가 아니라 요·금·원의 역사에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청의 입관 이후 역사는 만주족보다는 왕조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주족의 입관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3) 趙志强, 「중국의 만주학 연구 현황과 평가」,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2011년 4월 15일.

4) 고동호,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2011년 4월 15일.

국제질서의 변동을 경험하며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독자적인 만주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許穆과 丁若鏞 등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 즉 夷狄에 대한 관심을 분리시키는 독특한 이분법적 시각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적 만주학’의 초기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⁵⁾

만주학에 대한 접근방식이 학자들마다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만주학 연구가 각각의 지역과 시기에 따라, 특히 연구주체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바라본 만주 황실의 모습,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자가 파악하는 청과 만주의 위치, 중국의 민족주의 지식인이 바라본 만주족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조선시대 지식인이 생각하는 만주와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쌓아온 만주학 연구의 역사와 발전과정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연구 주체에 따라 혹자는 만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기도 하고, 혹자는 지역으로서의 만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⁶⁾

그러나 20세기 이르러 동아시아에서 만주학이 하나의 근대적 학문 분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프라센짓 두아라(Prasenjit Duara)가 지적하듯이 20세기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지역적 유통과 확산의 과정은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가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에 끼친 영향을 통해 확인된다. 일본에 대한 저항이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촉발시킨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에 의해 증개된 담론이나 관행이 유통되면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민족에 대한 관념과 어휘가 메이지 시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후 중국이나 한국에 재수입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동아시아 삼국에서 발전한 민족사는 모두 “민족적 주체의 단선적 진보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지역적 유통과 확산을 잘 보여주고 있다.⁷⁾ 일본, 중국, 한국의 근대적 역사학이 모두 같은 프레임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발전한 만주학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연구주체의 구체적인 관심 대상은 달랐지만, 그들의 시각은 매우 유사했던 것이다.

20세기 동아시아 만주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만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는 “사람”보다 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만주였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주학의 연구 대상

5) 홍성구,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역사와 담론』 55집 (2010), 210쪽.
 6) 2010년 8월 24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 청대사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크 엘리엇은 한국의 만주학이 만약 “사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설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국 연구자들은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만주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 프라센짓 두아라, 「민족의 지구적, 지역적 구성: 동아시아로부터의 관점」, 심재훈 엮음,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 민족사와 고대 중국 연구 자료 성찰』 (서울: 푸른역사, 2012년), 29-41쪽.

지역을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하나의 지역은 “마치 현실적인 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자의적으로 묶어 어떤 인위적인 구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⁸⁾ 다시 말해 하나의 지역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설명하듯이, 지역개념의 정치성은 동아시아의 만주학이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20세기 초 대외팽창의 과정에서 일본은 “滿韓”·“滿鮮”·“滿蒙” 등 다양한 지역개념을 만들어냈다. 1905년 이전에 일본에서 등장한 “만한”과 “만선”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주에 진출한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당시 일본의 정치적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910년에 이르러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만선”에서 탈락하고 일본으로 흡수되면서 “만선”은 점차 의미가 약해진 반면, 내몽골 진출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새롭게 “만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⁹⁾

지역개념의 정치성은 20세기 초 중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동북” 개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1932년 傅斯年은 그의 저서 『東北史綱』의 앞에 붙인 「본서가 ‘만주’가 아니라 ‘동북’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의 의의에 대하여」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 이 지역은 “중국의 동북,” 줄여서 “동북”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여 만주는 “중국의 영토”이며 “근대의 동북”으로 새롭게 재발견된 것이다.¹⁰⁾ “만선”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지역개념이라면 “동북”은 중국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만선”과 “동북”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일본 만주학과 21세기 중국의 만학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본고는 일본과 중국에서 만주학의 발전과정과 그 시대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만주학에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만주학은 19세기 말 유럽의 근대적 학문체제가 일본에 유입된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적 일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동양”과 “동양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조선과 만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면서 일본 만주학의 기원인

-
- 8) 矢野龍, 『冷戦と東南アジア』 (東京: 中央公論社, 1986); 나카미 다츠오(中見立夫), 김준영 역,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집 (2009년), 205쪽에서 재인용.
- 9)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만선”은 실제로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러시아가 장악한 북만주를 제외하고 남만주와 조선, 즉 일본의 세력권을 가리켰다. 1920년대의 “만몽” 역시 만주와 몽고 전역이 아니라 당시 일본이 장악한 남만주와 내몽골 동부만을 가리켰다. 한편 “만선”과 “만몽”에 뒤이어 “몽강”과 “동아”가 등장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화북지방과 내몽골 서부로 확장되면서 이번에는 “몽강”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 이후 일본의 침략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만주국, 중국 전체를 포괄하는 “동아”가 등장했고, 일본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면서 “동아”는 “대동아”로 확장되었다. 中見立夫, 「地域概念の政治性」, 『アジアから考える-交錯する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나카미 다츠오(中見立夫), 김준영 역,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집 (2009년)].
- 10) 성근제, 「‘東北’인가, ‘滿洲’인가 - 근대 동북 지역연구과제 설정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56호 (2011), 130쪽, 140쪽.

“만선사”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만주족과 청에 대한 비판과 계승을 통해 근대를 모색해왔다. 본고에서는 19세기 말에는 만주족과 청으로부터 “중국”을 분리시켰던 중국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가 21세기에 이르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청제국을 다시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만학은 오늘날 중국에서 청대사가 새롭게 해석되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음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일본의 “만선”과 “만몽” 개념의 형성과정과 일본 만주학의 발전과정과 일치했으며, 중국의 “동북”의 등장과정 역시 오늘날 중국의 만주학 속에서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지역개념의 정치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진행될 만주학이 “요동”과 “만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김한규의 “요동사”와 그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고, 한국의 “요동사”를 변경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만주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타진하고자 한다. 만주지역과 만주족이 지닌 변경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변경·국경지대·국경의 특징과 변화, 제국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만주족의 위치, 또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 등 다양한 주제를 만주학의 영역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일본 제국주의와 만선사

1. “동양사”의 등장

일본의 만주학¹¹⁾ 연구의 역사는 19세기 말에 등장한 “동양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일본의 근대적 학문체계는 메이지 유신 이후 유럽의 학문을 부분적·선택적으로 수입하면서 수립되어 갔다. 당시 유럽의 고등연구기관에서 역사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유럽의 역사에 국한되었고 아시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 아시아 연구, 즉 “동양학”(Oriental Studies)은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과 고증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 민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1877년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동경대학이 창설되었을 당시에 사학과 개설 교과목에는 유럽사만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사는 和漢文學科에서 가르쳤다. 처음 사학과는 교수

11) 쿠스노키 요시미치(楠木賢道)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는 滿學 혹은 滿洲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만문 사료를 이용한 역사·언어·문학연구가 만주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학·인류학과 일찍부터 방법론적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楠木賢道, 「일본에서 만학연구의 전통과 현황」,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2011년 4월 15일. 그러나 본고에서 앞으로 설명하듯이, 이러한 구분이 처음부터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고 일본의 동양사 연구가 발전하면서 점차 분화되어 간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만문 사료를 이용한 역사연구”와 “만주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학 연구”를 모두 총칭하여 “일본의 만주학”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를 초빙하지 못하여 폐지되었다가 1887년 독일인 루드비히 리스 (Ludwig Riess)가 부임하면서 부활되었다. 이후 1889년 국사학과가 신설되어 일본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근대적 대학제도에서는 유럽사를 가르치는 사학과에 대응하여 국사학과가 설치되었던 것이다.¹²⁾

한편 和漢文學科는 和文學科와 漢文學科로 분리되었다가, 국사학과가 설치되면서 화문학과는 국문과로, 한문학과는 한학과로 개칭되었다. 일본의 한학과와 유럽의 동양학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유럽의 동양학이 산스크리트어와 인도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일본의 한학과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금의 한자문화권을 대상으로 했다. 1904년에 이르러 동경대학 문학부가 철학, 사학, 문학으로 삼분되면서 중국철학, 중국역사, 한문을 가르치던 기존의 한학과는 지나철학과, 지나사학과, 지나문학과로 나뉘었다. 지나사학과가 동양사학과로 개칭된 것은 1909-1910년이었지만, “동양사”라는 개념은 이미 1890년대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당시 동양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 각국의 治亂興亡의 대세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본사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¹³⁾

스테판 타나카(Stefan Tanaka)에 따르면 일본에서 “동양사”의 등장은 19세기 말 일본의 자아인식, 특히 세계 속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동양”이라는 개념과 관점의 등장은 메이지 시기 일본의 역사연구자들이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이라는 지리적·문화적 구분을 수용하고 더욱 강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나아가 동양에서 일본을 분리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일본을 “서양”인 유럽과 대등하게 설정하고 동시에 “동양”의 중국과 일본을 차별화시킨다. “동양”에 속한 중국과 분리됨으로써 일본은 문화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중국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양으로서 유럽은 일본의 타자가 되고 또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상인 반면, 중국(지나)은 대상화된 또 다른 타자로서 일본이 발전해온 시간과 공간을 대변하는 존재였다.”¹⁴⁾ 일본에서 동양사의 등장은 처음부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서양과 동양, 일본과 아시아 이웃과의 위계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후의 발전과정 역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일본의 동양사를 학계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34)이었다. 동경제국대학 사학과와 제1회 졸업생인 시라토리는 1890년 학습원에 교수로 부임하여 “동양 각국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

12) 나카미 타쓰오(中見立夫), 『日本的「東洋學」の形成と構圖』, 岸本美緒 編, 『「帝國」日本の學知』, 제3권, 『東洋學の磁場』(東京: 岩波書店, 2006), pp. 17-19. 1889년에는 또한 사학회가 설립되고 기관지인 『史學會雜誌』가 발간되었는데, 1892년에 『史學雜誌』로 개칭되었다.

13) 中見立夫, 앞의 논문(2006), pp. 26-27.

14)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2-13 [스테판 타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31-32쪽].

었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 관련 문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는 대개 일본의 고대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고대사 연구가 주류였고, 시라토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1901년부터 2년반 동안 시라토리는 독일과 헝가리에 유학하여 현지의 동양학을 직접 접하게 되었다. 유럽유학의 경험은 시라토리의 동양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그가 쓴 「유럽유학중의 소감(歐洲留學中の所感)」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들은 동양의 것을 연구할 때 먼저 구미 동양학자의 성과를 배우고 그것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되었다. 동양인이 동양의 것을 알기 위해 서양인에게 배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으로서 아무래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양의 것을 서양인에게 배우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동양의 것을 서양인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¹⁵⁾

1903년 시라토리가 유럽에서 귀국했을 때 일본 동양사 연구의 주요 관심은 이미 조선을 벗어나고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조선에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중국 본토 및 만주지역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라 동양사 연구자들의 관심도 조선에서 만주지방, 중국, 몽골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시라토리 역시 장차 만주와 한반도가 일본의 세력권이 될 것을 예견하고 이 지역의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동양사 연구는 동양인이 솔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서양인들이 동양사 연구의 대부분을 이미 선점하여 일본인이 새롭게 시작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통탄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한 가지 남겨진 부분이 있다. 그것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전쟁의 동기가 형성된 곳,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세력 하에 귀속되어야 할 곳인 滿韓지방이다.”¹⁶⁾ 시라토리에게 만주와 한반도 연구는 일본의 동양사가 서양의 동양학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연구는 조선 고대사에서 점차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역사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일본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와 중앙유라시아 전역의 고대사를 포괄하는 이른바 “시라토리 역사학(白鳥史學)”을 구축했다. 이와 동시에 시라토리는 동양사 연구자의 조직화, 연구기관의 설립 및 기초자료의 축적에 주력했다. 1905년 그가 설립한 亞細亞學會는 2년 후 東洋協會와 통합되었고, 1909년에 창간한 학회지 『東洋協會調査部學術報告』는 1911년 『東洋學報』로 개칭되어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동양학 연구잡지로 이어지고 있다.¹⁷⁾

일본 만주학의 역사에서 시라토리의 위상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장춘 이남의 동청철도와 부속 이권을 양도받고, 이를 바탕으로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공식적

15) 中見立夫, 「日本の東洋史學黎明期における史料への探求」,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清朝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2), pp. 114-115.

16) 白鳥庫吉, 「後藤伯の學問上の功績」, 『白鳥庫吉全集』10卷(東京: 岩波書店, 1970); 寺内威太郎, 「『滿鮮史』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そのまなざしか残したもの』(東京: 刀水書房, 2004), p. 28에서 재인용.

17) 中見立夫, 앞의 논문(2006), pp. 27-37.

인 설립목표는 철도와 부속지의 탄광을 경영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역할은 만주에서 각종 식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대만 총독부에서 민정국장을 역임하면서 토지조사사업, 타이페이 도시건설, 화폐정리 사업, 항만 건설, 제당업 정책 확립 등 일본의 대만 식민통치의 기초를 구축한 인물이었다. 그는 독일 유학에서 얻은 의학적 지식과 대만 통치의 경험을 결합하여 “文裝的武備”라는 만주 경영 정책을 발전시켰다. 이는 文事, 즉 학문적·예술적 시설로 장래의 침략에 대비하되, 일단 급한 일이 있으면 군사적 행동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무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 위생, 학술이라는 넓은 의미의 문사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文事”의 핵심은 과학적 조사활동이었다. 고토는 식민지경영에 있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모방하여 면밀하게 현지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서서히 간접적으로 일본 식민지정책을 침투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¹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총재인 고토의 이러한 식민지 경영철학은 동경대학 사학과 교수가 된 시라토리의 역사의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고토는 “동양에 대한 일본의 특수한 운명과 동양인들을 향한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 식민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라토리 역시 일본이 정확한 지리적·역사적 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고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역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고토는 시라토리의 요청에 따라 190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동경 지부에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을 설치했다.¹⁹⁾ 이 조사실의 목적에 대해 시라토리는 “러시아 전쟁에 따라 남만주의 경제적 경영을 우리 국민이 착수하게 되었고 조선에 대해서 보호와 개발의 임부가 우리에게 떨어진 시점에서 우리들은 학술적으로 만한지방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임무가 생겼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만한경영에 관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순전히 학술적인 견지에서 본 것이다. 현재의 제반 사업이 확실한 학술적인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니, 만한의 경영은 더욱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는 조선과 만주지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손을 잡은 것이었다.²⁰⁾

18) 고바야시 히데오 저, 임성모 역,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서울: 산치림, 2004), 47-49쪽.

19)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연구를 세 곳의 지부에서 실시했는데, 역사연구와 당대조사로 구분하고 “지구적 관점에서 정치적·경제적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07년 4월에 세워진 대련 본부에는 舊慣調査班, 경제조사반, 러시아조사반이 설치되었다. 1908년 1월에는 동경지부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를 세우고 시라토리가 주임이 되었다. 1908년 11월에 설립된 동아경제조사부는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및 만주와 몽고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 보고함”을 목표로 했다. 초기에는 경제조사와 같은 “현실적인” 조사보다는 역사, 민속, 지리조사가 훨씬 강조되었다.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241-243.

20)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 29.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지리조사실은 일본 만주학 연구자의 산실이었다. 주임인 시라토리 외에 야나이 와타리(箭内互, 1875-1926), 마츠이 히토시(松井等, 1877-193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와다 세이(和田清, 1890-1963)이 만주를 담당하고,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1878-1952),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 세노 우마쿠마(瀬野馬熊, 1874-1934)가 조선 연구에 참가했다. 역사조사실은 회사의 규칙에 따르지도 않고 사원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회사 내부에서도 특이한 조직이었다. 이는 고토의 개인적 후원에 의해 조사실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1915년 폐지되어 동경대학으로 인계되었다. 조사실의 성과는 『滿洲歷史地理』 2권 (1913년), 『朝鮮歷史地理』 2권(1913년)으로 발행되었고, 동경대학으로 이전된 후에는 1915-1941년에 걸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책이 발행되었다. 이후 야나이 와타리, 이케우치 히로시, 와다 세이 세 사람은 동경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쓰다 소키치는 와세다대학 교수, 마츠이 히토시는 국학원대학교수, 이나바 이와키치와 세노 우마쿠마 두 사람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편수관이 되었다.²¹⁾ 이들 대부분이 일본의 “滿鮮史”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2. “만선사”와 일본 만주학

러일전쟁은 일본 만주학 연구의 중요한 두 인물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시라토리가 러일전쟁의 산물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지리조사실을 통해 만주학 연구의 제도화라는 기회를 얻었다면, 나이토 고난(内藤湖南, 1866-1934)은 전쟁 후 일본이 점령하게 된 심양을 방문하여 청대 만문사료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었다. 나이토는 시라토리와 달리 전문적인 연구자의 훈련을 받지 않았고, 오사카 朝日新聞에서 중국문제에 관한 논설을 담당한 저널리스트 출신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심양(봉천)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나이토는 일본 외무성의 촉탁으로 “만주에서 우리[일본]군 점령지의 행정지를 조사”할 목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심양을 방문했다. 그는 심양소재 문헌과 사료 가운데 특히 청조사, 혹은 만주와 몽골사 관련 사료에 주목하였다. 당시 나이토는 이미 『盛京典制備考』, 『盛京通鑑』 등을 통해 심양소재 문헌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문을 독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5년 방문에서 나이토는 翔鳳閣의 『蒙古原流』를 촬영하고, 崇謨閣의 『滿文老檔』과 翔鳳閣의 『五體清文鑒』의 소재를 발견했다. 나이토는 1907년 京都帝國大學의 동양사학과로 부임한 후 1912년 다시 심양을 방문하여 『滿文老檔』과 『五體清文鑒』을 촬영해 왔다.²²⁾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심양방문에서 나이토가 수집한 각종 자료는 이후 일본의

21) 中見立夫, 앞의 논문(2006), pp. 37-38.

22) 나이토의 심양고궁 사료 수집과정과 의의에 대해서는 中見立夫, 『日本の東洋史學黎明期における史料への探

만주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스키야마가 지적하듯이 만문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청을 만주왕조로 파악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만주사와 청조사 연구 경향은 나이토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그러나 나이토가 일본 만주학에 남긴 영향은 만문 사료의 활용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시라토리과 마찬가지로 나이토 역시 일본의 만주진출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天職은 정치적·경제적으로는 대륙에 진출하고 아시아를 경영하는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동서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동방학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진출은 중국의 경제를 개혁하고 동시에 새로운 동양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길이었다. 테라우치 이타로가 지적하듯이 “나이토의 학문적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일본의 대륙침략을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사학연구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²⁴⁾

일본의 만주학 연구에 대한 시라토리와 나이토의 영향은 이나바 이와키치로 대표되는 “만선사”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나이토와 마찬가지로 이나바 역시 주류 학계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1900년부터 2년간 중국에 유학하면서 당시 청이 직면하고 있던 열강의 위협을 직접 목격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육군통역에 지원하여 종군했고, 이 때 누르하치 조상의 능과 청조의 발상지를 답사했다. 귀국 후 이나바는 1907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역사지리조사실이 설치되자 여기에 합류했다. 1908년부터 1914년까지 만선지리역사조사실에서 만주의 역사지리서를 편찬할 때 이나바는 漢代, 明代, 淸 초기의 만주를 담당했고, 그 성과는 『滿洲歷史地理』 2권에 수록되었다. 1914년 조사실이 폐지된 후에는 육군대학교 교관을 역임하며 중국근대사를 강의했고, 1922년 나이토의 추천으로 조선총독부에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했다. 1925년에는 편찬위원회가 조선사편수회가 되어 조선총독부수사관에 임명되었다. 시라토리의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 참여하면서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 나이토의 학풍이 일생이 지침이 되었음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이나바는 일본 만주학의 전통을 가장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보인다.²⁵⁾

이나바에 따르면 만주와 조선은 일체이며 불가분이었다. 1922년에 발표한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에서 그는 조선과 만주의 일체적 성격을 세 가지로 논증한다. 첫째, 조선의 왕통은 대부분 만주계이며, 가끔 중국계와 혼합된 경우도 있지만 조선인으로 왕이 된 자는 없다. 또한 이른바 “半島의 조건”으로 인해 조선의 역사는 자주적 역량이 아니라 대륙으로부터의 외압에 의해

求,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淸朝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2), pp. 105-114에 자세하다.

23) 杉山淸彦,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化研究』 10 (2008年), pp. 350-351.

24)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p. 50-52.

25)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p. 47-49. 이나바의 이력과 그의 만선사 체계는 정상우,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역사교육』 116 (2010)에 잘 설명되어 있다.

결정되었다. 둘째,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과 중국의 국경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조선, 한, 고구려, 당, 원이 지배하던 시기에 두 강은 경계가 아니었으며, 고대부터 만주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체였다. 셋째, 경제적으로도 만주와 조선은 일체였다. 조선인이 만주로 들어가 채취하고 농사짓는 일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이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상호 왕래와 이주가 빈번했다.²⁶⁾

이나바의 만선일체론에는 당시 일본의 조선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정체론과 타율성론이 잘 드러난다. 조선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조선민족의 역사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타다 타카시(旗田巍, 1908-1994)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시각은 “조선사를 만들어낸 조선민족의 존재에 대한 경시”를 보여준다. 하타다는 또한 만선일체론이 조선과 만주를 포함한 역사적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특수한 독자성을 갖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만선사라는 이름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내용은 실제로는 조선과 만주의 각각의 역사를 모은 것이지 양자를 포함한 하나의 세계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양자 사이에 전쟁이나 교섭의 역사는 연구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의 세계의 존재를 논증할 수 없다. 이것을 몇 가지 모아둔 것으로 만선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²⁷⁾ 이런 점에서 만선사는 테라우치가 설명하듯이 “일본의 대륙진출에 대응하여 역사학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나바를 비롯한 만선사학자들이 조선에 대해, 나아가 만주에 대해 이처럼 정체적이고 수동적인 역사상을 수립했다는 것은 이들이 만주와 조선을 국가(countries)나 민족(nations)이 아닌 지역(regions)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스테판 타나카가 지적하듯이 만선사학자들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일본의 동양사에 깔린 역사적 위계질서를 보여준다. 일본의 동양사 연구에서 중국은 비록 지위는 일본보다 낮지만 언제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만주는 주변부에 속하면서 중국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하리라는 것을 전제했지만, 조선이나 만주는 다만 하나의 지리적인 공간으로 여길 뿐, 어떤 역사적 주체가 활동하는 장소로 간주되지 않았다. 조선이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만주 역시 북방 이민족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이곳에서는 민족국가에 준하는 것이 세워진 적이 없었고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세력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립지대”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만주와 조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역할은 일본을 위한 방어막이라는 점이었다. 13세기에

26)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p. 53-54. 테라우치는 또한 이 논문이 1919년 조선의 삼일운동 직후에 쓰였다는 점에서 이나바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만선불가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의 민족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27) 旗田巍, 『滿鮮史の虛像』;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p. 31-32에서 재인용.

28) 寺内威太郎, 앞의 논문, p. 42.

조선과 만주가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20세기에든 러시아의 침입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조선과 만주는 취약하고 분열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앞장서서 만선을 방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²⁹⁾

만선사에서 나타난 만주의 독자적 역사성에 대한 부정은 1930년대 일본의 본격적인 만주 진출을 학술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발전해 갔다. 만주와 몽고에 대한 일본의 “특수권익”은 흔히 관동군 작전주임참모였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의 “滿蒙領有論”으로 요약된다. 만주와 몽고라는 중국 대륙의 일부를 일본이 영유할 수 있다는 이시하라의 주장의 근거는 이 지역이 중국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이었다. “만주와 몽고는 만주족과 몽고인의 것이고, 만주인과 몽고인은 한족보다 오히려 야마토(大和) 민족에 가깝다”는 주장은 이미 일본의 여러 동양사 연구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었다.³⁰⁾ 이시하라의 육군대학 교관이었던 이나바 이와키치는 만주의 독립성과 원시성을 강조하면서, 만주의 원시인들은 중국문화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기는 했으나 언제나 원시림과 산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만주를 중국과 분리시키기 위해 “우랄-알타이론”에 의지했다. 그는 아시아의 알타이인들, 특히 몽골인들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묘사하고 일본인을 투르크, 퉁구스, 몽골과 연결시켰다. 일본과 동북아시아를 연결시킴으로써 시라토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아가 일본과 만주국의 원주민을 연계시키는 것이었다.³¹⁾

“만몽영유론”에 입각한 일본 관동군의 만주 인식은 결국 만주사변을 촉발시켰고 이어 1931년에 세워진 만주국 성립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었다. 만주국의 승인을 둘러싸고 국제연맹에서 벌어진 논의에서 일본 대표 마츠오카 요스케(松岡洋右)는 만주가 역사적으로 중국과 불가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만주와 중국의 결합은 임시적이며 우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제국을 정복한 것은 만주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만주는 결코 중국의 封土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 제국은 개인적 동맹의 소산이므로 만주에 대한 중국의 권리문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만주 황실이 소멸한 이상 중국과 만주의 재결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²⁾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성장해간 일본의 만주학 연구는 1930년대 정점에 이르렀다. 1920년대까지 주로 고대사를 중심으로 만주의 역사지리에 집중했던 일본의 만주학 연구는 1930년대에 이르러 여진족과 만주족의 역사 및 팔기제도가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청조사와 만주학 연구가 결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만주 점령에 따라 청조 및 만주 관련 사료에 접근

29) Stefan Tanaka, 앞의 책, pp. 246-248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 앞의 책, 351-352쪽].

30)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009), 77쪽.

31) 프레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서울: 나남, 2006), 327-331쪽.

32)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앞의 책, 113-117쪽.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점, 또한 사회전반에서 만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만주와 일본의 각종 학술기관 및 관련단체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만주학에 종사하게 되어 “동양사 연구자의 절반이 만주사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³³⁾

1945년 이후 일본의 만주학 연구는 크게 변화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대륙에서 후퇴하면서 만주학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이나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고 현지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해졌다. 특히나 만주학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불가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일종의 금기가 된 반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강해지면서 명칭시대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청대 및 만주족 연구는 만문 사료를 중시하는 “淸朝史” 연구와 한문사료에 의존하여 청을 중국사의 한 왕조시대로 이해하는 “淸代史” 연구의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발전한 청조사와 관련하여 스기야마는 “만주, 즉 만주인, 만주지역, 만주어를 중시하는 시대와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청조·만주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1945년 이전의 일본 만주학이 만주어보다는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주목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만주어는 청조사와 청대사 연구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만주학 역사를 시기 구분하는 것”이기도 했다.³⁴⁾

일본의 만주학 연구자들은 1986년 “滿族史研究會”(The Japanese Association for Manchu and Qing Studies)를 설립하여 의도적으로 “만주”라는 이름을 피하고 있다. 일본의 만족사연구회는 “청조를 건국한 만주족의 역사와 언어를 중심으로 동북 유라시아 여러 민족의 문화와 청조사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추리아(Manchuria)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⁵⁾ 만족사연구회의 명칭과 목표는 오늘날 일본의 만주학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전후 세대의 일본 연구자들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동양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 1945년까지 선배 연구자들이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왔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부득이 “만족사”라는 중국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오늘날 일본의 만주학은 만문 사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만주라는 지역과 만주학 연구의 직접적인 연결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만선사의 유산이 21세기 초 만족사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杉山清彦, 앞의 논문, p. 352.

34) 杉山清彦, 앞의 논문, p. 354.

35) 楠木賢道, 「일본에서 만학연구의 전통과 현황」,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2011년 4월 15일.

Ⅲ. 중국 민족주의와 만주학

1. “중국”의 등장과 滿學

일본의 동양사와 만주학이 일본의 근대적 자아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전했듯이, 중국의 滿學[만주학] 역시 근대적 “중국”의 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족의 자아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했다. 그러나 만주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만주학은 근대의 일본이 동양, 특히 중국을 자신과 분리시키고, 중국의 문명을 타자화하고, 나아가 중국의 영토를 팽창대상으로 여기면서 발전했다. 반면 근대 중국은 자신의 모체인 청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대상화시키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학이라는 학문영역 역시 근대 중국이 청과 만주족을 대상화시킬 때에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만주학은 청이 붕괴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이 주체가 되어서 청과 만주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발전한 학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만주학이 등장하기 위한 전제, 즉 청과 근대 중국의 분리, 그리고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의 분리는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앞으로 설명하듯이, 그 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³⁶⁾

청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만주족, 한족, 그리고 비한족들 간에 분명하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중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이전의 “중국”은 대략 중원, 수도, 혹은 황실을 가리킬 뿐이었고, 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곳의 정치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는 華·夏·漢·唐·중국 등 다양했다.³⁷⁾ 그러나 20세기 전환기 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 특히 하나의 일체적이고 통일된 존재로서의 중국이라는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은 열강의 침탈에 따른 해체, 즉 瓜分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영토적

36)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커비는 “중국”의 형성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중국”은 영토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지속적인 정치 프로젝트로서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와 문화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William C. Kirby, “When Did China Become China? Thoughts on the Twentieth Century,” Joshua A. Fogel, *The Teleology of the Modern Nation-State: Japan and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 114. 중국의 근대 역사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오병수 역시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 역사학은 “태생적으로 청 제국의 신민과 강역을 계승하면서도 인종, 강역,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정체성 창안을 과제로 한 것이었다 (중략) 동북공정과 청사의 편찬은 이것이 미완의 진행 과정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병수, 「중국 국민사학의 인종·강역문제-梁啓超·章炳麟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6), 41쪽.

37) Victor Mair, “The North(west)ern Peoples and the Recurrent Origins of the “Chinese” State,” Joshua A. Fogel, *The Teleology of the Modern Nation-State: Japan and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p. 52-53.

일체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어 갔다. “중국”과 “중국의 영토”라는 개념은 청의 몰락에 임박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근대적인 “중국”의 등장은 또한 청과 만주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졌다. 태평천국운동은 청과 만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이들은 정통성이 없는 부패한 이민족에 불과하며 외세로부터 중국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한족중심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한족의 민족성과 비한족과의 관계는 청말 엘리트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³⁸⁾

이처럼 20세기 초에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에서 등장한 근대적 역사학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을 극복하고 이민족인 청조와 만주족을 비판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중국 근대 역사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梁啓超는 일본에서 망명하는 동안 서구 근대사학과 진화론을 접하여 새로운 개념을 흡수하고, 『中國史序論』(1901년)과 『新史學』(1902년)을 통해 새로운 역사학을 주창했다.³⁹⁾ 그가 구상한 중국사는 “중화민족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중국이 제국과 같은 강대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⁴⁰⁾ 다시 말해 梁啓超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근대적 역사학은 처음부터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만주족과 같은 비한족은 동화의 대상으로 설명되었다. 梁啓超보다 더 철저한 인종주의자였던 章炳麟과 같은 사람에게 역사란 한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章炳麟은 중화민국의 강역을 漢代 華인이 활동한 범위로 제한하고 동삼성과 신강에 대해서는 이민과 개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국민국가를 이루어갈 것을 주장했다.⁴¹⁾ 梁啓超의 신사학 이후 傅斯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서술은 더욱 세련되어 갔지만, 동시에 국민이나 종족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조하려는 노력은 더욱 강해졌다.⁴²⁾

두아라에 따르면 1912년 청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중화민국은 동시기 다른 모든 국민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원과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영토적 통제, 침략과 방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군사체계의 구축, 그리고 영토와 사람들에 대한 제국주의를 방불케하는 민족주의적 영유권의 주장이라는 세 가지 명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 시기 지배적 민족집단인 한족은 과거의 유산, 즉 청 제국의 경계를 상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거 제국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

38) 요시자와 세이치로 저, 정지호 역,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애국주의의 형성』(서울: 논형, 2006), 118-123쪽; 사카모토 히로코 저, 양일모·조경란 역,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서울: 지식의 풍경, 2004), 43-109쪽.

39) 梁啓超의 신사학에 대해서는 오병수, 앞의 논문; 신승하, 『중국사학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년), 339-345쪽; 汪榮祖, 『梁啓超의 新史學論』, 민두기 편, 『中國의 歷史認識』하(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년), 651-667쪽.

40) 오병수, 앞의 논문, 46쪽.

41) 오병수, 앞의 논문, 51-63쪽.

42) 프라센짓 두아라, 「민족의 지구적, 지역적 구성: 동아시아로부터의 관점」, 심재훈 엮음,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 민족사와 고대 중국 연구 자료 성찰』(서울: 푸른역사, 2012년), 38쪽.

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국에 대한 통합은 하나의 영토적 민족에 절대적으로 속한다는 근대적 관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종교나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어떤 영토 혹은 세력은 하나의 국가에만 소속되어야 한다는民国시기 국민당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과거 청제국의 복수적 연계와 유연한 편입이라는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었다.⁴³⁾

근대의 중화민국이 청제국의 영토적·민족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크로슬리에 따르면 국민당 정부가 취한 입장은 다름아닌 “민족적 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였다. 국민당의 중국이 만주족의 청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만주족이 한화되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이민족이 지배하는 청을 무너뜨린 국민당의 혁명논리와 배치된다는 것은 당시에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몽고와 내륙 아시아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의 근거는 몽고는 청에 복속했고, 티베트는 원과 청의 지배를 받았으며, 대만은 청군에 정복되었다는 것이었다. 청의 역사를 중국과 한족 통치자의 역사로 흡수하는 것은 청의 멸망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합을 주장하는 데 유용했다. 따라서 20세기 초 국민당은 청의 만주족이 한화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⁴⁴⁾

한족중심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당 정부가 청을 무너뜨리고 만주족의 한화를 주장하던 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만주학 연구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근대의 중화민국이 과거 청의 영토적·민족적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20세기 초에 만주족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부정되거나 비판되어야 할 것이었다. 키청거(Kicengge, 承志)가 지적하듯이 당시 “청사”가 “만주역사”로 불리지 못한 것은 중국의 청사 연구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민국시기의 청사 연구는 “중국”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배층인 만주족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⁴⁵⁾ 결국 민국시기의 중국은 만주학이 발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만주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산혁명 후에도 지속되었다. 대표적인 민족혁명사가인 李洵의 『明清史』(인민출판사, 1965년)는 華夷史觀을 바탕으로 “만족침략세력”인 만주족왕조를 비판한다. 그는 청조가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한 세기 후퇴시켰으며 중국 사회의 진보를 저해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에서 “청조,” 즉 “滿族”의 역사는 중국과는 다른 별개의 국가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청사 연구는 대체로 한문사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43)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서울: 나남, 2006), 53-56쪽.

44) Pamela Kyle Crossley, “Nationality and Difference in China: The Post-Imperial Dilemma,” Joshua A. Fogel, *The Teleology of the Modern Nation-State: Japan and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 148.

45) 키청거(承志), 「中國における『滿族史』研究」, 『東洋文化研究』10戸(2008年), pp. 328-329.

다. 한문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청사연구는 『大清實錄』이나 『東華錄』과 같은 2차·3차 자료인 한적·필기류·지방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키칭거는 이러한 한문자료를 통해서만 청대의 윤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편찬과 개정을 거치지 않은 일차자료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⁴⁶⁾

만주족에 대한 부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만주어, 만주족의 종교, 혹은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중국의 초기 청사 연구자 가운데 만문 사료에 주목한 사람들로 “國學大師”로 유명한 陳寅恪, 國立北平圖書館에 근무했던 李德啓, 「清史語解」를 발표한 鄭天挺(1899-1981) 등이 있었다. 이후 만주학 연구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孟森(1869-1937)은 일본에서 수학한 후 북경대에 재직하면서 “滿洲開國史”를 강의했고 1936년 출판된 『八旗制度考實』에서 팔기조직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외에도 謝國楨(1900-1982), 金毓黻(1887-1962) 등이 초기 청사연구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⁷⁾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만주학은 새로운 연구환경을 맞게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서에서 1988년에 출판한 『滿族史研究集』에 따르면 “만족은 모두 민족대가정의 일원이 되어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여 과거와 달리 만주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키칭거는 “중국의 근대사에서 내셔널리즘과 언제나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만족사를 적대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堂堂하게 청사를 언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⁴⁸⁾ 그러나 키칭거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의 청사와 만주학 연구는 여전히 민족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 점은 뒷 절에서 중국의 청사공정을 언급하면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2. 만학과 청사공정

현재 중국학계에서 중국 만주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王鍾翰은 2004년 중국의 청사·만족사 연구에 대한 회고에서 청사와 만족사 연구의 불가분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만족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청사에서의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만족사의 의의 역시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다.”⁴⁹⁾ 그러나 王鍾翰이 이해하는 청사와 중국사, 만주족과 중국의 관계는 다소 모호하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초 청조통치가 쇠퇴하면서 “國史”연구의

46) 承志, 앞의 논문, pp. 335-336.

47) 마크 엘리엇, 「중심으로서의 주변: 만주학의 미래를 위한 서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초청강연, 2010년 8월 23일.

48) 承志, 앞의 논문, p. 339.

49) 王鍾翰, 「清史滿族史研究百年回顧及未來展望」, 趙志強 主編 『滿學論叢』第1輯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1), p. 1.

환경에도 여유가 생겼고, 1912년 청조가 사라지면서 청사연구와 편찬이 더욱 절박해졌다.”⁵⁰⁾ 여기에서 王鍾翰이 말하는 “국사”란 분명 “중국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만주족의 청조가 쇠퇴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역사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王鍾翰은 만주족의 청조와 중국사를 완전히 일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王鍾翰은 또한 청사·만족사 연구에서 만문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사와 민족사를 전공하려 하면서 만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만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⁵¹⁾

청사와 만주족의 관계, 혹은 청사에서 만주족의 위상에 대한 현재 중국 학계의 시각은 王鍾翰의 제자이자 현재 중국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만학연구자인 劉小萌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王鍾翰의 제자로서 중앙민족대학에서 수학한 劉小萌은 주로 한문자료나 한어로 번역된 만문노당에 의존하여 만주족의 역사를 탐색한다. 그의 연구 대상은 만주족이고 그들은 분명 청대사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몽골을 비롯한 내륙아시아의 비한족과의 교류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劉小萌이 묘사하는 만주족 흥기의 역사는 만주족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기보다 주변 세력, 특히 명과의 교류와 접촉에 따른 불가피한, 하나의 예정된 결과로 서술되고 있다. 만주족은 명의 우월한 정치·문화적 역량에 이끌려 그 힘에 의지하여 성장했고, 중원으로 진입한 후에는 전통적인 중국왕조의 하나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한족의 정치적·문화적 우월성, 그리고 만주족의 궁극적 한화에 대한 劉小萌의 이해는 그의 저서의 마지막 단락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각 민족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그들의 지리환경, 문화전통, 경제유형 등 역사적 조건은 다양했고 발전과정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의 단계로 발전했고 혈연조직에서 지연조직으로 변화했으며, 원시적인 집단소유제에서 사유제로 변화했고 혈연관계에서 계급관계로 나아갔다. 각 민족의 발전의 기본적 방향은 모두 일치하였던 것이다.”⁵²⁾

중국 만주학 연구자들의 이처럼 청사를 만주족의 역사로 파악하기 보다는 중국사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청과 중국의 분리라는 20세기 초 근대 중국의 과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앞 절의 지적을 입증한다. 중화민국 시기에 성립된 다민족국가라는 개념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발전하였고 오늘날 중국 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목적론과 국민국가 중심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목적론적 역사인식과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중국이란 역사 초기의 핵심적인 요소가 부단히 진화하여 일관성을 갖추게 된 하나의 실체이며 오늘날 중국의 영토 안에서 최초의 국가가 수립된 이래 중국 역사의 모든 시기에는 오직 단 하나의 합법적인 통치권력만이

50) 王鍾翰, 앞의 논문, p.1.

51) 王鍾翰, 앞의 논문, p. 4.

52)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 제3판), p. 316.

존재했다고 여겨진다.⁵³⁾

이와 같은 목적론적 역사인식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아마도 ‘동북공정’일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의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2002년부터 5년간 진행한 연구사업을 가리킨다.⁵⁴⁾ 윤희탁이 지적하듯이 동북공정은 “주로 소수민족문제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영토)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족관과 영토관,” 나아가 “역사관과 통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민족관과 영토관”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중화민족’은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한족 및 소수민족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의 영토 내에 살았던 고대의 모든 민족집단”을 가리킨다. 이 ‘중화민족’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되는데, 이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의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은 모두 중화민족이고 그들이 세운 왕조는 모두 중국의 왕조”로 여겨진다.⁵⁵⁾

한편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청사공정’은 목적론적 역사인식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흥기하면 전대의 역사를 기록 편찬하는 “歷代修史”의 전통이 이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청대 역사에 대한 편찬은 1912년 왕조 멸망 후 중국 내부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1928년에 가까스로 출판된 『淸史稿』는 그 내용과 편찬과정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淸史稿』의 출판 직후부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래, 청대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2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 중앙의 비준을 거쳐 國家淸史

53) Victor Mair, "The North(west)ern Peoples and the Recurrent Origins of the "Chinese" State," Joshua A. Fogel, *The Teleology of the Modern Nation-State: Japan and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pp. 48-49.

54) 1983년에 설립된 변강사지연구중심은 1999년에 ‘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東北工作站’을 조직하고,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과 흑룡강, 길림, 요녕 3성의 비준을 얻어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에 착수했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과제는 고대 중국 강역이론, 동북지방사, 동북민족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중-조관계사(中朝關係史), 동북변강 사회안정 전략, 한반도 정세변화 및 동북변강 안정에 대한 영향,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遠東)지구의 정치경제 관계사 및 중-러 민족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구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출판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 2004;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향분석』, 2004;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2010 등이 있다.

55) 윤희탁,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2008년), 277-278쪽. ‘동북공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국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한국의 역사주권의 대립’이다. 한편 정치학자인 이희옥은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판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대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복잡하고 타산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중국 정부의 주된 관심은 고구려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경지역의 안정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나 패권추구(를) 곧바로 동북공정의 전략적 배경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희옥,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비판적 해석」, 『동아연구』 53집 (2007년), 19쪽, 21쪽. 동북공정에 대해 그동안 한국 역사학계가 보여온 과도한 관심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編纂委員會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戴逸(인민대학), 馬大正(중국사회과학원), 朱誠如(북경대학), 成崇德(인민대학) 등 중국의 대표적 청사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청사공정’은 2003년부터 10년 사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⁵⁶⁾

중국의 청사공정은 『淸史稿』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편찬하고 이를 중국 전통의 正史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사공정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600년간 국사가 편찬된 것은 단 네 차례 뿐이었다. 첫 번째는 홍무원년 주원장이 元史를 편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순치2년 푸린(순치제)이 明史의 편찬을 명하여 옹정-건륭년간에 비로소 완성된 것이고, 세 번째는 北洋政府 시기에 史淸의 편찬을 명하여 14년간 『淸史稿』를 집필한 것이다. 네 번째가 바로 纂修淸史工程이니 백년만의 대사업[百年不遇的盛舉]이라 할 것이다.”⁵⁷⁾ 청사공정의 주임을 맡고 있는 戴逸 역시 2001년 “왕조가 바뀌면 다음 왕조가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임”을 지적하고 “국가가 강성해졌으니 성세에는 역사를 편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⁵⁸⁾ 결국 청사공정은 중국 역대 왕조의 관찬 정사 편찬의 전통을 명백히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형중이 지적하듯이 학술적으로는 국가주도의 역사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고 정치적으로는 역사 편찬의 지원을 통해 현재 중국의 강성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사공정은 단순히 “학문과 정치의 가운데에서 위험한 줄다리를 할 가능성을 내포”⁵⁹⁾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욕망 혹은 이데올로기를 과거의 역사 서술 속에 투영시켜온 정사 편찬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⁰⁾

청사공정은 사업의 추진배경에 정치적 목표가 있다는 점 외에도 청대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청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 혹자는 “중국은 명대에 세계 선진국가의 대열에 속했으나 19세기 중기에는 식민지·반식민지가 되었다”고 여기는 반면, 혹자는 “청조가 역대의 큰 성과를 집대성하여 여러 방면에서 이미 앞 시대를 초월하였다”고 평가한

56) 청사공정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세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나왔다. 정혜중 외,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유장근 외,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57) 國家淸史編纂會 홈페이지 “文華文史網” (<http://www.qinghistory.cn/qsxz/index.shtml>) 참조.

58) 당시 부총리 李嵐淸 역시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가 전승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정신적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언명하여 청사 찬수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戴逸과 李嵐淸의 언급은 각각 김형중,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청사 편수- ‘신청사’ 편찬토론에 나타난 중국 학계의 반응 분석』, 정혜중 외,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80쪽과 70쪽에서 재인용.

59) 김형중, 앞의 논문, 70쪽.

60) 중국 정사의 역사서술과 그 속에 투영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으로는 고병익,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 - 朝鮮傳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 (1965); 김선민, 『‘外國’과 ‘屬國’의 사이 - 正史를 통해 본 청의 조선 인식』, 『史林』 41 (2012).

다.61) 또한 혹자는 청이 다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만한관계의 모순이 존재했고 一國多體制의 특징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62) 다시 청의 대외관계에서 토사·번부·속국 등의 분류에 대해 학자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63) 그러나 앞서 언급한 애국주의적 역사관과 국가 주도의 학술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사공정이 청의 역사적 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강희·옹정·건륭년간에 “경제가 번영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대하고 국가가 통일되고 판도가 공고”해졌다는 점에서 “청조는 중국역사 발전의 최고봉”이라는 戴逸의 언급에서도 확인된다.64) 청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와 다양한 민족집단을 통치하였고 그 영토적·민족적 유산을 현대 중국이 모두 계승하고자 하는 이상, 청의 역사적 위상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1세기 초 중국의 만주학은 백 년 전과 비교하여 극적으로 다른 연구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민국시기의 중국에게는 청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 만주족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역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현재의 중국에게 청은 계승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청과 만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만주학 역시 청의 긍정적 유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만주학과 21세기 초의 만주학 모두 민족주의적·애국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지난 백여년간 중국학계에서 청과 만주족에 대한 평가는 극적으로 달라졌지만, 평가의 주체인 중국의 자아인식은 똑같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변경사로서의 만주학

일본의 만선사와 중국의 만학이 근대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만주학과 민족주의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면, 한국의 만주학은 어떠한가? 만주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한규의 “요동사”는 만주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동”이 하나의 자의적인 지역개념으로서 “만선”이나 “동북”과 같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김한규의 “요동사”와 그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만주학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이해하

61) 김형중, 앞의 논문, 111-112쪽.
 62) 김형중, 「청대 후기 정치사 연구동향과 쟁점 분석」,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165쪽.
 63) 김형중,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청사편수- ‘신청사’ 편찬토론에 나타난 중국 학계의 반응 분석」, 정혜중 외,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103-107쪽.
 64) 戴逸의 언급은 김형중, 「청대 후기 정치사 연구동향과 쟁점 분석」,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189쪽에서 재인용.

는 데 매우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김한규의 “요동사”에서 “요동”은 두 가지 다른 개념과 범위를 가리킨다. 협의의 “요동”은 요하 유역이나 요동반도를 가리키지만 광의의 “요동”은 산해관 동쪽에서 한반도의 북부를 가리킨다. 즉 역사적으로 “요동”의 위치와 범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명대에는 요동도사의 관할범위를 가리켰지만 청대에는 광의의 “요동”으로 지금의 東三省과 대략 일치했다고 여겨진다.⁶⁵⁾ 나아가 김한규는 “요동”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역사상의 ‘요동’은 그 자체로 고유한 범주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공동체임과 동시에,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공동체에게는 또 다른 존재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략) 요동에는 중원의 한인이나 한반도의 한인과는 다른, 별개의 공동체 성원들이 혹은 공존하고 혹은 서로 융합하면서 중원이나 한반도에서 성립되는 국가들과 성격이 다른 일련의 국가들을 창출했다.⁶⁶⁾

김한규의 “요동사”에 대한 비판은 “고구려사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켰다”는 민족주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지만, “요동” 개념과 “역사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다. 이삼성에 따르면 김한규의 “요동”은 세계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요동이라는 명칭은 남만주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김한규의 “요동”은 동만주와 북만주를 포함한 만주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몽골과 만주의 지리적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고, 대신 세계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내륙 아시아’라는 개념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⁶⁷⁾ 이삼성은 또한 김한규의 “역사공동체”는 민족집단과 정치체를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개념적인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다양한 “역사공동체”가 공유했다고 여겨지는 역사의 내용과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⁶⁸⁾

일본의 “만선”이나 중국의 “동북”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요동”은 지역개념의 자의성과 정치성을 잘 보여준다. 김한규가 자세히 설명하듯이, 요동이라는 지역 역시 명청시대와 조선시대의 사료에서 발견되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지명이 가리키는 범위와 함의는 시대적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요동” 개념이 지닌 모호성과 자의성은 20세기 초 만주에서 전개되었던 제국주의와

65)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49-61쪽.

66) 김한규, 앞의 책, 70쪽.

67)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서울: 한길사, 2009년), 116-122쪽.

68) 이삼성, 앞의 책, 127-135쪽. 이육진 역시 『요동사』에 대한 서평에서 “중국이나 한국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역사공동체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한 요동에 거주했던 여러 민족들 사이에 그러한 의식적 자각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육진, 김한규 『요동사』 서평, 『중국사연구』 34 (2005), 423-424쪽.

민족주의의 충돌과 결부되면서 요동의 지역개념, 나아가 요동에 대한 연구 그 자체를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20세기 초 일본 만주학의 발전이 “만선”의 정치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 초 중국의 만학은 “동북”의 정치성에, 한국의 만주학은 “요동”의 정치성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만주학에 담긴 이 정치성의 무게는 바로 20세기의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의 유산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한규의 “요동사”는 “요동”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독자적인 역사공동체로 간주함으로써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요동”이라는 지역과 그곳에 거주했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국과 한국이라는 “중심”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요동이라는 “주변”에 주목하고 이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사나 한중관계사 뿐만 아니라 변경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김한규는 “요동역사공동체”를 설정함으로써 영토의 점유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일국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다양한 거주민 집단과 그들 사이에 발생한 접촉과 교류의 양상에 주목한다. 이처럼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요동사”의 관점은 영토중심적 관점에 매몰된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동사”는 만주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요동사”는 일본의 “만선사”나 중국의 “만학”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요동”을 “역사공동체”라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추상화시키는 대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변경”과 “변경의 거주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김한규의 “요동사”는 그 의미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요동”을 복수의 정치집단이 만나고 접촉하는 공간인 “변경”으로 파악하고 이곳에서 발견되는 변경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요동사”는 민족주의의 정치성에 함몰되는 대신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한 바로 그 공간을 대상화하는 하나의 유용한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경사적 관점의 만주학을 위해서는 먼저 경계(boundary), 변경(frontier), 국경(border), 국경지대(borderland)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⁶⁹⁾ 변경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 혹은 사회집단이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력을 상대방에게 침투시키고 확장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국경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이 서로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한 선을 뜻하는데, 이 때 두 집단의 경쟁은 군사적 충돌이나 외교적 협상의 결과 종식되고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두 세력 사이의 공간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변화하기 전에 일종의 전환기인 국경지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중간단계로서 국경지대는 변경

69) 경계·변경·국경·국경지대 등 여러 용어들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은 김선민, 『청 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114-118쪽 참고.

의 성격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경지대는 변경과 같은 모호한 경계를 둘러싸고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접하는 두 국가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대의 “요동”은 변경에서 국경지대로,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명대 요동변경은 명의 종주권 하에 한족·여진족·몽골족·조선인이 서로 공유하는 접촉과 교류의 공간이자 전형적인 중간지대, 즉 변경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누르하치가 이 지역에서 명의 종주권에 대항하고 배타적인 영역권을 주장하면서 요동은 명·여진의 후금·몽골부족·조선이 서로 충돌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모해갔다. 이후 청의 중원정복으로 요동변경 뿐만 아니라 중원 내지까지 장악하면서 이 지역의 정치관계는 청의 종주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었다. 청조의 권력이 내지와 요동을 넘어 조선에까지 미치고 양국의 정치관계가 조공관계로 안착되면서 과거 불안정했던 변경은 점차 안정적인 국경지대로 진화했다. 이처럼 명말 요동변경을 둘러싼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는 변경에서 국경지대로의 진화과정, 즉 모호한 변경지대가 점차 영역이 구체되어 보다 명확한 경계선이 등장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요동”은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은 청과 조선 정부가 근대적 개념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양국의 국경을 명확한 선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초 “요동”이 국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경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 시기 양국의 지식인들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배타적인 영토를 확보해야 함을 역설한 반면, 일반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경작할 토지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 그 결과 “요동”은 여러 민족 집단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변경으로서의 특징을 다시 드러내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 “요동”에서는 민족국가의 건설과 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이 결합되어 국경으로서의 특징과 변경으로서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청과 조선의 관계가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변화하는 양상과, 20세기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가 진출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와 충돌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치세력이 교류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요동이라는 변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만주학의 지평을 새롭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清代 柳條邊과 封禁地帶 성격연구

남 의 현(강원대)

I. 서론
II. 遼東邊牆에서 柳條邊으로
III. 유조변 설정 후 ‘展邊’의 한계
IV. 유조변은 만리장성인가?
V. 유조변의 기능약화와 카룬(卡倫)설치
VI.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청대 유조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중국은 신강과 흑룡강 유역에서 장성 곧 만리장성의 흔적이 나왔고 역대장성의 길이가 21,000킬로미터라고 광명일보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장성의 길이가 압록강에서 흑룡강으로, 그리고 가옥관에서 신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장성 동쪽은 산해관이며, 서쪽은 가옥관에서 끝나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2008년 산해관에서 압록강으로 동단기점이 확대되었고 다시 2012년 흑룡강에서 장성의 흔적이 나와 압록강에서 흑룡강으로 장성선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처럼 장성선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 속에서 만주에서 일어난 한국 고대사가 만리장성 속에 묻히고 한국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과연 중국은 무엇을 근거로 흑룡강 유역에 장성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중국이 말하는 장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을 구하는 것은 중국 장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본고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유조변의 성격과도 일맥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청대 유조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청대 유조

변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설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주제를 살피기 위해 우선 청대 유조변은 명대 요동변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현재 중국은 산해관에서 압록강으로 연결된 명대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인식하고 그 동단기점을 산해관이 아니라 압록강의 호산산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명대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이라면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청대의 유조변도 만리장성이 될 수밖에 없다.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유조변이 단지 내지와 외지를 가르는 경계선인가, 국가와 경계를 구분하는 국경선인가하는 문제를 고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유조변의 기능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유조변이 장성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 만주족이 입관후 유조변을 설정한 것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는가의 문제가 놓여있다. 실제로 유조변의 내지에 해당하는 요녕성 지역은 『柳邊紀略』에 판도내의 지역으로 길림과 흑룡강 지역은 길림장군과 흑룡강 장군이 파견되었음에도 무판도 지역으로 서술됨으로써 실제로 그 성격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조변을 기준으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지와 외지, 무판도와 유판도로 구분해야하는가 하는 문제, 더 나아가 봉금지대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유조변의 기능을 중심으로 봉금지대의 성격을 나름대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봉금지대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봉금지역이 영토, 국경, 경제, 민족, 문화 등 다양한 현상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만주 봉금지역이 만주 귀족의 장원과 같은 기능을 할 정도로 중요한 圍場·獵場과 고급 특산물의 공급창고의 역할이라는 경제적 시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개설적인 접근과 서술을 하고자 하였다.그런 의미에서 봉금지역의 성격을 밝히는 문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조변의 성격에 맞추어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하였다.

II. 遼東邊牆에서 柳條邊으로

청 전기 順治·康熙年間 遼寧과 吉林 지역에 유조변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금나라 시대의 邊壕나 界壕와 비슷한 형태로 땅을 파 호를 만들며 언덕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좀 다른 것은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柳條邊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흙 언덕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유조변은 요금 시대의 '邊壕'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유조변은 柳條邊 또는 柳條關, 柳城, 柳邊, 條子邊, 邊牆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¹⁾ 유조변의 수축은 문헌을 살펴보면 ‘버드나무를 꺾어 울타리로 만들다(折柳樊之)’, ‘울타리를 끼워넣어 경계로 삼다(插籬爲邊)’, ‘버드나무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柳爲界)’, ‘가시나무를 엮다(編荊爲之)’, ‘끈을 연결해 목책을 늘어놓다(結繩列柵)’ 등 갖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조변은 관방기록에는 ‘盛京邊牆’으로 나타난다.

청대 유조변은 2개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老邊과 新邊으로 구분한다. 노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이용하여 형성하였으며 신변은 요동북부 개원에서 동북방향 길림을 향하여 형성된 변장이다.

명대 요동변장을 계승한 노변 즉 성경변장은 남쪽의 봉황성에서 북쪽의 開原, 서쪽의 山海關으로 연결된다. 성의 길이는 대략 1,950여리로 17개의 邊門을 설치하였다. 이것을 성경변장이라고 부른 것은 명대 설치된 요동변장의 흔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조금씩 보수 수축해나갔기 때문이다.²⁾ 즉 “淸因明障塞, 植柳于牆之外” 라는 기록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명나라 장새는 곧 명대 요동변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은 요동장성으로 부르며 만리장성의 일부로 보고 있다.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유조변은 단지 명대 요동변장을 보수하며 그대로 이용하였고 그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처럼 청초의 유조변은 명대 변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순치연간에 유조변의 노변을 신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명대 요동변장에 기초하여 유조변을 설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대 수축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미이다. 平川 營邊門은 명대의 平川堡, 高臺堡 邊門은 명대의 高臺堡를, 長嶺山邊門은 명대의 長嶺堡를, 白土廠 邊門은 명대의 靈陽堡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성경변장의 대부분은 명대 요동변장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순치연간(1644-1661)은 여전히 명의 회복운동이 일어난 시기라서 군사력을 중원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은 역으로 유조변의 보수 증축에 눈을 돌릴 겨를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의미한다. 강희연간에 이르러서야 순치연간의 유조변 수축을 확대하는 ‘展邊’의 기회를 맞이하였다.³⁾

『성경통지』를 정리해 보면 강희 14년(1675), 25년, 36년 3차의 ‘展邊’이 있었고 전변의 결과 원래 있던 변문을 없애고 새로운 변문이 생겨났다. 黑山口 변문(유중현 대흑산구)과 평천영 변문(유중현 평천영촌), 장령산 변문(금서현 장령), 芹菜口 변문(홍성시 구문향), 碾槃溝 변문(금서

1) 중국은 이러한 유조변을 국경선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분계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유조변 북쪽은 몽골 지역으로 중국의 입장은 내지를 보호하고 민족격리 정책을 실시하여 각 부족이 경계를 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만주족 통치자의 변의 토지 및 산림자원의 독점적인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격리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2) 『奉天通志』 卷78 山川 12.

3) 『奉天通志』 卷33 奉天府關隘.

현 연반구), 水口 변문(유중현 왕보 수구촌), 寬邦 변문(유중현 관방향), 高臺 변문 등은 강희연간 廢置된 변문이며 이들을 폐치하고 앞으로 더 10~15킬로미터 전진하여 나아가 새로운 변문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전변된 곳은 주로 錦州市, 錦西縣, 興城市, 綏中縣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유조변에는 邊門을 설치하였다. 각 邊門의 건축시기와 형태는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초기에는 비교적 초라해서 順治 15년 방효표는 英額邊門에 도달해서 “만리에 밥 짓는 연기가 끊어졌으며 關의 나무만이 막고 있다”라고 했으며 또한 “甲士 10여인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압록강 쪽으로 형성된 盛京의 東六邊門 역시 명대의 요동변장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애양변문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쪽 변문 역시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원래 변장 밖 지역을 유조변에 포함시킨 지역도 있다. 명나라 당시 興京(지금의 허투알라, 신빈현)은 명대 요동변장 바깥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청초기 유조변의 내지가 되어 흥경 변문을 설치하였다.

애양에서 봉황성을 거쳐 발해만으로 연결되는 선 역시 유조변을 설치하면서 연결되었다. 명중기에는 압록강의 여진을 통제하기 위해 호산부근의 강연대보와 같은 전초기지를 압록강변에 설치하였으나 청대에는 봉황성에서 압록강 하류의 발해만으로 유조변이 설정되어 실제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연구성과들은 이러한 유조변 선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대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청대 모두 압록강 변은 명과 청이 관할한 것으로 이해하며 국경중립지대로 이해하지 않고 중국의 강역으로 주장한다. 이외에 개원, 철령, 무순 동쪽 등도 모두 조금씩 유조변이 동쪽으로 확대발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경변장의 변화 곧 확대와 축소는 청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변장의 서쪽 곧 요서지역 유조변은 농업과 유목의 분계선과 관련이 있으며 노변에 해당하는 변내는 주로 한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한다. 북쪽 변외는 주로 몽고족의 유목지역에 해당한다. 순치연간 전쟁이 점차 소멸됨으로써 점차 내지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경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토지가 부족한 농민들이 성경변장 외부로 나아가 토지를 개간하는 상황을 낳았다.⁴⁾ 특히 요서지역에 해당하는 금주, 금서, 흥성, 수중 등의 요서주랑지역은 지역이 협소하고 해안에 인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은 편이라 순치 18년(1661) 이러한 요서인구의 변외로의 이동이 있었고 이러한 이동을 막기 위해 다시 변외로 간 이주자들을 변내로 받아들여 유조변을 더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하였다.

요동 동부의 유조변은 누르하치 조상의 발상지인 흥경을 유조변 안으로 흡수하여 확대하였지만 대개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봉황산에서 압록강과 백두산으로 향하는 곳은 산삼과 같은 많은

4) 『大清會典事例』 卷137 戶部盛京各駐防官兵屯田.

특산물이 생산되는 중요한 지역이고 더구나 보호해야 할 그들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한쪽이 팽창을 시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었다. 오히려 봉황성에서 압록강 하류로 평생선을 그리며 유조변을 연결시켜 유조변을 압록강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성경변장의 동부는 모두 비교적 초라하였다. 예를 들어 초기의 鳳凰城邊門이 지어질 때 鳳凰山의 산기슭에 목책을 세우고 엮어서 울타리로 삼고 문을 관리하는 邊門章京이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과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지만 그 시설은 상당히 허술했음을 알 수 있다.

吉林省의 四平, 梨樹, 懷德, 伊通, 長春, 德惠, 九台, 舒蘭 등의 경내에 잔존하는 유조변장을 살펴보면 호를 파냄과 동시에 즉 그 흙의 안쪽에 흙담을 쌓았다.壕는 낮은 곳은 5尺, 깊은 곳은 1丈, 너비는 1丈이다. 흙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평균 1-1.5미터정도이다. 담 바깥의壕에는 일반적으로 깊이가 1-2미터이며, 伊通 지역은 거의 3미터에 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그 중요성에 따라 지방마다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부 길림경내 신변 각 변문의 건축은 노변의 동부변문과는 반대로 견고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서란 경내의 法特哈邊門은 문의 형태가 사각형으로 大靑磚으로 쌓아 두 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문은 지붕이 있는 대문으로 회색 기와를 걸고 樓의 중상부에 해당되는 변문의 이름을 적은 명패를 걸었다. 지금의 사평 경내인 포이도고소파이한 변문은 산기슭에 세워져 靑磚으로 쌓아 올렸으며 靑瓦에 석회를 발라 틈을 메웠다. 경산식 건축으로 높이는 약 6m 넓이는 약 5m 깊이는 6m이다. 대문의 두 문짝은 붉게 칠하였고 만주어와 한문으로 쓰여진 편액을 함께 걸었다. 문의 바깥에는壕를 통과하는 다리를 매달았다. 문의 내부 양측에는 靑磚, 靑瓦, 경산식으로 지어져 지키는 병사가 3칸의 방에 거주하여 아문과 관리, 관아, 창고 등을 방어하였다. 이수 경내 혁이소 변문은 대체로 비슷하게 지워져 靑磚에 석회를 발라 門樓를 수축하고 대문의 넓이와 높이는 약 2m 정도이다. 문루의 양측과 유조변은 토벽으로 서로 접하였지만 토벽은 가까운 문루보다 매우 폭이 넓고 높았다. 변호와 대문이 서로 접하는 지역에 나무다리를 가설하였다. 문루 내로에 접하여 아문과 병영, 창고 등을 방어하였다.

처음 유조변을 따라 변문이 설치된 것은 22개이지만 후에 감소하여 20개로 되었다. 초기에 각 변문을 수비하는 병사는 비교적 적어 일반적으로 각 변문에 소라장경 1명, 필첩식 1명, 피갑 10명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철령, 구대관, 청하, 고대보 등의 변문에는 수위 1명, 필첩식 1명, 피갑 10명이며 흑산구, 백토창, 평천영 등의 변문은 필첩식 1명, 마법 2명이었다. 강희 중엽 이후에 각 변문에서 방어가 통일되어 일반적으로 각 변문에 방어 1명, 필첩식 1명, 사병은 27-45명으로 균등하지 않았다. 변문에 주둔하는 병사의 임무는 변문을 지키며 출입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두 변문의 사이마다 변을 따라 돈대를 설치하여台的 배치가 2, 3, 4, 5곳으로 동일하지 않았다. 1리 남짓마다 台丁 1명을 파견하였다. 변을 따라 20리 간에 경작할 수 있는 지역에 台丁을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20-30명으로 동일하지는 않았다. 성경노변 전체에 배치된 台丁은 모두 2100명 이상이다. 예를 들어 금현의 경내에는 4곳의 돈대가 있어 천총 4명과 대군 200명을 배치하였다. 광녕현의 경내에도 4곳의 돈대가 있어 천총 4명, 대군 150명을 배치하였다. 영원주 경내에는 3곳의 돈대가 있어 천총 3명과 대군 150명을 배치하였다. 길림경내의 4개 변문에는 모두 29곳의 台가 있으며 각 변문에는 대를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 영추 1명을 배치하고 소속된 각 台를 관리하게 하여 台丁 150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각 대에는 다시 영추 1명을 배치하였다. 변문에 주둔하는 병사는 토벽과 邊壕를 보수해야하는 임무가 있었다.

Ⅲ. 유조변 설정 후 ‘展邊’의 한계

유조변장은 대체로 성경 경내의 노변과 길림 경내의 신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노변의 구축 연대가 신변보다 빠르다. 노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변장으로도 불리는데 전체 길이는 약 975km이고 서로는 장성에 접하고 동으로는 바다와 만난다. 대체로 명대의 요동변장과 동일하게 나가는데 다만 요하하류의 뾰자 지역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소위 서쪽으로 장성에 접한다는 것은 산해관 동쪽의 오수당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며 동으로 바다에 만나다는 것은 남으로 봉황산에서 멈춘다. 실제로 변장은 봉황성 변책은 북으로 석인자와 애양의 접계 남으로는 160여 곳의 해변과 만나는데 지금의 요녕성 동구 서남의 해변가이다.

압록강 유역의 유조변은 순치연간 초기에 진행되었다. 명말청초 압록강 유역은 명과 청, 그리고 조선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나라가 모문룡 등 명군을 축출하면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천총 3년(1633) 팔기병들이 압록강으로 진출하면서 통원, 수암, 감창 등과 봉황성을 차지하면서 명나라의 구 성지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것이 곧 노변 중 동쪽 유조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치원년(1644) 청나라가 입관하여 북경을 점령한 후 명대 요동변장의 동쪽 변문들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변장 내지의 사람들을 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종의 봉금령을 내린 것이다.⁵⁾

전쟁으로 인해 출입이 자유롭던 지역이 봉금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조선으로 넘어오거나 요동변장 내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다시 청과 조선 사이에 무인지대가 설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5) 민국시기에 제작된 『安東縣志』에는 ‘人民禁其出入’으로 기록되고 있다.

청나라는 순치 10년(1653) 遼東招民開墾令의 ‘移民實邊’을 통해 관내의 사람들을 출판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인구유입을 위해 심양을 중심으로 요양부, 요양현, 해성현, 봉천부, 錦縣 등 행정구역을 수시로 통폐합하면서 정비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옹정연간에 봉천부 아래에 요양, 복주, 승덕(심양), 해성, 개평, 영해, 철령, 개원의 8개 주현과 요서지역 금주부 아래에 영원, 의주, 금현, 광녕사주현 등 12개의 주현을 두고 봉천부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12개의 주현은 모두 봉천을 중심으로 성경변장(노변)의 경내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성경변장의 행정이 체계화되고 통치가 안정화되면서 압록강변의 봉금지책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강희 25년(1686)에 금주와 봉황성 등 처에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민정과 경우를 기정에 나누어 주었다.⁷⁾ 이러한 상황은 점차 봉황성 밖으로 경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봉금지역이 개간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압록강 유역으로 개간지가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압록강 유역의 산간 지역에는 귀중한 특산물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산삼이다. 동4문 외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분포해 있었는데 왕청, 감창, 애양, 봉황산 등에는 청조정의 내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채삼산장과 타생위장이 있었으며 그 이익을 청조정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봉금지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⁸⁾

더 중요한 사실은 압록강 유역은 조선과 청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강의 폭이 좁고 수량이 적어서 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월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투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충돌을 예방하는 방법은 월경을 금지하는 한편 이 지역을 공식적인 봉금지대로 정해 인구의 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였다, 특히 봉황성과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애하, 그리고 압록강과의 거리는 100여리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그 충돌을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당시 산삼은 최고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사람들이 충돌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청 정부는 압록강 유역을 자국의 관도로 만들 수는 없었으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국경지대로 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도광 27년(1847) 청나라는 애강 서쪽에 카룬 3곳을 설치하는 등 이후 카룬을 증치하여 특산물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⁹⁾ 이러한 카룬 역시 봉황산 바깥 지역에서 산삼 등의 특산물이 감소하고 군사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봉금의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점차 봉금에서 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의 팔참 지역 역시 압록강 대안지역은

6) 『성경통지』 권23.

7) 『봉성현지서』

8) 『청고종실록』 권 1355.

9) 『청선종실록』 권 442.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었고 양국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동팔참 개척에는 한계가 있었다. 망우초 시건과 같은 조선의 저항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

성경노변이 처음 건축된 연대에 대하여 문헌에 상세하게 기재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늦어도 순치 초년에는 시작된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백석조 변문이 순치 8년 이미 수구에 설치되었다고 문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수당 변문의 전신인 평천영 변문 및 요서 서부의 신대, 백토창, 청하, 구관대, 송령문, 장령산문, 팽무대 등 각 변문이 이미 순치 11년에 모두 설치되어 필첩식과 마법 등의 관원을 두었다. 이러한 설명은 광녕현, 금현, 영원주 경내의 유조변은 순치초년에 이미 수축되기 시작하여 순치 8-11년의 사이에는 차례대로 완성되었다.

철령과 개원은 완성된 것이 약간 늦는데 사서에 기재되기를 순치 15-16년 철령성 북쪽 이십리 정도의 삼도포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 小關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세워 문으로 삼았는데 대략 완성되는 시기를 1658-1659년으로 볼 수 있다. 곧 성경노변의 동단이 완성된 것은 순치 15년 이전으로 그 해 12월 방효표가 유배당해 出關하여 북으로 향해 英額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 대하여 산천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여기에 이르러 홀로 하나의 골짜기가 열리고 수십 번 꺾인 언덕이 거듭 이어지니 이에 平原에 달하고 형세가 높고 웅대해 진정 하늘이 내외의 경계로 삼은 곳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 설치한 關에서 貂皮와 蓼의 출입을 조사하고 甲士 10여인이 관문을 지킨다고 말해 이미 영액변문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성경노변은 강희 중엽 이전에 수차례 조정되었다. 강희황제의 즉위가 멀지 않은 순치 18년 12월 兵部에 諭를 내려 “성경변장 바깥에 거주하는 마을을 모두 성경변장 이내로 옮기고 錦州의 안 山海關 바깥의 경계를 마땅히 展邊하는 것을 의논하여 상주하라”라고 하였다. 민족격리 정책 및 성경과 동부 몽고 사이의 구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첫째, 이미 건립된 유조변 서쪽의 성경 백성의 村屯을 일률적으로 邊의 안쪽으로 옮기게 하였다. 둘째, 금주에서 산해관 사이의 유조변을 서쪽으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강희 10, 14, 19, 25, 36년 다섯 차례 유조변이 조정되었는데 주요한 것은 서쪽과 북쪽을 향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장군 안주명은 강희제에게 19년 탁변의 20여리, 橫으로 천리에 목책을 세워 경계로 삼고 요충지에 병사를 배치해 방어하게 하였고 작은 언덕을 큰 길로 고치고 역참을 옛 도움으로 옮기자고 청하였다.

각 변문을 살펴보면 몇 차례의 전변 중에서 비교적 커다란 변동은 아래와 같다. 우선 노변에 해당하는 변문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明水堂 변문으로 산해관과 가까운 첫 번째 변문이다 순치 11년 영원주성의 서쪽 110리 평주영에 처음 설치되었다. 대략 강희 36년 명수당으로 고쳐 세워졌으니 즉, 원래의 평천

10) 金宣叟, 「擁正-嘉靖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朝鮮 國境地帶」, 『중국사연구』 제71집.

영에서 서쪽으로 약 60리를 확장하였다.

두 번째는 白石嘴 변문으로 명수당 변문의 북쪽 백석취문으로 순치 8년 수구에 처음 설치되었다. 강희 14년 영원주성 서쪽 85리 고대보로 옮겨졌으며 강희 25년 서남쪽으로 약 40리 이동해 관방에 도달하였다. 강희 36년 다시 서북쪽으로 30리를 이동해 최후에는 백석취 변문이 되었다.

세 번째는 백석조문의 북쪽 梨樹溝 변문으로 순치 11년 흑산구에 처음 설치되어 후에 영원주 서북 70리의 진반구로 이동하였다. 강희 36년 다시 서로 10여리를 이동하여 이수구문이 되었다.

네 번째는 이수구문의 북쪽 新台 변문으로 원래는 영원주의 서북쪽 40리에 있어 근채구문으로 불렸다. 강희 14년 이도하로 옮겨졌으며 강희 36년 마지막으로 서쪽 이수구로 옮겨졌다.

다음으로 松嶺子 변문인데, 신대변문 동쪽 60키로에 위치하며 동남으로 금주와 45키로의 거리이다. 이곳은 금주에서 조양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도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九官臺 변문이다. 구관대 변문은 송령자 변문에서 동쪽 55키로지점으로 동남으로 의주진과 15키로로 조양지구에서 발원하는 대릉하는 구관대 변문을 지나 義縣과 錦縣을 지나 발해로 들어간다.

清河 변문은 구관대 변문 동쪽 33키로에 위치하며 의주의 관할이다. 청하변문은 강희 15년(1676)에 만들어지고 대릉하의 한 지류가 청하이어서 얻은 지명이다. 그리고 白土廠 변문-彰武臺 변문-法庫 변문-威遠堡 변문-英額 변문-興京 변문(旺清 변문)-城廠 변문-靈陽 변문-鳳凰城 변문 등이 동쪽으로 연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16개의 변문이 노변 곧 성경변장의 주요한 변문에 해당한다. 이후에 생긴 3개의 변문 3개 곧 把葉茂臺 변문, 馬千總 변문, 土口子 변문 등을 합치며 모두 노변의 변문은 19개가 되는 셈이다.

위의 변문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조변의 노변이 산해관에서 발해만을 따라 동북으로 향하며 수중현, 흥성시, 금서현, 금주, 의현, 흑산현, 신민시, 범고현을 거쳐 개원현의 위원보 변문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남으로 방향을 틀어 청원현, 신빈현, 본계현, 관전현, 봉황성을 거쳐 황해로 들어가다 동구현을 거친다. 노변은 전부 지금의 요녕성 경내에 위치하며 요녕의 서부, 북부, 동부를 지나서 1950리(청대 1리는 대략 480미터) 곧 936키로미터에 해당한다. 상술한 바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경변장 서단은 순치연간에 건설된 이후 강희연간 적어도 다섯 차례 조정되었는데 첫 번째로 서쪽과 북쪽을 향해 확장되었으며 둘째, 과거에 설치된 변문의 위치가 이동하였다. 셋째, 산해관에서 개원에 달하는 변문 13개가 조정된 후에 장령산 변문과 산두포 변문이 취소되어 11개만 남게 되었다. 영액은 동으로 다섯 변문이 더해져 성경노

변은 모두 16개의 변문이 있었다.

길림경내의 유조신변은 개원의 위원보 변문에서 길림방면으로 향하는데 강희 9년에 처음 건축되어 강희 20년 완성되었다. 신변의 전체 길이는 약 343km로 신변은 布爾圖庫, 克爾素, 伊通, 法特哈 4개의 변문이 설치되었다.

布爾圖庫 변문은 위원보 변문에서 북쪽 89키로 거리에 있다. 克爾素 변문은 布爾圖庫 변문의 동쪽 75키로 지점에 있으며 지금의 길림 이수현 맹가령향에 해당한다. 克爾素河는 지금 招蘇河로 불리며 요동으로 흐르는 요하의 지류에 해당한다. 伊通 변문은 克爾素 변문에서 동북 92키로 지점에 있으며 伊通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지금의 이통현 황령자향으로 이통변문 바깥에는 몽고 哲利木盟의 목장이 위치하고 있다.

法特哈 변문은 이통변문 동북 88.5키로에 위치하며 法特哈山에서 지명이 유래하고 있다. 이곳은 백도납과 흑룡강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4개의 변문은 현재 길림성에 해당하며 사평시, 이화현, 이통현, 구대시, 동요하, 이통하, 흠마하, 제2송화강을 거치며 길이가 690리가 되었는데 노변 곧 성격변장의 3분의 1정도이다.

IV. 유조변은 만리장성인가?

요금시대의 장성은 界壕 또는 邊壕라고 불렀다. 壕는 변방의 군사시설로 북방 유목민족을 막는 기능을 하며 변호의 내측에 둔군의 정보를 두기도 하였다. 청대의 유조변은 이러한 변호의 형태로 수축되었으며 경계의 표지로 内外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노변과 신변의 서쪽은 몽고인의 유목지역이며 동쪽은 수렵지역에 해당한다. 유조변을 만든 것은 변내의 한족들이 변외로가서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몽골인들이 변내로 들어와 유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노변 바깥 지역은 명대 여진지역에 해당한다. 청 입관이후에는 황실의 소유지가 되어 圍場과 獵場이 위치하였다.

누르하치는 이전 예허부를 복속한 후 그 지역을 황족의 圍場으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홍타이지는 이곳에 자주 와서 사냥을 즐겼다. 사냥 역시 만주 귀족의 신분에 따라 순서와 규정이 있었으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청의 북경천도 이후에도 만주족은 전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으며 길림과 요녕의 산간지역에서 사냥터를 개설하고 산삼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산물을 보호 독점하고자 하였다. 즉 신변과 노변과 같은 유조변의 설치배경에는 자원이 보존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고 그 안쪽을 봉금지대화한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¹⁾

11) 楊賓, 『柳邊紀略』 卷3.

“버드나지 가지를 연결해 내외의 경계로 삼았다”거나 “올타리를 세워 내외의 경계로 삼았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한다. 소위 안과 밖은 성경노변으로 말하자면 그 남쪽은 안, 그 북쪽은 바깥이다. 길림신변으로 말하자면 그 동쪽은 안이며 서쪽은 바깥이 된다. 이렇게 내외의 한계를 정한 것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주족의 용흥지지 구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즉, 성경노변의 서단으로부터 동으로 길림신변의 동쪽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주족이 발상한 지역으로 확정하였다.

두 번째는 성경, 길림과 동부 몽고 사이의 구역경계를 정하려는 것이다. 조선사신이 광녕과 의주를 거치면서 “목책이 있어 동으로부터 서쪽까지 그물같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목책의 바깥은 몽고지방이다”라고 하였다. 길림에 신변을 수축했을 때에도 또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줄로 연결했으며 몽고와의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성경과 길림 사이의 구역을 확정하는 것이다. 위원보 변문으로부터 동남으로는 봉황성과 직접 접하여 즉, 六邊 및 봉천, 영고탑과의 경계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유조변은 여전히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경계선이 되었다. 즉, 성경동단 변장의 북쪽, 길림 신변의 동쪽 토지와 산림자원을 만주팔기에 배분하고 특별히 청의 통치자가 독점하는 지역으로 삼았다. 건륭황제는 ‘유조변은 영원한 경계를 설치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내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희 초엽에는 유조변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직 엄격하지 않았다. 각 변문에서 “내외의 사람이 출입하면 반드시 장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았다. 台軍은 다만 올타리를 보수하고 호를 파며 晨時에 문을 열고 닫을 뿐이었다. 그러나 강희 중엽 이후에는 유조변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점차 엄격해져 유조변을 따라 지키는 병사가 순찰하며 장군의 명령이 아니면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밤을 틈타 담을 몰래 넘는 자는 다음날 人馬의 종적을 살펴 뒤를 쫓아 잡아 刑部로 압송해 치죄하였다. 또한 사사roi 월경하는 자는 반드시 엄격한 법에 의거해 처리하였다.

건륭연간에는 강력한 봉금지책을 실시함에 따라 유조변의 출입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러나 목책과 邊壕는 몰래 넘어가는 일이 쉬웠다. 건륭황제도 유조변을 설치한 것이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청 조정은 유조변 바깥에 초소에 해당하는 내지 카룬을 설치해 유조변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았다.

현재 중국은 장성의 범주에 전국시대의 장성, 진나라 장성, 한 대의 장성, 북위장성, 수·당장성, 고구려 및 발해장성, 요대장성, 금대장성, 명대장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청대 유조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또한 명대의 변장 역시 벽돌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험세를 이용하고 목책과 흙 들을 이용하여 방어선의 개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성이 될 수 없다.

목적으로된 구조는 군사방어 시설물이지만 곧 사라지거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장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강을 이용해 적을 방어하기도 하였는데 城池의 池는 고대에 강이나 물을 고인 壕가 그러한 역할을 한 흔적이 될 것이다. 전국시대 이후 각국의 영토가 팽창하면서 변방에 설치하는 邊壕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변호는 일종의 邊塞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호 곧 변새는 폭우나 바람 등 기후에 취약하여 단기간 내에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 요나라의 경우 700여 킬로에 달하는 변호를 수축했으며 금나라 역시 내몽고 지역에 몽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변호를 수축했는데 그 길이가 3,459킬로에 달하였다. 청대에 이르러 관내의 유민들이 봉금지역이나 성경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조변을 설치했는데 그 길이가 1,267킬로에 달하며 요금시대의 유조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외에도 북위 6진변호, 북송의 변호 등을 합치면 대략 6천 킬로미터라고 중국은 발표하고 있다.¹²⁾ 이러한 변호는 판축이나 명대의 벽돌을 이용한 장성 수축에 비해 공정이 용이하다. 또한 요금시대의 변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사막지역을 향하고 있으므로 호를 파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견고하지 못하여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장성의 기본개념은 지표면에 석재나 돌, 벽돌 등을 이용해 견고한 담을 축조해 연결하는 것이라면 변호는 일반적으로 지하로 호를 파는 방식의 ‘溝塹’의 형식으로 기후나 비 등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고 매워질 경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변호는 방어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장성과는 기능과 구조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상 취약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쉽게 무너져 내려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다.¹³⁾ 이 때문에 중국학계의 거장 왕국유 역시 금나라의 성을 장성이라 부르지 않고 界壕라고 부르고 “掘地爲溝塹，以限戎馬之足”으로 표현한 『금사』의 내용을 인용하였다.¹⁴⁾

변호는 장성이 아니라 변호로 불러야 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계호가 적합하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변호를 장성으로 부른다면 청대의 유조변 역시 장성이 되어야 하는데 溝塹이 기초가 되는 유조변은 금나라 계호와 형태상 비슷하므로 장성이 될 수 없다. 역대 역사서에도 청나라 유조변을 장성으로 표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장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것은 자연적인 험세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를 제압하기 위해 자연의 험준한 요세를 빈번하게 이용하였다. 그리고 장성을 수축하는 과정에서도 인공물이 아닌 강과 산, 절벽과 같은 자연적 지세

12) 景愛,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006, p.347.

13) 『金史』李石傳

14) 『金史』內族襄傳.

를 용하여 장성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장성의 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되지만 장성이라고 할 수 없다. 장성은 인공적인 구조물, 방어의 군사적 기능, 그리고 연결된 선이라는 요건을 구성해야 하는데, 자연적인 험세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하서주랑의 기련산의 여맥, 곧 龍首山(해발 3,440)과 合黎山(해발 2,054)을 이용하여 장성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장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자연적인 험세는 자연적인 것일 뿐 장성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장성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또한 험준한 산속의 언덕에 적을 방어하는 관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장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고개를 넘는 중요한 길목에 양쪽의 산을 끼고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길을 직접 통제하는 군사시설물은 명대 요동변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산해관 서쪽 지역과는 달리 명대 요동변장은 만리장성처럼 벽돌로 연결한 일선의 벽이 아니라 적일 출몰하기 쉬운 지역에 성보와 같은 크고 작은 군사시설물을 축조한 일종의 방어선이였다.

고대에는 위급한 상황을 주로 봉수를 통해 알렸다. 이것은 봉수가 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장성과 분리할 수 없는 장성의 부속물로 보기도 한다. 장성지대가 아닌 지역에서 봉수 지점을 연결하여 장성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성의 개념에 봉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봉수는 봉화대, 봉대라고도 불리는데, 돈대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토축이나 석재를 이용하여 대를 올리고 불을 지피 불과 연기로 상황을 알리는 군사시설에 불과할 뿐이다.

한나라 이후 수축한 장성에는 봉수대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장성 선상에 있지 않은 봉수를 장성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봉수는 반드시 장성 선상에만 수축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수대가 있지만, 봉수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성이라고 할 수 없는 명요동변장이나 유조변에 설치된 봉화는 장성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V. 유조변의 기능약화와 카룬(卡倫)설치

卡倫은 만주어로 초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청대 동북지구의 내지카룬은 城鎮에 주방하고 邊門을 수비하는 것 이외에도 군사를 순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었으며 특히 유조변과 호응하여 邊外로 진입하는 유민을 검사하는 것을 관장하였다.

청대 동북지구의 카룬은 그 성질과 작용에 의거하여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邊境卡倫으로 예를 들어 흑룡강 상류 일대 카룬으로 국계를 수비하고 변경의 안전을 유지하였다. 다른 한 종류는 內地卡倫으로 동북내지에 주로 설치되어 유조변의 북쪽 지역에서 가축을 훔치는

일과 禁山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유민을 조사하였다.

내지카룬의 설치는 유조변보다 늦으며 유조변으로 유민과 포부가 몰래 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강희 후기부터 설치가 시작되었다. 내지카룬의 구체적인 임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유조변을 넘어 사사로이 개간하거나 몰래 사냥하는 내지유민을 차단하고 조사한다. 2. 포부(심마니)를 조사한다. 3. 표를 휴대하고 삼을 캐는 포부가 지정된 산림으로 가지 않고 삼을 캐는 것을 방지하며 아울러 포부를 압송해 돌려보내는 책임을 지고 중도에 사사로이 인산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4. 상인, 관병 등이 곡물, 가마, 布匹 등을 팔거나 훔치는 자를 금지시킨다. 5. 사사로이 씨앗이나 질삼을 매매하는 자를 조사한다.

상술한 바를 통하여 내지카룬의 설치와 중요한 임무는 청정부와 귀족의 소유인 토지와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강희연간 내지카룬은 성경노변 동단의 양측에 다수가 설치되어 유조변을 보완하였다. 변문 출입을 조사하고 살피며 사사로이 채취, 사냥, 개간하는 유민의 종적을 추적해 체포하였다. 문헌에 기재된 바로는 강희 45-47년의 기간에 유조변의 내외를 따라 55개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카룬은 일반적으로 관원 1명과 10-27명의 병사를 두었다.

옹정시대에는 유조변의 각 변문 수비를 더욱 강화하여 위원보 변문에서 길림오랍, 영고탑에 이르는 지역에 포부가 왕래하는 노선을 규정하고 흑룡강 지역의 蔘山 요충지인 호란에는 8곳의 카룬을 추가로 설치해 통제하는 것을 막았다.

乾·嘉연대에 동북지역이 내지카룬은 급격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길림오랍 장군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설치되어 카룬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호란을 중심으로 카룬이 증설되었다: 건륭 원년 작나구, 포이갈퇴육, 백양수, 노민하 등에 카룬이 설립되었다. 32년 호란하는 통하여 출삼되는 대안산, 소안산, 발산의 노민구, 호란하 동남 및 포륙찰목 등의 지역에 임시카룬을 설치하였다. 이외에 건륭 35년과 옹정연간에 몽고 노삼산 8곳에 상설카룬을 세우게 하였다.

2. 아룩초객을 중심으로 카룬이 증설되었다: 건륭 17년 아룩초객의 길을 통하는 송아리하의 상류 북안, 석북하 북안, 석북하구에 台卡를 설립해 官蔘을 훔쳐 나가는 자를 체포하였다. 성의 서남으로 통하는 길림오랍의 요충지인 다환, 흑란, 성의 동북으로 통하는 삼성의 요충지인 비극 도구에 모두 台卡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아룩초객 부근의 불다화, 해구, 약근흔, 아룩초, 고압, 액목산에도 모두 카룬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3. 삼성을 중심으로 대략 12곳의 카룬을 증설하였다: 삼성성에서 영고탑으로 통하는 길인 오사흔하, 송화강에 인접한 마안에 모두 台卡를 설치하였다. 웅살구에 설치된 카룬을 와이성의 카룬으로 대체하여 수로의 인부와 선박을 검사한 이후에 통과시켰다. 삼성을 지나는 우수리, 수분

의 각 요로에 모두 카룬을 설치하고 그 중 음달목에는 상설카룬으로 만들어 송아리하 하류의 철송새 지방의 인삼을 훔치는 자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게 하였다. 비요둔하, 불룩화, 오주우란, 법륙도, 혼하도구, 도사제, 음달목계는 임시카룬을 설치하였다. 이외에 나랍미마정산의 석분하, 광포제, 희길란, 송화강 하류 북안의 재하를 통과하는 곳에도 모두 각기 하나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4. 영고탑을 중심으로 21개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禁山으로 향하는 요로인 성의 서쪽 덕목카룬, 성의 동쪽 호이객하 하류의 오철림, 이차 등에 임시카룬을 설치하였다. 훈춘으로 향하는 대로 상의 마이호리, 살제로, 목릉 등은 상설카룬이며 성의 서쪽 남아포비이등 지방의 확진, 송랑, 갈랍고 등은 일시적으로 台卡를 설치하고 성의 동쪽 상서섭혁 지방에 두 곳의 상설 台卡를 세웠다. 이외에도 삼이 생산되는 지역 내에 여전히 백하, 호십객이웨논, 왜릉, 갈사합, 화란, 광른 혼, 갈사한, 다웅식, 호란길, 탐극통길 등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5. 길림오랍을 중심으로 약 18곳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건륭 10년 진북보를 통과하는 대로에 상설카룬을 설치하고 후에 이도하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삼산카룬을 성의 동쪽 삼산액철목에 상설 台卡를 설치하고 후에 이 지역을 긴요한 요해지로 삼아 부근에 카룬 두 곳을 설치하였다. 길림오랍 부근의 산삼으로 등기된 등탄휘발, 평정산, 백석, 입발, 소이제, 각합, 서이합 타생오랍에 속하는 삼산 사도양자, 객사리, 나목당아, 장령자 등의 지역에도 각기 카룬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건륭 3년 삼둔하, 나이구, 상당한에 카룬을 설치하였다.

6. 백도늘을 중심으로 6곳의 카룬을 설치하였다. 성의 서북 송아리, 눈강액극심, 서노제, 다환, 합사보 성의 동남 부록견아극사, 영산령, 성의 동북 우수리와 통하는 대로인 당길, 팔간방에 각기 台卡를 설치하고 인삼을 훔치는 일을 조사하였다. 수로 방면으로는 삼을 채취하는 해가 되면 약제이도구에 관병을 추가 파견해서 逃人 및 몰래 채취하는 人夫를 조사하였다.

강희시대에 내지카룬은 유조변의 동단 양쪽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건륭시대에는 주로 길림장군의 관할 내로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민의 인삼을 생산하는 지역이 북으로 이동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동시에 유조변의 조사를 보조하며 각 關의 요로 부근을 수색하고 관리하였다. 이외에 요원한 지방은 카룬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시로 병사를 파견하고 수색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수분하 하류의 빈남해 지역은 매년 5월 삼성, 영고탑에서 파견된 관병이 길을 나누어 겨울동안 거주한 자의 종적을 전면적으로 추적하여 수색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초목의 싹이 트는 시기에 철수하였다.

도광연간에 이르자 인삼채굴업이 쇠락함에 따라서 카룬에서 삼을 조사하는 작용도 점차 약해졌지만 청조 정부에서는 여전히 삼을 확보하기 위해 카룬의 작용을 강화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도광연간 인삼 등의 특산자원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여 봉금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

으며 도광 이후 내지카룬은 대대적으로 철폐되었다.

VI. 결론

청대에 설치된 유조변은 내지와 외지를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유조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청대 유조변은 요동을 석권함으로 외부로 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요하투 지역을 유조변으로 흡수하였고 조상이 발상지인 흥경 역시 유조변의 내지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조변의 확대는 무한할 수가 없었다. 조선과 청사이의 지역은 조선과 국경지대였고 많은 특산물을 보호해야 했으므로 유조변이 봉황성에서 발해만으로 흘러들어가 압록강에 미치지 못하였다. 명대 팔참지역은 청대에도 여전히 국경중립지대로, 그리고 봉황성에 책문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청 초기 유조변을 만든 것은 변내의 한족들이 변외로 가서 개간하거나 불법으로 채취 수렵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몽골인들이 변내로 들어와 유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청나라는 입관 후 전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으며 길림과 요녕의 산간지역에서 사냥터를 개설하고 산삼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산물을 보호 독점하고자 하였는데 이같이 유조변의 설치배경에는 자원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만주족의 용흥지지 구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 성경, 길림과 동부 몽고 사이의 구역경계를 정하는 것, 성경과 길림 사이의 구역을 확정하는 것,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경계선의 설정필요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유조변은 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구조적으로 본다면 장성의 기본개념은 견고한 담을 축조해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대 유조변은 요금시대 界壕나 邊壕와 같은 것으로 장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역대 역사서에도 청나라 유조변을 장성으로 표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중국은 명대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동단기점을 압록강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요동변장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청의 유조변이라면 앞으로 유조변 역시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며 그 길이를 길림으로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흑룡강과 길림, 그리고 신강에서 장성의 흔적이 나왔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고구려, 발해, 명나라 장성은 물론 청대의 유조변도 만리장성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성의 개념에 목책, 고립된 성채, 자연적인 험새나 군사시설물 등은 포함될 수 없다. 이것은 장성의 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되지만 장성이라고 할 수 없다. 장성은 인공적인 구조물, 방어에 군사적 기능, 그리고 연결된 선이라는 요건을 구성해야 하는데, 자연적인 험새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험준한 산속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關 역시 장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장

성지대가 아닌 지역에 산재해있는 점으로 된 봉수를 자의적인 선으로 연결하여 장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봉수는 반드시 장성 선상에만 수축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수대가 있지만, 봉수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성이라고 할 수 없는 명요동변장이나 유조변에 설치된 봉화는 장성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유조변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카룬이 그 기능을 보조하였다. 후금시대부터 누르하치는 한족이 여진지역으로 들어와 농경, 채굴 및 채집하는 일 등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유조변 변문의 기능을 보조하는 내지카룬의 임무는 유조변을 넘어 사사로이 개간하거나 몰래 사냥하는 내지유민을 차단하고 조사하는 것, 포부(심마니)에 대한 조사와 관리, 불법채삼의 감독, 불법 인삼매매의 감독 등 봉금지대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채취와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이 주업무였다. 청후기로 갈수록 인삼, 초피 등 자원이 고갈되어 도광연간에 이르자 인삼채굴업 등이 쇠락함에 따라서 카룬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도광 이후 내지카룬은 대대적으로 철폐되었다.

즉 유조변과 카룬 설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만주족의 특수한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蓼山, 圍場, 官荒, 牧廠 및 일상생계 등의 각 방면을 포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봉금지대의 기본 목적을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산해관의 출입통제, 유민의 만주로의 이동 금지, 만주토지의 기인소유, 광물과 인삼채굴의 금지, 그리고 풍속의 유지 등이었다.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 이익을 만주족이 독점하기 위해 만주에 유조변과 카룬을 설치하고 내지에 다른 민족의 접근을 차단하는 봉금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륭 5년에서 14년에 달하는 기간에 동북의 각 지역에는 봉금이 선포되었으며 그 봉금의 배경은 무역하거나 고용되어 일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기타 내지의 한족 유민이 동북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할 것, 한인이 동북지역에서 개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개간하여 경작이 가능한 황무지는 남겨서 기인에게 줄 것, 한인이 동북지역에서 사사로이 인삼을 채취하거나 담비를 수렵하거나 진주를 채굴하는 일 등의 특산품을 매매하는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 등 경제적 이익을 만주족이 독점하려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봉금령은 내지로부터 유민이 대량으로 넘어왔고 청 정부가 밀려드는 유민을 유조변과 카룬으로는 감당할 없었다. 이것은 봉금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성경, 길림, 흑룡강 세 지역은 건륭전기에 인구수가 약 4~50만이었으나 도광 20년에 이르면 이미 300여 만 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청초기부터 만주를 지키기 위해 설치된 유조변과 카룬은 봉금지대를 지키던 마지막 보루였으나 결국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봉금지대를 개방된 공간으로 내주고 말았다. 청나라는

산해관과 유조변, 그리고 카룬을 통해 만주의 토지와 자원,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조변은 그 크기에 비해 인구의 이동을 막기에는 부족하였다. 실제로 성경장군, 길림장군, 흑룡강 장군이 유조변의 각 지역을 담당하였지만 장군제도를 통해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과 봉금지대는 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판도외의 지역이라고 『유변기략』에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판도외의 지역에 설치된 유조변은 충분히 국경을 나타내는 경계선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명대 요동변장과 비교하면 유조변은 장군들이 파견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청나라의 강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장군들이 역할과 성격이 특수한 만큼 그들의 역할 역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연행사의 정보수집활동 - 18세기 북경을 중심으로 -

백옥경(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II. 북경 내 사행원들의 주요활동 공간
III. 정보수집의 주체와 경로
IV. 수집 정보의 내용
V. 결론

I. 서론

조선은 청과 燕行使라는 지속적인 교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은 청에 매년 한번씩 歲幣를 보내는 한편, 聖節·元旦·冬至에도 進貢하여 1년에 모두 네번 사신을 보냈다. 그러던 것이 1645년부터는 동지사 외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사행을 보내는 것으로 바뀌면서, 한 해에 두세 차례 정도의 사행이 파송되었다. 그 결과 청초부터 동치 말년(1874)까지 청에 보낸 사행의 회수는 238년간 모두 474회이며, 兼帶한 경우까지 합치면 870회에 이른다.¹⁾

조선은 이러한 연행사의 교류 시스템을 통해 청 내부의 사정 및 그들과 교통하는 외국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지식정보들을 유입할 수 있었다. 표류 등의 우연한 기회 외에는 외국과의 직접 교류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해외 정보 파악은 모두 사행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사행에 참여한 정사나 부사, 서장관, 역관 등은 각종 정보들을 수합하여 공식적인 기록으로 국가에 보고하였으며, 조선 정부는 이를 국가 기록으로 보관하는 한편, 그때 그때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청 교류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18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연행사의 정보수집활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연행사를 통해 보고된 다수의 <문견별단>이 남아 있어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조선 정부에 보고되는 내용들이

1) 최소자, 정혜중, 송미령 엮음,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해안, 2007, 20~21쪽

어떤 경로를 통하여 수합되며, 그 정보들에 반영된 조선 정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행사행 노정 중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였던 북경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때 행해진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 내용과 전달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북경 내 사행원들의 주요활동 공간

북경은 명대 永樂帝 때부터 제국의 수도로서 위엄을 자랑하였고, 청대에도 그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경은 정치적으로 황제가 거주하는 국가 공권력의 소재지였다. 청나라의 국가와 행정을 이루는 온갖 요소들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황제를 주축으로 하여 움직였다. 황제는 곧 천자로서 인간세계와 자연세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할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기도 하였다. 북경은 이러한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건립된 궁궐을 중심으로 각종 관공서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정치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는 황제의 지원하에 대규모의 편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총체적인 문화육성책으로 청대 학술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또한 북경은 외교의 중심지였다. 청에는 조선·안남·유구 등이 정례적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하였으며,²⁾ 그 외에도 타이·미얀마·몽고 등과 네덜란드·러시아 등의 서양 국가들의 사절단과 상호 접촉할 수 있었던 국제 외교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연행사는 사행 노정 중 북경에서의 체류기간이 가장 길었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사행이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략 40~60일 가량이었다. 『대명회전』에는 원래 사행이 관소에 머무는 것을 40일로 정하였으나 숭덕 연간 이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강희년간에 이르러 사은사의 행차가 지체되어 60일 동안이나 오래 머물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체로 60일 이상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³⁾ 실제 숙종 38년의 사행은 임진년 12월 27일부터 다음 해인 계사년 2월 15일까지 총 46일을 북경에서 머물렀다. 그동안 사행원들은 회동관을 거점으로 하면서 청 관부와 기타의 공간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1. 회동관

회동관은 원, 명, 청을 거치면서 주변 조공국 사신이나 소수 민족 등의 관리를 접대하는 기관으로서, 원나라 至正 13년(1276)에 설립되어 청나라 光緒 29년(1903)까지 약 600여년 이상 존속되었다.⁴⁾ 회동관은 동편으로 옥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옥하관이라고도 불렸으며, 조선 사신들의

2) 夫馬進,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대류큐 외교」, 2008년 이화사학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3) 『통문관지』 제3권, 館所에 머무는 일자

숙소로 거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관이라고도 불렀다.⁵⁾

회동관은 황성 옆 관부거리에 있었는데, 한림원의 남쪽, 상림원감의 동쪽, 옥하 남쪽 南城의 근처였다고 한다.⁶⁾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어서 3면이 모두 높은 담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남쪽에 큰 길이 있었어도 인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머리를 들어 성안을 보려 하여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⁷⁾

사신 일행은 북경에 들어온 뒤부터 이곳에 체류하게 되는데, 사행원들은 각각의 지위에 따라 방들을 배정받았다. 이곳에서는 상마연 등의 연회가 베풀어지기도 하였으며,⁸⁾ 개시가 열려 무역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⁹⁾

당연히 청 정부의 관심도 지대하여서, 회동관에는 사신 일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위해 衙門이 설치되어 있었다. 회동관의 중문 밖에 설치된 아문에는 제독 1명(예부 낭중 겸무),¹⁰⁾ 大使(2인, 예부 소속 한인 대사 1명, 병부 소속 한인 대사 1명),¹¹⁾ 通官(대통관 6명 차통관 6명 모두 12명),¹²⁾ 序班(3명/6명), 館夫, 阜隸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¹³⁾ 그 외에 守門將(2명), 甫(十)古(하급 무관, 2명), 甲軍(16명/20명), 開市官(1명), 회동관 副司(1명) 및 饌物, 柴草, 糧米 등을 관리하는 관원들도 각각 배속되어 있었다. 수문장 2명은 甫古 2명과 甲軍을 거느리고 문을 지키는데, 수문장은 매일 교체되지만 보고는 5일마다 바뀌었다고 한다.¹⁴⁾

이들의 관리 하에서 館門의 출입은 자유롭지 않았다. 조선 사행원이나 잡인의 출입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신 일행이 출입할 때에는 갑군들이 동행하였고,¹⁵⁾ 오후가 되면 아문의 문을 닫아 봉인하고 출입을 금지하였다. 매일 未時 후에 통관들이 와서 중문을 잠그고 봉인한 뒤, 이튿날 해가 뜬 뒤에 와서 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¹⁶⁾ 만약 갑군과 동행하지 않은 채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면 아문에 보고가 들어가고, 행중에서는 사행에 고하여 처벌이 가해졌다.¹⁷⁾ 또

4) 강동엽, 「연행사와 회동관」, 『비교문학』 41, 2007, 348쪽
 5) 청나라에서 그들 나름의 분류 기준을 만들어 각기 나라나 민족에 따라 숙소를 구분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옥하관은 조선 사신들의 숙소로 거의 고정되어 있었으나, 러시아 사신이 북경에 오면서 이곳에 묵게 되었을 때는 임시로 조선 사신들이 北極寺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6) 최덕중, 『연행록』, 일기, 임진년 12월 27일. 황성의 동문인 조양문을 통해 들어가 3리를 가면 조선의 종루와 같은 사패루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3리 남짓 가면 남성 동쪽 첫째 문에 이르는데, 또 서쪽을 향해 가다가 옥하교를 건너면 1리쯤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7) 김창업, 『연행일기』, 제3권, 임진년 12월 29일(무인)
 8) 『통문관지』 제3권, 上馬宴
 9) 『통문관지』 제3권, 告示
 10) 최덕중, 『연행록』, 일기, 임진년 12월 27일
 11) 최덕중, 『연행록』, 일기, 계사년 1월 26일
 12) 최덕중, 『연행록』, 저 나라에 들어가서 禮單을 급여하는 식, 北京所管
 13) 최덕중, 『연행록』, 입경식. 이 숫자는 같은 사행의 김창업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대사 1명, 서반 6명이 있었다(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5일(계사)).
 14)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5일(계사)
 15)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8일(병술)
 16) 김창업, 『연행일기』 제3권, 임진년 12월 28일(정축)

외출을 허락받았어도 시중에서 물건을 함부로 구매하는 것은 통제를 받아, 때로는 몸수색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¹⁸⁾

물론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유람이 가능했고, 혹 마찰을 빚더라도 아문에 뇌물을 주면 쉽게 무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문의 묵인 하에 사행원들의 출입은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김창업은 館門을 출입한 것이 13차례가 된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빈번한 출입을 자랑하기도 하였다.¹⁹⁾

2. 官府 및 皇宮

사행원들이 회동관 외에 공식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사행원의 행례 및 사행업무와 관련 있는 관부 및 황궁 등이었다.

사행원들은 황성과 그 주변의 관부에서 각종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어 있었다. 사행단은 북경에 도착하면 조선에서 가져온 表文과 咨文을 禮部에 제출해야 하였다.²⁰⁾ 그리고 鴻臚寺에서 正使 이하의 모든 正官들이 牌閣 앞에서 三跪九叩頭를 연습한 뒤, 황성에 나아가 청 황제를 알현하는 朝參에 참여해야 하였다. 歲幣와 조공품은 예부에서 인수한 뒤 황제에게 보고했고, 황제는 이에 답하여 조선 국왕에 대한 답례품과 사신 일행에 대한 선물을 하사하였다. 이로 인해 사행원들은 예부, 홍려시 등에 출입하는 한편, 그곳의 담당 관원 및 기타 인원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예부는 황성의 동쪽에 있었는데, 회동관으로부터는 서쪽으로 1리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였다.²¹⁾ 이곳은 사신들이 표문과 자문 등의 외교문서와 방물을 바치며, 해결해야 할 외교현안을 청측 관리들과 논의하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사행원들은 조선에서 바친 외교문서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역관을 파견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황제의 황지가 내려지는 것도 모두 예부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었다.²²⁾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행원들이 북경에 들어온 뒤의 下馬宴이 행해졌고, 귀국시에는 예부에서 의식을 거쳐 回咨를 전하여 주었다.²³⁾ 또한 예부는 회동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서로서, 회동관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 및 서반, 통관들도 모두 예부 소속이었다. 따라서 예부는 조선 사행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방문해야 하는 곳이었다.

17)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5일(계사)

18)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9일(경유)

19)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2월 11일(기미)

20) 표문과 자문은 각각 對황제문서, 對관아문서로 차이가 있다.(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칭사연구』 30, 2008, 99쪽)

21) 최덕중, 『연행록』, 일기, 임진년 12월 27일

22)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2월 6일

23) 『통문관지』 제3권, 下馬宴, 辭朝

鴻臚寺는 사행원들이 公服을 입고 가서 미리 의식 연습에 참여하던 곳으로, 옥하관의 서북쪽, 예부의 동쪽 문안에 있었다.²⁴⁾ 그리고 궁궐에서는 조참례가 시행되는데, 오문과 다섯 개의 다리를 건너 태화전에서 거행되었다.²⁵⁾ 이곳에는 삼사들이 참여하되 풍려시의 관원들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 3궐9고두레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조선의 사신들은 외국의 여러 사신들보다는 윗자리에 있어서 그 위상이 다소 높았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 외에 강희 연간에는 사신 일행이 창춘원을 방문한 사례도 나타난다. 창춘원은 북경 서쪽 성문을 나가서 약 30리 거리에 있었던 이궁이었는데,²⁷⁾ 강희제는 이곳에 조선 사행원 중 비장들을 불러 활쏘기를 시키기도 하였고,²⁸⁾ 조선 사행에게 특별히 서책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황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관 김덕삼이 창춘원에 가서 침을 놓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³⁰⁾

3. 기타

사행원들이 즐겨 방문하였던 공간으로는 유리창이 있다. 유리창은 북경 정양문에서부터 선무문까지 계속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거의 27만간에 이른다.³¹⁾ 유리창은 원래 기와 굽는 곳이 있어서 각색의 유리 빛으로 기와를 구워 궁실에 책임지고 물품을 납부한 까닭에 비롯된 지명이었다.³²⁾ 청대에는 이곳에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서화와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들이 들어서서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이곳은 조선의 연행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파는 서책과 집물을 구경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비와 낙방한 南方의 과거 응시자들이 많아서 혹 이러한 선비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³³⁾ 따라서 유리창은 조선과 청나라의 인사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상호 문화와 학문, 예술, 역사를 논의하는 場이 되었다.

또한 천주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었던 서양인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 및 천주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고 있다.³⁴⁾

24) 김창업, 『연행일기』, 제3권, 임진년 12월 29일(무인)

25)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일(기묘)

26) 『통문관지』 제3권, 조참

27) 김창업, 『연행일기』, 제5권, 계사년 2월 7일. 당시 사행원들은 황제가 창춘원에 이궁을 15곳이나 지어놓고 북경 및 14성의 미녀들을 모아두고 궁실 제도나 의복, 음식, 기명을 모두 그곳 풍속에 따라 마련하고 황제가 그 가운데서 노닌다고 들었으나 소문과는 달리, 문과 담의 제도가 순박하여 시골집과 다름이 없는 곳임을 알고 놀라고 있다.

28)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25일

29)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2월 3일

30)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6일

31) 박지원, 『열하일기』, 1780년 8월 4일

32) 홍대용, 『담헌연기』, 1766년 1월 11일

33) 홍대용, 『담헌연기』, 1766년 1월 11일

34) 홍대용, 『담헌연기』, 1766년 1월 7일

Ⅲ. 정보수집 주체와 경로

1. 정보수집의 주체

조선정부는 연행사에서 중국 및 기타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관이였다. 사행에서 통역을 담당한 역관들은 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북경에서의 활동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역관으로 북경까지의 사행에 여러 차례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여서 정보 수집에 보다 용이한 점이 있었다.

조선시대 역관들은 사행 참여시 통역 외에도 사행 중 乾糧과 같은 물품 관리, 각처로 보내는 예물의 마련과 포장·단속, 각 처에 공적인 예물을 보내거나 문후하는 일들도 담당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보 수집 활동에도 참여하였던 것인데, 일부 역관은 아예 청나라에서의 사정을 탐지하는 것을 특정업무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숙종 38년의 동지사 겸 사은사에 파송된 21명의 역관 중 兪正 김만희는 통역과 함께 세페미 押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折衝將軍 김응현과 함께 정보 수집 업무를 별도로 배당받고 있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연행사 수행 역관 중에 漢語나 淸語가 아닌 몽고어나 일본어 역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⁶⁾ 조선에서 각국에 파송한 사행에는 해당 국가의 역관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역관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經國大典』에서는 그 목적이 정보 탐색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진·몽고의 소식을 탐문·대응하기 위해 赴京使行에 해당 역관을 차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倭學譯官도 1년에 1차례씩 赴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⁷⁾ 이것은 조선 후기 『通文館志』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對淸 사행에는 蒙學 혹은 왜학역관을 함께 파송하고, 통신사행에는 한학 上通事와 押物廳을 각 1인씩 배속하도록 되어 있었다.³⁸⁾

물론 삼사나 자제군관들도 정보수집에서 예외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대면했던 청나라의 官僚·學人들과 詩文을 酬唱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사나 부사, 종사관들은 1회적으로 북경에 가는 것이었고, 일단 북경에 들어온 뒤

35) 최덕중, 『연행록』, 일기, 기사년 1월 22일, 김창업, 『연행일기』, 제1권, 사행명단과 사행 의식 절차 및 예단

36) 숙종 38년(1712)에 동지사 겸 사은사로 갔던 연행사에는 모두 21명의 역관이 수행하였다(김창업, 『연행일기』 제1권, 사행명단과 사행 의식 절차 및 예단). 그중에는 몽학 2인, 왜학 1인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홍대용이 따라갔던 사행에도 왜어 역관 최홍경이 수행하였다(홍대용, 『산해관 잠진문을 한손으로 밀치도다』, 병술년 2월 11일).

37) 『경국대전』 권3, 禮典 獎勸

38) 『통문관지』 권3, 事大 上, 赴京使行. 이에 의하면 부경사행에는 몽학 別遞兒, 몽학 元遞兒, 왜학 教誨 등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통신사행에는 한학 역관들이 수행하였다.(『통문관지』 권6, 交隣 下, 통신사의 행차)

에도 체면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으며,³⁹⁾ 자제군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었으나 필답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 수집은 역관을 통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首譯을 거쳐 삼사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사행단의 구성원들은 정사-부사-서장관의 三使와 그 밑의 종사관으로 위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正使는 책임자로서 부사와 함께 사행 목적의 달성을 위한 대외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서장관은 사행의 규율을 담당하였다. 그 아래에서 역관들은 사행 실무를 총괄하였는데, 首譯은 역관들의 우두머리로서, 上通事 및 기타 員役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역관들은 수역을 통해 사행활동 전반에 대해 삼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지시받았다.⁴⁰⁾ 따라서 역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 역시 수역을 거쳐 삼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에 돌아간 뒤 연행 과정에서 聞見事目を 보고하는 주체가 삼사 및 수역이었던 것은 이를 반증한다.⁴¹⁾

2. 정보수집 경로와 대상

1) 탐문

사행원들에 의한 정보 수집 방식 중 가장 일차적인 것은 탐문으로, 이는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단은 사행원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탐문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궁중 내부의 사정이나 상세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궁궐과 인맥이 닿아있는 관료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⁴²⁾ 유구국이나 몽고 등 외국 사신들, 유역령이나 포우관 같은 서양인 신부, 민간인들도 탐문대상에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조선의 사행원들이 탐문정보를 확보하는 가장 주요한 대상은 통관과 서반이었다. 이들은 조선 사행원들과의 접촉이 가장 잦은 사람들이었다. 통관은 청나라의 조선어 역관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회동관에 번갈아 왕래하면서 사행원들이 흥려시나 예부에 갈 때, 혹은 입궐시 모두 동행하였다. 게다가 통관은 조선인의 후손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므로⁴³⁾ 조선사행원들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고 정보 제공에도 협조적이었다. 더욱이 통역이라는 업무의 동질성으로 인해 조선의 역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의 사행원들은 이들과의 긴밀

39) 홍대용, 『산해관 잠긴문을 한손으로 밀치도다』, 을유년 12월 28일

40) 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06, 200쪽.

41) 『동문회고』의 사신별단을 분석해보면, 인조 17년(1639)~정조 9년(1785)간 총 170건 중, 정부사에 의한 보고는 56건, 서장관에 의한 보고는 86건, 기타 역관에 의한 것은 28건이 있다(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06, 211~215쪽).

42) 건륭황제 즉위 50주년 행사에 대해 서장관 이정운이 청나라의 흠차사신을 만나 탐문하였다(『정조실록』 권 19, 정조 9년 4월 무술).

43) 홍대용, 『산해관 잠긴문을 한손으로 밀치도다』, 을유년 12월 28일

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통관들의 물질적 요구도 전부 수용해 주곤 하였다.⁴⁴⁾

서반은 예부 소속으로 일종의 서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사행이 오면 예부에서는 8명의 서반을 정하여 아문의 대소 문서를 거행하게 하였다. 회동관에는 모두 6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⁴⁵⁾ 서반들 역시 업무 관계상 사행원들과 소통이 많았다. 조선 사행원들은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들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탐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주요 탐문 대상자인 통관이나 서반들이 고위 관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는 고급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탐문대상자들의 의도적인 침묵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때로는 거짓 정보가 제공되거나 무수히 떠도는 소문 속에 그 진위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반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조작되거나 은폐된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였다. 서반들이 고의로 거짓 문서를 만들어 역관들에게 많은 값을 받고 팔거나,⁴⁸⁾ 아무 일도 없을 때라도 일이 있다고 하고, 일이 비록 가벼운 것이라도 무거운 것처럼 말하는 등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⁴⁹⁾ 이 때문에 사행원들은 이들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이들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큰 한계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헌자료를 통한 정보수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2) 문헌자료

사행원들은 북경에 도착하게 되면 탐문 외에도 각종 문헌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 정부의 邸報⁵⁰⁾ 혹은 塘報⁵¹⁾ 있었다. 저보 혹은 당보는 일종의 소식지로 청대에 발행되었던 公報였다. 청 정부에서는 모든 諭旨와 정사에 관한 소식들은 內閣을 경유, 발표해야 할 것과 발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한 다음, 발표할 것만을 각 아문으로 내려 보내서 초록하여 지방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면 邸報의 편집 발행인들이 각 아문

44)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17일(을미)

45)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3일(신사)

46)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3일(신사)

47) 정조 19년(1795) 건륭황제가 帝位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선포하자, 서장관 문경우는 역관들을 시켜 朝士와 민간을 통해 알아보게 하였는데 거의 모두가 침묵을 지키며 손을 내저었다.(『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기해)

48) 이의현, 『경자연행잡지』 하

49)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3일(신사)

50) 최덕중, 『연행록』, 일기, 계사년 1월 6일. 여기에서는 저보가 날마다 인쇄하여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이의현, 『경자연행잡지』 상. 당보는 옹정년간에 저보의 발행이 금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공보지로서 간행된 것이었다(차배근, 「중국 「저보」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소고」, 『언론정보연구』 21, 1984, 93쪽).

에 와서 내각으로부터 내려온 발표용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抄錄 인쇄하여 각 성이나 藩鎭 등의 지방관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였다.⁵²⁾ 연행사들은 북경에 유통되었던 저보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렇게 입수한 저보는 대부분 신속하게 필사되어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저보에 나타난 청나라의 정치사정과 관료들의 동향은 거의 실시간으로 조선사회에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⁵³⁾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 정부의 문서들을 직접 구해 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로 황실 관련 사항이나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조선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일 경우에 해당되었다. 숙종 31년(1705)에는 이전 해에 청나라에 갔던 사신 일행이 돌아와 복명하면서 張飛虎라는 인물이 三仙島를 점거한 사실에 대해 題本을 구해와서 보고하고 있으며, 숙종 38년(1712)의 사행에서는 수역 박동화, 상통사 장원익, 별만상 최수창이 문서 두 가지를 구해왔는데, 하나는 병부에서 해적을 평정한 일과 예부에서 尊號를 청한 일이었다.⁵⁴⁾ 건륭제의 진할시에도 황제의 詔書를 받아 그 인쇄본은 미리 조선에 보내어 알리고 있다.⁵⁵⁾

그 외에 관료정보 파악을 위한 官案, 청에 대한 자세한 지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흥현지』 등의 지리서도⁵⁶⁾ 적극 활용되었다. 관서의 도면을 구해보는 것도⁵⁷⁾ 그 중 하나의 방법이었다.

3. 수집 정보의 조선 전달

수집, 정리된 정보는 국왕에게 문서로 수시 보고되었다. 보고 주체는 서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사나 부사, 역관 등도 가능하였다. 보고는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체로 사신들이 先來通事 혹은 先來軍官을 보내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⁵⁸⁾ 만약 제때에 보고가 이르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면 정부에서 이를 문제삼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⁵⁹⁾

52) 차배근, 「중국 「저보」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소고」, 『언론정보연구』 21, 1984, 97쪽.

53) 오금성 외, 『명청시대사회경제사』, 이산, 2007, 33~34쪽.

54)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27일(을사).

55) 『정조실록』 권 51, 정조 23년 6월 무신

56) 김창업, 『연행일기』, 제4권, 계사년 1월 6일(갑신). 이 책에 의하면 북경 성안에 2개의 현이 있는데, 동쪽은 대흥, 서쪽은 완평이라 한다. 여기에는 북경성 동쪽에 있는 안팎 궁궐, 사단, 촌방, 산천, 인물, 풍속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화과, 금수들도 모두 적혀 있었다. 사행 일행은 이 책을 옥당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57) 최덕중, 『연행록』, 일기, 계사년 1월 14일

58) 『숙종실록』 권 50, 숙종 37년 3월 갑오. 이에 의하면 동지겸사은사 정재륜 등의 선래군관이 忖草와 狀啓를 가지고 들어왔다.

59) 『정조실록』 권 31, 정조 14년 10월 계유. 승정원에서는 이전부터 서장관들의 문건록을 보니 모두 압록강

조선에 돌아온 뒤에는 사행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수합된 정보를 <별단>의 형태로 종합 보고하였다. 그 주체 역시 정사나 부사, 서장관, 역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때에도 서장관에 의한 보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⁶⁰⁾ 국왕이 사신단을引見하여 직접 보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별도로 문서로 된 <별단>이 올려지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⁶¹⁾

이때 <별단>의 형식은 대체로 보고자의 이름을 명시한 후 주제별 혹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기록을 보존하였는데, 서장관이 종합하여 승정원에 제출하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御覽을 거쳐 다시 승정원으로 내려지고, 이를 외교관련 문서로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⁶²⁾

IV. 수집된 정보의 내용

『조선왕조실록』에는 연행사의 사행원들이 파악하여 보고한 <별단>이 여러 건 남아 있다.⁶³⁾ 그중 18세기의 것으로는 숙종 31년(1705)부터 정조 24년(1800)까지의 기간에 모두 27건의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대체로 <별단>은 항목이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각 항목을 1건으로 구분해 보면 모두 120여건의 정보가 확인된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시 조선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들이 파악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별단>의 항목에서는 청 황제 및 황실의 동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 대략 40 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乾隆 황제의 南巡, 황제 즉위 50주년과 60주년행사, 황제의 사냥, 황위 계승의 문제, 황제의 건망증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 건륭황제의 양위 선포, 건륭 태상황의 崩御, 그에 따른 장례 및 服制 등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즉위한 嘉慶 황제에 대해 그의 가족관계, 정국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가 등용한 인재들에 대한 정보도 취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경제가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權臣 화신을 제거한 사실, 그 이후의 권력 장악과 풍속쇄신 현황, 황제의 微行 등도 주요 보고 사항이었다.

사실 청 황실에 관한 정보는 의례적으로 조선에 통지되고 있었다. 청은 청 황제의 등극, 萬壽

을 건넌 후부터 일기를 써서 올렸다고 하며, 근래에는 한두 조목만을 써서 바치는데 불과하여 내용이 부실해 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60) 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15쪽

61) 『정조실록』 권 29, 정조 14년 3월 정미.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서장관 성종인을 召見하였는데, 종인이 이와는 별도로 <문견별단>을 올렸다.

62) 김경록,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63) 『동문회고』에는 보편에 총 170건의 <별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할 예정이다.

節, 崩逝, 遺詔, 尊諡, 태후와 황후의 冊立, 尊號, 황태자 책립 등 황실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나, 曆의 개정 및 변동, 주변 지역의 토벌, 황제의 祖陵 참배 등에 관한 것을 조선에 알렸고,⁶⁴⁾ 조선에서도 국왕과 왕비 및 대비의 승하, 세자 책봉 등을 각각 청나라에 의례적으로 알리고 있었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청 황제 및 황실의 동향을 이와 같이 큰 비중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은, 상호 절제된 공식 외교문서로 오는 통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통지는 매우 개괄적이거나 외교상의 제한된 정보에 국한되어 구체적이면서도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의 對조선정책에 민감해야 할 조선정부가 정식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얻고자 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사행원들은 청 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그 권력관계의 변화 파악에도 주력하였다. 權臣 和坤, 李侍堯, 福康安에 대한 건륭황제의 총애와 그들의 부패상을 보고하는 한편, 그 뒤를 이은 가경 황제가 이들 권신을 제거하는 과정 역시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18세기 조선왕조실록의 사신별단>

년도	문서명
숙종 31년(1705)	임창군 이훈, 이세재, 이하원 별단
숙종 37년(1711)	동지겸사은사 정재륜의 선래군관
영조 2년(1726)	서장관 조문명 문건사건
정조 4년(1780)	동지겸사은사 서장관 홍명호의 문건사건
정조 9년(1785) 2월 갑오	사은사 박명원과 부사 윤승렬의 장계별단
정조 9년(1785) 3월 신미	사은사 서장관 이태영의 별단
정조 9년(1785) 4월 무술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의 별단
정조 10년(1786)	수역 이담 문건 별단
정조 11년(1787) 2월 기유	동지 정사 황인점 별단
정조 11년(1787) 2월 계해	동지 서장관 이면공 별단
정조 12년(1788)	동지 서장관 정치순 별단
정조 14년(1790) 3월 정미	서장관 성종인 별단
정조 14년(1790) 3월 정미	수역 장림의 문건별단
정조 15년(1791)	동지정사 별단
정조 18년(1794)	수역 장림의 문건별단
정조 19년(1795) 윤2월 17일	서장관 정상우 문건별단
정조 19년(1795)	동지사 서장관 심홍영
정조 22년(1798) 3월 병술	동지사 서장관 홍낙유 문건별단
정조 22년(1798) 3월 병술	수역 장림 문건별단
정조 23년(1799)	서장관 서유문 문건별단

64) 최소자, 「18세기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 2009

65) 최소자, 『청과 조선』, 해안, 2005, 27~95쪽.

정조 23년(1799)	진향사 구민화 치계
정조 23년(1799) 7월 병인	진향사 서장관 조석중 문건별단
정조 23년(1799) 7월 병인	수역 김재화 문건별단
정조 23년(1799) 11월 신미	진하사 조상진, 부사 서형수 문건별단
정조 23년(1799) 11월 신미	서장관 한치응 별단
정조 24년(1800) 5월 정해	진하서장관 유정 문건별단
정조 24년(1800) 5월 정해	수역 김재수 문건별단

그리고 조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급히 알려야 할 사항들 역시 주요 관심사로 나타난다. 조선에 다녀간 勅使들을 만나서 그들이 조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탐문하였고, 황제가 조선에 서책을 頒賜하는 등 특별 대우한 일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모두 8건 정도가 확인된다.

한편 <별단>에는 청나라의 통치 이완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청나라에 거둬지는 자연재해의 상황이 약 10여건 보고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정사의 혜택이 관리들의 부정으로 민에게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반란군이나 匪賊 등이 민중을 선동한 사건에 대한 보고가 12건 정도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장비호·주안세⁶⁶⁾ 등과 더불어 苗匪, 白蓮教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苗匪는 당시 소수민족의 하나인 苗族이 봉기하였을 때 그들을 지칭한 용어였다.⁶⁷⁾ <별단>에서는 묘족의 봉기 배경 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오랜 기간 격렬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백련교에 대해서는 산동의 妖賊 王倫이 백련교를 주창하여 무리를 모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므로 군사를 보내 토벌한 것과 그 무리 段文經이 다시 일어난 일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⁶⁸⁾ 이러한 봉기들은 반청운동의 성격을 띤 비밀사회단체나 변방의 소수민족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사회 질서의 이완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청정부가 이들을 진압하는데 막대한 재원을 소모해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주 팔기군의 무능을 보여줌으로써 청조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⁹⁾

또한 지도층의 부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였다. 건륭 후반기 황제의 총애를 받던 和珅의 사치와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다. 화신은 군기대신을 24년간 역임하면서 인사권을 독점하고 국가세

66) 장비호는 삼산도라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출몰하였고, 주안세는 명나라의 자손으로 무리를 이끌고 睢陽을 습격하였다(『숙종실록』 권 41, 숙종 31년 1월 신유)

67) 묘족의 봉기는 원래 그 지역의 토호인 土司가 통치하던 것을 옹정년간에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대체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청조는 묘족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병사들을 요새에 주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묘족의 수령 석삼보와 석류등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를 진압하는 데에는 12년이나 걸렸다(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0, 336쪽).

68) 백련교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2월 기유

69) 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0, 335~338쪽

입을 착복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파당을 만들어 갖가지 부정을 자행하였다. 1799년 가경제가 그를 처벌하고 압수한 재산은 집만 109채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26채의 값만 2억2천만냥에 이르렀다. 게다가 토지, 전당포 등을 포함한 그의 전 재산은 8억냥이었는데, 당시 1년 국고수입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⁷⁰⁾ <별단>에서는 건륭제 당시 화신의 권세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⁷¹⁾ 가경제 당시 그의 처벌 배경과 과정, 결과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화신의 측근세력이었던 福康安의 동향 및 축재와 부정,⁷²⁾ 건륭 후기 양광총독이었던 李侍堯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⁷³⁾

이 외에 八旗制度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만·한 차별대우, 만주족의 풍속들이 점차 쇠퇴해 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 등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 황실과 정부의 내부 동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하여 조선 정부에 즉각 보고하였다.

한편 <별단>에서는 청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파악도 시도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안남과⁷⁴⁾ 유구국이었고⁷⁵⁾ 그 외에 섬라,⁷⁶⁾ 하란(네덜란드)⁷⁷⁾ 등이 언급되고 있다. 안남에 대해서는 5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안남의 왕위 교체에 청나라가 개입된 사실 및 그에 대한 안남국왕의 감사 표시가 주를 차지한다. 안남에는 원래 黎왕조와 莫氏 정권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1771년에 阮文惠가 반란을 일으켜 내분이 지속되었다. 여씨 왕족이 1788년 청조에 구원을 요청하여 건륭제는 兩廣總督 孫士毅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출동케 하였으나 대패하고 퇴각하였다. 청군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문혜는 청조에 사신을 보내 자신을 안남의 지배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건륭제는 그를 안남국왕에 봉하였다.⁷⁸⁾ 연행사들의 보고 내용은 실제 안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의 전개과정을 일치하고 있어서 그 정확성을 보여준다.

유구에 대해서는 그 지리정보 및 국왕에 대한 정보가 3건 정도 나타나며, 섬라와 화란에 대해서는 주로 복식 풍속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지리 정보 및 종족의 국왕, 풍속 등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천주교, 청나라의 혼상례, 공자 자손에 대한 내용, 청나라에서 간행되는 서책에 관한 정보, 세금제도, 관료들의 출근길 모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약간씩 언급되고 있다.

70) 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0, 320~321쪽

71)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3월 신미;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4월 무술

72) 복강안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3월 무자에 그의 가족사항 및 녹훈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73) 이시요에 대한 보고는 정조 4년(『정조실록』 권9, 정조 4년 4월 경오), 정조 9년(『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4월 무술)

74) 안남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3월 정미 참조.

75) 유구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3월 신미

76)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3월 신미

77)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갑진

78) 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0, 256쪽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사행원들이 정부에 올린 <별단>에는 청 내부의 동향 및 그 권력의 향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18세기 후반 들어 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사회 질서의 이완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능하면 보고자의 주관을 배제한 채 매우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였다.

V. 결론

明清史學會

발행 : 2012년 7월 4일

韓國明清史學會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박기수 교수(회장) 연구실

전화 : 02-760-0311

이메일 : keesoo54@hanmail.net
